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공 백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져 일하는 청소년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주유소와 24시간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및 음식점 등 사회 곳곳에서 청소년들의 일하는 모습은 쉽게 발견된다. 전체 중고생의 3분의 1가량이,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절반 가량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기회만 주어진다면 일을 하고 싶어한다.

이 같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기인하는 바 크다. 노동시장의 수요측면에서 보면, 오늘날의 경제 및 산업구조는 대량생산과 제조업 중심에서 다품종 소량생산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시간제 근로와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증가시키게 되었고, 이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는 10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노동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아직 이러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물론,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일부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은 학업에 전념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을 일탈 청소년인 양 바라보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다수의 학교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를 교칙으로 금하고 있으며, 파트타임 취업에 필요한 부모동의서를 놓고 청소년과 부모가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며 맞서고 있다. 그 결과, 불건전한 유흥산업에로의

유입, 무분별한 임금착취와 부당 대우라는 사회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학교를 중도탈락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 및 필요는 매우 높은데 비하여, 이들의 구직 및 취업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학교를 중도 탈락하였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더욱이 이들은 비행청소년화 될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보호대상으로 부각되어야 한다.

해마다 수 만명에 달하는 중퇴 청소년 및 무직·미진학 청소년이 배출되고 있고, 노동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혹은 가정 환경적인 요인으로 노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불건전한 노동산업에 유입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기도 하며, 미성년자란 이유로 고용주들로부터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례마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저임금 구조, 직업훈련(on the job training)의 부족, 성인이 된 후 가질 직업과의 연계성 결여 등의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 착취 및 인권침해라는 범죄 행위가 자행될 소지가 높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퇴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들의 아르바이트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적·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불리한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사회제도 안에 수용함으로써 불건전한 산업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파트타임 취업이 중퇴 청소년에게 사회복귀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교육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고용형태로 자리잡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내용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질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사회복귀에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편법적인 노동력 착취와 인권침해, 탈법적인 취업으로부터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돕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첫째, 현대 사회에서 갖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며, 중퇴 청소년을 위한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은 어떤 이유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가?

둘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의 일반적 현황은 어떠하며, 중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욕구 및 이들을 위한 아르바이트 지원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

셋째, 중퇴 청소년들의 근로조건과 구직방법, 근로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 보장의 유무, 취업 및 고용의 문제점 등 업종별 아르바이트 실태는 어떠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넷째, 주요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파트타임 고용정책과 중퇴 청소년의 직업훈련강화 정책 사례는 무엇이며,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은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의 효과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룰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이론적 고찰

현재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는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 취업의 개념

적 정의를 비롯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유형, 시간제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현황과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살펴본다.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의 어원적 의미를 고찰하고 일상생활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에 관한 정확한 구분을 영구직에 대비되는 임시직과 전일제 근로에 대비되는 시간제 근로로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명확한 개념적 정의를 도출한다. 한편,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기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유형화함으로써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특징적 경향을 살펴본다. 또한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제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현황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노동관련 법에서 다루고 있는 청소년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노동권 보장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와 아르바이트의 효과에 관해 논의한다.

2) 중퇴청소년을 위한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의 필요성 고찰

본 장에서는 중퇴 청소년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이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와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중퇴청소년의 양적인 증가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중퇴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교육과 취업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한편, 정부 및 민간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아르바이트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중퇴청소년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한다.

3) 중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문제점 분석

중퇴 청소년들은 어떠한 이유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게 되며, 어떠한 근로조건과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의 경험은 없는지 등 이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현재 대안학교와 소년원, 청소년쉼터 및 직업훈련원에 있는 중퇴청소년들로 과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00명을 추출하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집단 설문조사 형태로 실시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하기 어려운 내용은 심화된 면접지를 활용하여 심층면접조사로 보충한다. 면접대상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퇴생 20명으로, 업종별로 4-5명 정도를 추출하여 아르바이트 환경,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 욕구 등에 관해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종합하여 중퇴 청소년을 위한 아르바이트 지원 방안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는지 시사점을 도출한다.

4) 외국의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사례조사

선진 외국의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특히, 비행청소년 및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파트타임 지원 정책과 중퇴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 및 취업지원 정책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중퇴 청소년을 위한 효율적인 아르바이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다. 외국의 경우,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취업 지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사회 협력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성인이 된 후 가질 직업과의 연계성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의 지원은 중퇴 청소년의 경우 건전한 노동시장 진입과 사회복귀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발굴하여 우리나라 정책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찾는다.

5) 중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지원 방향 모색

중퇴 청소년 현황과 정부 및 민간단체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현황, 과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퇴청소년과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와 외국의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과 취업 지원 정책 사례 조사 등을 종합하여 중퇴 청소년의 건전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의 불합리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지원체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중퇴 청소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취업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그리고 외국 사례연구로 이루어진다.

문헌연구를 통해서도 현재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는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의 개념적 정의를 정리하고 청소년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관련법과 문헌을 통해 고찰한다. 또한, 중퇴청소년과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선행연구를 개관하여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 한편, 최근 몇 년간의 중퇴청소년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국내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현황을 살펴본다.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는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추진한다. 설문조사 대상은 전국의 대안학교, 소년원, 직업훈련원, 선도보호시설, 쉼터 등 중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있는 학교나 시설의 청소년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참여의 이유 및 경로, 근로조건과 구직방법, 아르바이트의 문제점, 아르바이트 지원에 대한 욕구 등에 관하여 조사한다.

설문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면접조사를 병행한다. 면접조사는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음식점, 유흥업소 등에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최근까지 경험이 있었던 중퇴생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이 이루어진다. 조사내용은 구직경로나 근로환경이외에 임금착취 및 인권유린 등 부당대우 경험과 실태 분석에 초점을 두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청소년 자신들은 어떠한 요구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데 중점을 둔다.

사례연구에서는 주요 외국의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하는데, 청소년 고용창출을 위한 캐나다 미국 및 일본의 정책 사례와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 정책 사례 및 중퇴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교육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최근에 실시하여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캐나다의 정책사례를 국외출장을 통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견학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방법 및 절차를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및 절차
○ 중퇴 청소년과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이론적 고찰	○ 문헌연구 아르바이트의 사회적 의미 및 개념적 정의 청소년 근로자의 법적지위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선행연구 개관, 중퇴 청소년의 유형과 원인별 분석
○ 중퇴 청소년 현황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현황 분석	○ 자료분석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중퇴 청소년 현황제시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사업에 관한 각종 현황 제시
○ 중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위한 설문 및 면접조사	○ 현장조사연구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 - 대안학교, 소년원, 쉼터 및 직업훈련원에 있는 아르바이트 경 험 중퇴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와 문제점, 지원 욕구 등에 관한 설문조사 - 현재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퇴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과 부당대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해 심층면접 실시
○ 외국의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 및 보호를 위한 정 책사례 조사	○ 사례연구 국외출장을 통한 현장 견학, 전문가 인터뷰 및 최근 자료수집 - 주요 외국(캐나다, 미국, 호주, 일본 등)의 소외계층 청소년의 파트타임 고용 정책 사례 - 중퇴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과 취업지원 사례 조사
○ 중퇴 청소년을 위한 아르 바이트 지원 방향 모색	○ 전문가 자문회의 중퇴 청소년의 건전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Ⅱ.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의 개념적 정의
2.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특징과 유형
3.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 현황과 법적 지위
4. 선행연구 개관

공 백

II.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의 개념적 정의

1)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의 혼용

국제노동기구 ILO에 따르면 파트타임 근로자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근로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동일(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소정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이며, 현재 ILO 협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파트타임 근로(part time employment)”라는 개념은 전일제 근로(full time employment)와는 상반된 것을 의미하고, 또한 “비전형근로(non-standard employment)라고 분류되어 계절적·임시적 및 일시적인 고용형태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오문환, 1997:21).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의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파트타임을 생계를 위한 수단, 즉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돈벌이로 본다면, 아르바이트는 본업이 있는 사람이 부가적으로 일을 수행하며, 그 일을 통해 노동의 의미를 깨닫고 자아성취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개념이다. 이 경우,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 똑같은 근로 조건의 일시적인 일자리가 30대 실업자 혹은 주부에게 주어질 경우엔 파트타임 근로이고, 10대의 학생청소년에게 주어질 경우는 아르바이트가 되는 모호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퇴 청소년의 경우도 현재 특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 상태이므로 파트타임 근로자로 분류할 수도 있고, 10대학생의 신분을 잠시 유보한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근로에 임한다는 면에서 아르바이트로 구분할 수도 있다.

10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파트타임 고용으로 다루는다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도 있겠으나,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10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하나의 정상적 근로형태인 파트타임 고용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 고용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관한 개념 정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도출하고자 한다.

2)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 취업의 차이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는 일, 노동, 근로 등의 뜻을 가진 독일어의 Arbeit가 外來語化하여 우리말처럼 쓰이는 것으로서, “본래의 직업외에 임시로 하는 일”이라는 辭典的 의미를 가지고 있다. “파트타임”은 영어의 part-time job 혹은 part-timer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서 “시간제 근무 혹은 시간제 근무자”로 번역되며, 전일근무(full time job)와 대비되는 말이다.

일상생활에서 아르바이트라는 용어는 본업 이외에 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빈번하게 쓰인다. 예를 들어 본업이 공부라 할 수 있는 학생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할 경우 그 일을 아르바이트라고 부른다. 한편 아르바이트는 파트타임과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꽤 많다. 학생이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할 경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전업주부가 백화점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퇴생의 아르바이트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본업 이외에 하는 일로 정의를 한다면 중퇴생이 일을 하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학교를 중퇴했으므로 별

도의 본업이 없고 따라서 현재하고 있는 일이 본업 이외의 일이 아니라 본업 자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전적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임시로 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중퇴생이 하는 일을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는 데에 무리가 없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임시로 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즉,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더 나은 기회가 있으면 언제라도 그만 둘 수 있는 일을 아르바이트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는 영구적 직업(permanent job)과 대비되는 개념이 된다.

아르바이트는 파트타임일 수도 있고 전일근무일 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파트타임이 아르바이트인 경우도 있고 영구적 직업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편의점에서 일을 할 경우 파트타임이 되며, 같은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할 경우에는 전일 근무가 된다. 이 때에 본업이 있느냐 아니냐는 아르바이트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다. 임시로 하는 일이나 아니냐가 아르바이트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라고 부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편의점의 주인이나 향후 편의점을 운영할 사람이 일을 한다면 아르바이트생과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직업을 가지는 셈이다. 만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 추후 편의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경험을 쌓기 위해 졸업 후에도 계속 편의점에서 일을 한다면 비록 같은 일을 할지라도 이는 더 이상 아르바이트라 부를 수 없고 영구적 직업이라고 불러야 한다. 한편 대학교수가 되고자 하는 영문학 전공자가 생계를 위해 파트타임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고, 반면에 전문번역자가 파트타임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는 영구적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를 간단히 표로 그려 보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의 예시

임시직 여부 시간제 여부	아르바이트 . 임시직	영구직업
파트타임 : 시간제	중퇴생이나 학생의 시간제 편의점 근무	전문번역가의 시간제 번역
전일근무	중퇴생의 편의점 전일근무	연구직, 관리직, 전문 직 등 일반직업

2.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특징과 유형

1)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특징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해 성인의 경우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분석해 보는 것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성격을 규명하고 유형을 분석하며 나아가 관련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그 대상이 되는 직종이 성인의 경우 만큼 다양하지 않다. 선행 연구와 금번 설문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해 보면 주로 20개 내외의 직업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¹⁾. 이러한 비다양성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보다 다양화될 경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장래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할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1)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는 전단지 돌리기, 스티커 부착, 패스트푸드점 근무(서빙, 카운터), 24시간 편의점 근무, 상점에서의 판매 혹은 판매보조, 신문 혹은 우유 배달, 주유소 근무,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건설현장이나 이삿짐 센터 등에서의 막노동, 유흥업소 서빙이나 접대, 음식점(피자, 치킨, 분식집 등)에서의 서빙, 유흥업소 고객 담당, 음식점(피자, 치킨, 중국집 등)에서의 배달, 기타 등이 있다.

둘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전문성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간의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후,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일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직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직업의 발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속적으로 해당 직업을 가질 의사는 별로 보여지지 않는다.

셋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직종은 평균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을 보여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문성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므로 해당 직업의 임금은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다. 별도의 경력이 필요 없는 비교적 단순한 일일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실업률이 존재하는 한, 해당 직업의 평균임금수준은 그 사회의 평균임금수준을 하회한다.

넷째, 대부분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임금은 아예 생계 수준을 고려하지 않거나, 생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나, 일부 불법적인 업종은 상당한 고임금으로 청소년을 유혹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의 접대나 호객행위에는 높은 임금이 따른다.

다섯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 상 성인과는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휴일이나 밤 근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실제로 지켜지는지 여부는 且置하더라도 이론 상 성인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유형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에 따라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몇 가지 노동 형태로 유형화 될 수 있다(김정아, 2002:12-13).

첫째, 직업으로써의 노동활동이다. 이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생계와 관련된 삶의 지속적인 활동으로써의 노동을 의미한다. 중등교육을 마

치거나 중퇴를 하고 직업 선택을 통해 노동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고, 생계의 수단으로써 일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는 용돈벌이 수단으로의 노동형태이다. 이는 학교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용돈을 벌기 위한 노동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로 '평소 용돈이 부족해서'(51.3%)와 '중요한 무엇인가를 사거나 쓸 곳이 생겨서'(38.7%)를 들고 있어(이철위 외, 2000:52-53),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소비행위를 위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셋째로 가출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노동활동이 있다. 가출상태에서는 생계의 유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직업으로써의 노동활동 성격을 띠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 아닌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노동형태로 직업활동으로 보기도 어렵고, 가출상태에는 생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용돈벌이로 간주하기 어려운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넷째는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노동활동이다. 소년·소년 가장 등 저소득층 청소년처럼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하는 노동으로써, 이 경우는 직업으로의 노동활동 성격을 포함하고 있고, 학업을 유지하면서 용돈 벌이 수단으로써의 노동이라는 성격도 동시에 갖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유형은 대상과 참여 동기에 따라 몇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경우처럼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중퇴 청소년의 경우는 위에 제시한 네 가지의 아르바이트 유형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모호성이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유형화하기 위한 또 다른 기준으로는 아르바이트의 목적, 가출 여부, 합법성 여부, 지속성 여부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의 목적에 의한 분류는 가장 포괄적으로 아르바이트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목적은 1) 돈을 벌기 위하여, 2) 일을 하고 싶어서, 3)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하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첫 번째인 돈을 벌기 위하여는 가장 일반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돈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따라 다시 가족생계형, 가출생활형, 소비욕구충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족생계형은 저소득층 청소년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의 경우로써 아르바이트를 생계유지수단, 즉 생계유지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가출생활형은 글자 그대로 가출하여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돈을 조달할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이며, 소비욕구충족형은 핸드폰이나 패션용품, 컴퓨터 게임 등의 구입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은 일을 하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학교 생활에서는 찾을 수 없는 충족감이나 자아 만족감을 느끼고 책임감과 성인이 된 듯한 느낌을 갖는 것이다.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인 청소년들이 보통 이러한 유형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돈을 번다는 것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을 하고 싶거나 어른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 것에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 대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반인 경우나 실업계 고등학생인 경우가 많은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사회 생활의 일부를 미리 경험해 본다고 할 수 있다.

가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가정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와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가출 여부를 유형화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가출 청소년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숙식을 제공하거나 비합법적인 형태의 일인

경우가 다반사다. 숙식 제공은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비합법성은 업주의 요구와 가정으로부터의 통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나타난다. 숙식을 제공하는 공장이나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불법적인接客업소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또한 가출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파트타임이 아닌 전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거나 배달을 하는 경우, 막노동을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정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부모나 보호자의 감독을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받으므로 비합법적인 아르바이트를 할 확률이 줄어들며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동일한 아르바이트를 가출 청소년이 하는 경우와 비가출 청소년이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가출하지 않은 청소년이 유흥업소에서 부모 몰래 일을 할 수도 있고, 가출한 청소년이 편의점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합법적인 일이나 불법적인 일이나를 기준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분류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합법적인 성격을 지닌다²⁾. 불법적인 일 중에는 성인이 하여도 불법적인 경우와 성인에게는 허용되는 일이 있다. 일반유흥업소에의 근무는 성인에게는 허용되나 청소년에게는 불법이며, 성매매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의 경우, 불법이다.

아르바이트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유형화 할 때에는 지속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라는 문제가 남는다. 보통 3개월과 6개월을 기준으로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단기적,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중기적, 6개월 이상은 장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단지 돌리기는 수입이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는 일거리가 규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경우가 많다. 반면에 음식점에서의 배달이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근무 등은 중·장기적인 경우가 많다.

2) 초과근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일하는 과정에서 다쳤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해 주지 않거나 하는 불법적인 사례는 상당수 있으나, 일 자체의 성격에서 볼 때는 합법적인 경우가 많다.

3.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 현황과 법적 지위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현황을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 법률에 나타나 있는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 및 보호 지침을 고용, 임금, 부당 처우, 산업 재해, 부당 해고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민·형사상, 행정상의 구제수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현황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가능 연령은 15세 이상이다. 이에 따라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세를 기준으로 하며, 청소년 경제활동인구는 보통 15세~24세로 보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1년 청소년 취업자는 190만명으로 이는 전체 취업률의 8.9%에 해당한다. 이 중 15~19세 취업자는 36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2% 감소하였으나, 20~24세 취업자는 2.4% 증가하여 15~24세 청소년의 취업률은 전년대비 0.4%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는 1.4% 감소율을 보였고 여자는 1.6% 증가하였다.

한편, 2001년 산업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를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소년 취업자의 비율이 전체의 80.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광공업 18.5%, 농림어업 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만 1.5% 증가하였고, 광공업과 농림어업은 각각 3.3%와 4.5% 감소하였다. 최근 4년간의 변화추이에 있어서도 서비스직종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광공업과 농림어업은 감소 추세에 있다.

위에서 제시한 전체 청소년 취업률과 산업별 청소년 취업률이 청

소년 근로자의 노동현황에서 시사하는 바는 크다. 중·고등학교에 다녀야 할 학령기임에도 근로현장에 있는 15~19세 청소년이 36만명에 달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치이며, 이들은 학업중퇴자 혹은 저학력자들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이들 중 80% 이상이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음은 제조업 중심에서 단순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2> 연령별·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1998	구성비	1999	구성비	2000	구성비	2001	구성비	전년대비
전 체	1,809	100.0	1,819	100.0	1,895	100.0	1,903	100.0	0.4
남 자	664	36.7	680	37.4	711	37.5	701	36.8	-1.4
여 자	1,145	63.3	1,139	62.6	1,183	62.5	1,202	63.2	1.6
15~19세	325	18.0	346	19.0	388	20.5	360	18.9	-7.2
남 자	136	7.5	162	8.9	189	10.0	169	8.9	-10.6
여 자	189	10.4	184	10.1	199	10.5	191	10.0	-4.0
20~24세	1,484	82.0	1,473	81.0	1,507	79.5	1,543	81.1	2.4
남 자	528	29.2	518	28.5	522	27.5	532	28.0	1.9
여 자	956	52.8	955	52.5	984	52.0	1,011	53.1	2.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청소년백서, 2002.124)

<표 II-3> 산업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1998	구성비	1999	구성비	2000	구성비	2001	구성비	전년대비
■ 청소년 취업자	1,809 (9.0)	100.0	1,819 (9.0)	100.0	1,895 (9.0)	100.0	1,903 (8.9)	100.0	0.4
○ 농 림 어 업	37 (1.5)	2.0	35 (1.5)	1.9	22 (1.0)	1.2	21 (1.0)	1.1	-4.5
○ 광 공 업	369 (9.4)	20.3	358 (8.9)	19.7	364 (8.5)	19.2	352 (8.3)	18.5	-3.3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1,405 (10.3)	77.7	1,426 (10.3)	78.4	1,508 (10.4)	79.6	1,530 (10.2)	80.4	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청소년백서, 2002.125)

* ()는 각 산업별 취업자 중 청소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2) 청소년 근로자의 법적 지위

청소년 근로와 관련한 법률은 헌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청소년보호법 등 다양하다.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헌법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적정임금의 보장, 최저임금제의 실시, 여자와 연소자근로의 특별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은 아동 및 청소년도 포함되므로 이 규정은 “모든 아동·청소년은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헌법 제 32조 제5항에서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근로기준법

청소년 근로자의 법적 보호규정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법은 근로기준법이다. 이 법에서는 청소년 고용과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 연소자 근로자를 위한 특별 보호규정을 담고 있다.

①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 15세 미만 연소자는 근로할 수 없다. 단 13세 이상 15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하면 취업이 가능하다.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연소자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 : 취업이 허용되는 15세 이상의 근로자라 할지라도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③ 근로계약 : 연소근로자를 시간제로 채용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한다. 한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연소근로자를 불리한 업무에 취업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④ 사용금지 :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신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고용하지 못한다.

⑤ 임금청구 : 연소근로자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본인에게 직접 지불함이 원칙이며, 연소근로자에게 임금의 독자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취업시켜 놓고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⑥ 근로시간 :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주와의 합의에 의하여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⑦ 야업 및 휴일근로 금지 : 사업주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야간 또는 휴일에 일을 시킬 수 없다. 그러나 회사 사정상 필요해서 연소근로자 본인이 동의하고 노동부 장관이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점에서 다수 근로자가 각각 근무시간을 달리 하고 일부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불가피하게 야간에 겹치게 될 경우, 법정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며 업무 성격상 야간근로가 불가피하다면 야간근로를 인가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조항이 있어, 1일 근로시간

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1개월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 8장에서는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필요한 치료 및 요양을 해 주거나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00년 7월 1일부터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나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돼 청소년의 경우도 당연히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실수로 인한 부상이라 할지라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

(3)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제5조에 의하면 취업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은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성인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이다.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2,275원이므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48원이 되는 셈이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사업주가 근로계약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임금을 못 받는 가장 큰 중간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인데, 근로계약 내용 중 “중간에 일을 갑자기 그만 두면 한 푼의 임금도 지불하지 않는다” 등의 불법적인 조건은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는 근로기준법 제 22조에 따라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4)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자의 고용을 금지하는 유해업소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는 업소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담배소매업,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등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의 청소년 근로와 관련된 법규들은 청소년 노동의 문제를 근로기준의 준수와 특별보호(근로기준법의 경우) 또는 규제(청소년보호법의 경우)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으며, 근로의 권리보장 및 근로기회의 확대라는 적극적 측면과 근로와 교육의 조화라는 긍정적 측면은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이며, 청소년에게 있어 근로 혹은 아르바이트란 가급적 장려하지 말아야 할 것, 나아가 막아야 할 것이거나 또는 불우한 청소년들이나 하는 부득이한 것으로 인식되어온 현재와 과거의 사회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4. 선행연구 개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정도와 구직경로, 근로조건과 부당대우 경험 등 실태조사 위주로 진행되어왔다. 각종 시민단체를 위주로 하여 연구기관에서 실시된 최근 3년간의 조사결과를 개괄해 보기로 한다.

1)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국내 실태조사 연구

서울 YMCA 청소년진학 상담실(2000)에서 실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는 서울을 비롯한 중소도시 10개 지역의 14-21세 청소년 3,8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논의점을 찾아내고자 하였으며,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보다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안전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왜 아르바이트를 하는가”보다는 “어떻게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조사가 설계되고 진행되었다.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중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20%정도가,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50%정도가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가출경험이 있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높았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아르바이트를 긍정적(80%정도)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직종으로는 서빙이나 주방보조(28.6%), 전단지 배포(21.8%), 상점 근무(15.8%) 등이며 시간당 2,000원 이하의 임금(60.8%)을 받으며 15일 정도 일하는 청소년들(55.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다수의 청소년들(87.1%)은 근로계약서 체결 없이 일하고 있었으며, 부모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도 20% 정도에 불과했다. 노동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부당대우는 임금을 다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22.6%)와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고도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20.5%)였다.

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2000)에서 주관한 십대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연구는 82명의 학생과 비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10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현황과 실태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10대가 이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개념을 직업과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10대 아르바이트 특성과 연관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포함하여

“사회적 관습에 의해 돈을 벌어야 하는 나이 이전에 경제적 소득을 위해 단시간 또는 단기간 동안 비정규직이나 자영업 형태의 노동행위를 하는 활동”(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 2000:28)이라고 10대 아르바이트를 정의하였다. 한편, 10대들의 아르바이트 현황을 그들의 욕구와 경험을, 구직 방법 및 근로계약 체결방식, 경험한 아르바이트 직종 등을 중심으로 심층 면접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10대들이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이유로는 학급붕괴로 표현되는 “학교실패”현상과 학교 밖 생활의 중요성 및 소비문화를 들고 있으며, 10대 아르바이트를 둘러싼 문제점으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이 미흡하고 법적·제도적·정책적 한계가 많으며, 부당한 대우와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과 성산업 유입의 가능성을 들며 10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양성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인권운동사랑방(2002)에서 실시한 청소년 노동실태조사도 청소년 3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한 질적 조사방법을 선택하여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보고하였다. 특히, 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현황과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근로계약, 노동시간, 임금, 산업재해, 성추행 및 성차별, 인격모독, 해고 부분으로 영역화하여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하였다.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권리보장을 위한 제언으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노동관련법 개정과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참여연대 사회인권팀(2002)에서 실시한 청소년 노동실태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결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며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대안을 제시하였다.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업허가증이 있어야 취업이 가능한 13-15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율은 29.2%, 13세 미만 청소년의 경험율도 13.5%에 달하였지만, 노동부가 2000년~2002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발급한 취업허가증은 총 11건(참여연대, 2002:69) 정도에 지나지

않아 연소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야업(밤 10시~오전 6시)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시 이후까지 일한 경우가 28%,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86.7%, 연소근로자의 필수요건인 부모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도 78.3%, 1일 노동시간이 7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8시간 이상 일한 경우도 15.9%에 달했다. 한편, 임금수준에 있어서도 최저 임금인 시급 2,100원 미만이 32.4%, 급여 미지급 경험 25.4%, 다친 경험이 있는 경우도 20%에 달하고 있어 현재 연소근로자에 대한 규제장치로서의 근로기준법의 규정력 문제 및 연소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의 보호의지 문제가 제기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 외에 이철위 외(2000)는 전국의 45개 중·고등학교 학생 3,67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파트타임 고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근로조건과 구직경로, 아르바이트의 영향, 발생하는 문제점, 지원방향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419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교사와 학생간의 인식차를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결과와 외국의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사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파트타임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2) 아르바이트의 효과와 영향에 관한 국내외 연구 동향

이상의 청소년 관련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에서 실시했던 실태조사를 병행한 연구이외에 청소년 시간제 취업의 사회·교육적 의미를 직업체험과 청소년 생활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장원섭, 2001; 이광호, 2001)가 있다. 장원섭(2001)은 청소년의 시간제 취업은 진로교육 이론에 근거하여 경험적·체험적 학습효과를 지닐 수 있음

을 제시하고, 여기에 시간제 취업의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여 일과 교육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주장하였다. 한편, 이광호(2001)는 현대 청소년 생활양식의 변화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갖는 의미와 성격을 고찰하였으며, 자기개발 생활양식으로써 일을 통해 청소년 자신에 대한 사회적 처우와 역할 부여를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로부터 분리되어 공부만을 강조하는 청소년기에서 탈출을 시도하며, 공부와 일과 여가가 세대별로 과잉 배분되어 있는 경제 효율적 생활양식에서 벗어나 10대에도 공부하고 일하고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적극적 선택을 통해 그들의 원초적인 존재이유를 부수려는 틀 깨기를 시도한다(이광호 2001:35).

한편, 서구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가 청소년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한 Greenberger & Steinberg(1986)는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성인들을 모방하는 계기를 갖게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술·담배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서구 사회에서는 마약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일을 함으로써 비행의 강도가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이와는 반대로 Mortimer 외(1986)는 횡단적 자료에 근거한 단기적 영향에 대한 비판으로 생애과정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에 의한 장기적 영향을 주장하며, 청소년기의 일의 경험은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다중 역할 수행의 경험으로 장기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회적 관계망의 확대나 미래 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등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관점으로 Markus et al(1990)은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기 효능감 내지 미래의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일에 만족할 경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에도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아

르바이트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이 공존하는 연구결과에 대한 비판으로 Hansen & Jarvis(2000)은 청소년의 생태학적 관점에 착안하여 상대적 영향에 대해 주장한다. 아르바이트 자체가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갖기보다는 아르바이트의 동기와 참여직종, 지속기간, 구직경로, 작업환경과 가족 지지도 등 아르바이트가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그 영향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한경혜, 2000:155-156에서 재인용).

3)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지금까지 중퇴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 중퇴청소년의 개념을 규정하고, 중퇴를 하는 청소년의 유형을 다양하게 구분하였으며, 중퇴의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조망하고 있다.

중퇴청소년의 유형은 중퇴를 결심하는 동기에 따라 능동형, 도피형, 불가피형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송광성, 1992:14), 학교를 거부하는 정도에 따라 자발적 거부형과 부등교형(조한혜정, 1996)으로 나누기도 한다. 또한, 중퇴자의 자유의지 반영도에 따라 사고형 중퇴자와 자발적 중퇴자로 구분되기도 하며(김경식, 1997), 크게 적응형과 부적응형(이숙영, 1997:76)으로 유형화되기도 한다.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학생 개인적 측면과 사회체계 측면(유성경·이소래, 1998)으로 구분하여 제시되기도 하며,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퇴의 원인이 제시되기도 한다. 박창남 외(2001)의 연구에서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시험에 대한 압력과 스트레스,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없는 학교환경, 엄격한 학교교칙 등 주로 학교와 관련된 사항을 중퇴 원인으로 들고 있음을 밝혔다. 비슷한 결과는 구자경(2001)의 연구조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자퇴하고 싶은 가장 큰 이

유로 ‘학교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를 들었고, ‘학교교칙’과 ‘학습부진’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 학업중단의 원인이 가정형편이나 결손가정, 학교부적응과 같은 전통적인 요인보다는 현재의 학교교육이 자신의 진로, 적성, 인생목표와 가치 등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중퇴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몇 년간 시행된 중퇴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이숙영·남상인, 1997; 유성경·이소래, 1998; 조영승 외, 2001; 윤여각, 2002)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써 직업훈련교육 및 취업알선과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욕구와 그를 위한 아르바이트 지원정책의 필요성 및 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그간 실시되었던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와 중퇴청소년 관련 국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Ⅲ. 중퇴청소년을 위한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 현황

1. 중퇴청소년 현황
2. 중퇴청소년의 유형과 원인별 분석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현황

공 백

III. 중퇴청소년을 위한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 현황

1. 중퇴청소년 현황

우리나라에서 중퇴청소년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중퇴청소년에 대한 통계수치가 학년시작과 비교하여 학년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조사되고 있을 뿐,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학생은 통계수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퇴청소년의 숫자가 다소 낮게 집계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결원자를 중심으로 산출하므로 사망이나 질병, 유학, 이민까지도 중퇴청소년에 포함시키고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에는 다소 물의가 따를 수 있다.

최근 3년간 중퇴원인별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면, 실업계 고등학생의 중퇴생 비율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재학생 대 중퇴생 비율이 1%내외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3년 동안의 가감율도 작은 폭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업고생의 경우는 1999년에 3.8%에서 2000년도에는 4.2%로 증가하다가 2001년도에는 5.0%를 기록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퇴 원인별 분석에서도 실업고생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사정이나 품행, 학교생활 부적응 등 도피형 혹은 불가피형 중퇴로 유형화되어 주요 정책대상이 되는 집단의 비율이 실업고생에게 있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도피형 혹은 불가피형 중퇴가 중학생(76.2%→69.0%→62.7%)과 일반고생(79.8%→75.6%→71.8%)의 경우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실업고생

(96.9%→96.3%→96.8%)은 계속 96%이상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청소년 학업중단 문제의 주요 정책대상은 실업고생임을 알 수 있다.

<표 III-1> 중퇴원인별 현황과 추이

(단위:%)

구분 \ 년도	중학생			일반고			실업고			
	1999	2000	2001	1999	2000	2001	1999	2000	2001	
중퇴생 비율	09	08	09	10	11	14	38	42	50	
정책 대상 집단	소계	762	690	627	798	756	718	969	963	968
	가정사정	250	228	223	402	381	348	346	336	347
	폭행	52	36	25	32	26	19	90	79	62
	학교생활 부적응	370	346	317	300	290	297	454	480	481
	기타	90	81	62	63	59	54	80	68	78
사망	29	22	17	30	21	16	12	14	10	
질병	22	19	20	40	36	28	12	14	10	
검정고시	03	03	03	10	29	21	01	02	03	
유학/이민	184	265	334	123	158	217	06	07	09	

자료 : 박창남 외, 2001 7-12에서 재구성

2. 중퇴청소년의 유형과 원인별 분석

1) 중퇴청소년의 유형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중퇴를 결심하는 동기에 따라 유형화되기도 하고, 학교를 거부하는 정도 혹은 청소년 자신의 자유의지 반영정도에 의해 유형화되기도 한다.

먼저, 송광성 외(1992:14)는 중퇴를 결심하는 동기에 따라 능동형, 도피형, 불가피형으로 유형화하였다. 능동형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중퇴를 하는 경우이고, 도피형은 자신의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불가피형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중퇴하는 경우이다.

능동형의 예로는 취업이나 취업 준비로 인한 중퇴, 검정고시를 보기 위한 중퇴,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중퇴 등이 있다. 능동형 중퇴는 비행이나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중퇴 이후의 진로 개척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피형은 학교를 다니는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뚜렷한 대안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인데 전체 중퇴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자세가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것이 싫어서, 혹은 학교 밖 생활을 동경하여 중퇴하는 경우이다. 학교나 교사를 기피하거나, 학업을 태만히 하고 그 결과 학업에서 낮은 성취도를 보이고, 친구들과로부터 소외되거나 교칙을 위반하는 경우, 도피형 중퇴를 결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 형태의 중퇴생은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출, 비행, 범죄 등을 저지르기 쉽다. 불가피형이란 학교를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퇴한 것으로서, 집안 형편 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비행이나 범죄로 인해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는 경우이다.

조한혜정(1996)은 학교를 거부하는 정도에 따라 자발적 거부형과 부등교형으로 구분하였다. 자발적 거부형은 학교의 교육전체를 부질없다고 판단하여 학생 자신이 학교가기를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이고, 부등교형은 사고와 판단의 과정없이 단순히 아침에 학교에 가기 싫어 집에 있는 경우이다.

김경식(1997)은 중퇴자의 자유의지 반영도에 따라 사고형 중퇴자와 자발적 중퇴자로 구분하고, 청소년비행 및 범죄에 연루되어 학교로부터 제적당하거나 자퇴하는 경우를 사고형 중퇴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 학교를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를 자발적 중퇴로 유형화하였다.

한편, 이숙영·남상인(1997:76)은 중퇴청소년의 유형을 크게 적응형과 부적응형으로 구분한 후 각각을 보다 상세히 분류하였는데, 적응형은 송광성의 능동형, 조한혜정의 자발적 거부형, 김경식의 자발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적응형은 보호관리체제 하에 있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에는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거나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과 정신질환 등으로 요양중인 청소년, 후자에는 방치된 비행청소년, 유흥업소 취업청소년, 가출청소년, 방치된 정신질환 청소년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이처럼 접근하는 방식이나 보는 관점에 따라 학자마다 중퇴청소년의 유형이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중퇴청소년의 유형을 구분하는 주요한 핵심은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이며 이는 중퇴청소년의 유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모든 학자들의 유형화 작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2> 중퇴청소년의 유형과 특징

유 형			특 징
송광성 (1992)	능동형	취업준비형	·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진학형	
	도피형	부등교형	· 학업에 대한 흥미상실
		탈출형	· 학교를 빠져나가 흥미로운 생활 추구
	불가피형	가사형	· 집안형편상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경우
		제적형	· 심각한 비행으로 학교에서 제적
조한 혜정 (1996)	자발적 거부형		· 학교교육을 부질없다고 판단 · 학교가기를 적극적으로 중단
	부등교형		· 단순히 학교가기가 싫어 집에 있는 경우
김경식 (1997)	자발형		· 일찍 자신의 진로를 찾아 스스로 그만둠
	사고형		· 청소년비행과 관련 학교로부터 제적
이숙영 (1997)	적응형		· 복교, 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에서 수학
			· 학습의욕 상실 및 기술의 부족으로 부적응 하기도 함
			· 대인관계 문제, 생활적응상의 문제를 가짐
			· 일정한 교육훈련 후 취업하여 생활정착
			· 진학준비를 병행하기도 함
			· 사설기술학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취업준비를 위한 기술습득을 하고 있음
			· 일부는 적응상에 문제를 겪고 있음
	부적응형	보호 및 관리체제에 소속된 청소년	소년원 수용
			· 범죄 연루 소년원 수용
			보호관찰 중
			· 범죄연루 후 보호관찰 중
			· 검정고시 등을 통한 진학준비 병행
			· 유흥업소 등에서 아르바이트 병행
			요양중
			· 정신질환, 신체질환으로 병원, 요양기관에 수용됨
			· 진학, 진로지도가 부재함
		보호 및 관리체제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	방치된 비행 청소년
			· 중퇴 후에 진학, 취업준비에 참여하지 않음
			· 다양한 비행-폭력, 약물오남용 등에 참여함
			유용업소 취업
			· 단란주점, 술집 등에 취업 중
			· 일부는 검정고시 학원, 기술학원에서 진학, 및 취업준비 중
			가출 청소년
			· 가출하여 소재가 불분명함
			· 중국집, 카페 등에 취업하거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취업 중
			· 비행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음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준비가 미흡함
			방치된 정신질환 청소년
			· 가정의 경제적 여건으로 집안에 방치됨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준비가 미흡함
			· 가족들의 스트레스가 증가됨

자료 : 이숙영, 1997 76에서 재구성

2) 청소년 학업중단의 원인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성친구, 또래집단, 취업, 가사 등과 관련된 개인문제로 중퇴하는 경우와 교칙위반, 성적불량, 검정고시준비, 교사에 대한 적대감, 학교부적응 등 학교문제로 중퇴하는 경우, 또한 개인문제로 학교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퇴하는 경우 등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는 원인은 실로 다양하다. 교육통계연보는 청소년 학업중단의 원인을 질병, 가사, 품행, 기타로 분류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분류가 필요하다. 장석민 외(1988:46)는 가정문제, 학교문제, 친구의 유혹, 건강, 검정고시, 기타 등으로 중퇴의 원인을 구분하였으며, 표갑수(1995:131-132)는 중퇴의 원인을 가정적 원인, 개인적 원인, 사회적 원인,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 두 연구는 공통적으로 중퇴의 원인이 개인보다는 학교나 가정에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가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학교의 생활지도, 진로지도, 상담지도 등을 활성화한다면 학업중단라는 사회적 문제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송광성 외(1992:18-19)는 중퇴의 요인을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서 찾고 있는데, 가정, 학교, 사회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가정불화, 결손, 빈곤 등을 학업중단의 가정적 요인으로 보았고, 학업기피, 성적불량, 유급, 교칙위반, 무단결석 및 가출, 수업일수 부족, 불량집단의 구타, 선생의 구타,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만 등을 학교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한편, 사회적 원인으로는 취직 및 기술습득, 검정고시, 이민, 유학 등을 들고 있다

이처럼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 학업중단의 원인은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학교환경 및 지역사회 환경 등으로 크게 범주화할 수 있다. 본 절에서도 유사하게 학업중단의 원인을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 학력위주의 학교교육환경, 학벌주의 사회구조, 유해한 지역사회 환경 등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

1970년대 이후 한국의 가족구조는 핵가족화와 평등화의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며, 평균 가족수 4명 정도의 핵가족 비율은 전체 인구의 70%를 넘게되어 전통적인 부자중심의 가족구조를 부부중심의 가족구조로 전환시켰으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주의는 아직 유지되고 있으나 가족내의 권력구조는 상당정도 평등화 되어있다(임희섭, 1994:241). 이러한 새로운 가족형태로의 변화 속에서 가족내의 여성의 위치가 변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 참여증가와 권리의 신장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이혼율의 급증이라는 사회변화를 수반하게 되었다. 한편, 최근의 경제적 위기상황은 부의 실직과 알코올 중독, 모의 취업 및 가출 혹은 부모의 이혼 등 기능적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가정을 양산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의 경우, 이혼은 그 자녀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혼하지 않더라도 실직, 빈곤 등으로 인한 여성의 취업은 자녀들에게 기능적 결손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가족형태의 변화와 가족기능의 상실은 청소년들의 생활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기대 혹은 무관심이 자녀와의 갈등과 마찰을 유발시키게 되는 것도 청소년 학업중단의 배경이 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학력위주의 학교교육환경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입시와 학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한번 획득한 학벌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개인의 진로를 결정짓게 되며, 그에 따라 학교는 단지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얻는 것에 가장 큰 교육적 의미를 두고 학생 개개인에게 심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나 열등한 학생 모두에게 학교가 외면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상당수는 학교보다 학원수강이나 개인교습이 높은 성적을 내는데 효과적이며, 학교가 자신의 진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평가하여 학교교육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못한다는 낙인과 차별 속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좌절과 무력감을 경험하여 학교를 등지게 된다.

학력을 중시하는 교육환경의 부작용은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는 붕괴 직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문고 대비 실업고 입학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5년의 0.77%에서 2000년에는 0.52%로 하락했다. 중도탈락률도 인문고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2001년의 중도탈락률은 인문고가 1.5%임에 비해 실업고는 무려 5.1%에 달한다(교육통계연보, 2000).

문제는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자가 직업교육에 뜻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대부분 인문고에 진학할 성적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학한 측면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습능력이 부진한 학생의 집합소가 되어 버렸고, 정상적인 학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실붕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실제로 실업고생의 대다수가 졸업 후 취업보다는 전문대학을 비롯하여 대학진학을 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학 진학률이 취업률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고학력화 현상과 직업교육의 붕괴조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고학력화현상은 '진학'에서 밀려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낙인을 낳았으며,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현재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양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업계 고

등학교는 본래의 교육목표를 상실한 채, 명실상부한 중등 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전문대학'으로 그 역할을 넘겨주도록 강요받는 현실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3) 학벌주의 사회구조

고학력화 현상과 맞물려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벌주의도 청소년 학업중단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학벌주의는 특정한 학교의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집단을 형성하고, 기득권을 획득하거나 지속시키는데 서로간에 협력체제를 구축하며, 또 그러한 학벌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그러한 관행을 비판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이를 받아들이고,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도 가능하다면 그러한 폐쇄적인 집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부태; 1997, 김동춘; 2001, 박창남 외 2001:51에서 재인용).

학벌주의는 아직까지도 한국사회 전반을 움직이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기성세대들은 학벌주의가 갖는 병폐적인 영향과 현상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취득되면 평생토록 지속되며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쉽게 바뀌지 않는 학벌중심의 사회체제를 인정하고, "교육열"이라는 허상으로 포장하여 학벌주의를 수용하고 있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학벌주의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정착시키고, 고학력화 현상을 초래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기성세대들의 인식과 사회현상은 학력이 부진한 청소년들에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좌절을 안겨주어 학교를 등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더욱이 높은 학력이 고액 학원수강이나 개인교습을 받을 수 있는 경제력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최근의 한국적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만 하면 좋은 학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과거의 능력주의는 점차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과거의 청소년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참아내며 묵묵히 노력하게 했던 능력주의는 이제 과거지사가 되었으며,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저버린 채,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는 무기력한 청소년들로 전락하게 한다.

(4) 유해한 지역사회환경의 범람

청소년에게 유해한 각종 업소, 유해 매체물, 유해 약물 등 청소년 유해환경의 범람과 접근의 용이성도 학업중단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무계획적인 도시계획과 비체계적인 허가행위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업소가 특정한 지역단위로 밀집하여 있지 않고, 상가와 주택가, 학교부근에 광범위하게 산재하여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대상의 입시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은 건물 혹은 바로 옆 건물에서 영업중인 곳도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환경은 학교교육이 주는 중압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청소년들의 소비욕구와 놀이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있으며, 부모의 간섭 없이 또래문화를 형성하고 자신들만의 세계를 추구하고 싶은 욕구의 실현으로 가출을 시도하여 불법 유흥산업에 흡수되기도 한다. 가출과 가출 후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불법 유흥산업으로의 유입은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개인적·사회적 손실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청소년 학업중단의 원인은 최근 실시된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실증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학교공부의 중압감 및 학력 위주의 교육제도 등 학교교육환경이 학업중단의 가장 큰 원인이며, 그 외 가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 및 유해한 지역사회 환경 등이 중도탈락으로 유인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을 조사결과는 입증하고 있다.

<표 III-3> 선행 연구결과로 본 학업중퇴의 원인

구자경(2001) 연구결과 -조사대상 서울시 소재 중·고 재학생 1,198명					이경림(1999) 연구결과 -조사대상 실업고 중퇴생 86명
순위	자퇴를 하고 싶은 이유	중학교 순위	일반고 순위	실업고 순위	중도탈락의 원인(백분율)
1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학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1	1	학교 공부가 싫어서(44.2%)
2	학교교칙을 지키기 싫었다	2	4	2	집을 떠나고 싶어서(부모와의 갈등이 있었다)(18.6%)
3	학교공부를 따라갈 수 없었다	3	3	4	기타(16.3%)
4	내성성격이 나빠서 검정고시로 더 좋은 학교에 가려고 했다	7	2	8	사회진출(취업)을 위해서(7.0%)
5	부모님과과의 갈등이 있었다	4	5	5	가정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5.8%)
6	일(아르바이트)을 하는 것이 학교 다니는 것보다 재미있다	5	7	3	검정고시를 쳐서 더 좋은 학교(대학)에 가려고(4.7%)
7	선생님과의 관계가 나빴다	6	8	6	비행이나 사고로 인한 학교로부터의 권고가 있어서(3.5%)

자료 : 구자경(1990)과 이경림(1999)에서 재구성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현황

1) 국내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현황

현재 청소년의 취업 및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절에서는 노동부가 직접 관할하고 있는 직업전문학교, 보건복지부가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자활지원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비즈쿨, YMCA가 운영하는 일하는청소년지원센터, 서울시가 재정 지원하는 청소년직업체험센터(일명 하자센터) 등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각종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직업훈련원

직업훈련원은 현재 노동부가 관할하고 있는 직업전문학교로 기능대학을 제외하고 전국에 27개가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훈련기관은 누가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공공훈련으로서 여기에는 공공 단체(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들이 속하고 둘째, 사업내 훈련으로서 이는 각 기업체에서 자기회사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교육훈련기관들이 포함되며(예: 대우종합직업훈련원, 삼성전자직업훈련원 등) 셋째, 인정훈련으로서 "미용인정직업훈련원", "자동차직업전문학교", "요리직업전문학교" 등 주로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기관들이다(<http://uniweb.unitel.co.kr:8083/class/counsel/career/acad/acadhelp/bong03.htm>).

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첫째,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다. 누구나 적성과 능력에 알맞게 입학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훈련 과정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실기중심의 교육으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으며, 이론 대 실기의 교과편성 비율이 30:70으로 실기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실기의 비중이 높기는 하나 학력이 낮은 중퇴생들이 이론을 따라가기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셋째, 교수나 교사들의 실험·실습 지도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넷째 10-15명 기준으로 실습반을 편성하여 개별적인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다섯째는 교육훈련비용이 국비로 지원된다. 수업료 면제는 물론 교재가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표 III-4>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직업훈련기관 현황

기관	위치	기관	위치
경 기	경기도 화성군	목 포	전남 목포시
인 천	인천시 남구	순 천	전남 순천시
강 원	강원도 춘천시	한독부산	부산시 동래구
춘 천	강원도 춘천시	대 구	대구시 달서구
원 주	강원도 원주시	경 북	대구시 북구
강 룡	강원도 강릉시	김 천	경북 김천시
충 주	충북 충주시	영 주	경북 영주시
충 북	충북 충주시	포 향	경북 포항시
충 남	충남 논산군	진 주	경남 진주시
홍 성	충남 홍성군	한백창원	경남 창원시
이 리	전북 익산시	울 산	경남 울산시
고 창	전북 고창군	거 창	경남 거창군
전 북	전북 익산시	제 주	제주시 아라1동
전 남	광주시 북구		

자료 : <http://unweb.unitel.co.kr> 8083에서 재구성

노동부에서 관할하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인 기능사 양성훈련은 중퇴생이 받을 수 있는 직업교육으로써, 가공생산 및 기계설비 등의 설치, 보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식·기능과 적응력을 갖추기 위한 훈련이 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소속의 전국 21개 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되며, 훈련기간은 일반과정(주간)은 1년, 특별과정(야간)은 3개월 혹은 6개월 과정으로 개설되며 훈련수준은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수준이다(박창남 외, 2001:64). 기능사 양성훈련 참여자에게는 각종 특전이 주어지는데, 교육훈련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며 성적우수자 및 모범생에게 각종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한 훈련 수료시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수료 후에 취업을 알선하고 사후지도를 하며, 직업전문학교 1년 이상의 교육훈련과정 수

료(예정)자로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일 경우 기능대학이 정하는 동일계열학과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 청소년자활지원관 설치 운영

보건복지부가 지정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자활후견기관의 부설조직으로 설치하되, 청소년자활지원관의 독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운영의 목적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보호하고 지도함으로써 자활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자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학 및 취업상담을 지원함과 동시에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빈곤문화의 세습화를 방지함에 있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저소득 청소년의 올바른 진로 의식 및 직업관 확립을 위한 사업과 청소년의 창의적인 직업개발 및 창업을 위한 동아리 활동지원 및 취업전 단계에서의 직업능력 향상 지원,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하다. 주로 저소득층 청소년의 방과후 학습지도 중심에서 실업계 학생 및 학교를 중도 포기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학상담과 취업을 통한 자활, 자립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대상도 아동에서부터 취업전의 청소년까지 확대하며 건전한 문화공간 제공을 병행함으로써 빈곤문화 탈피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20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1997년에 10개소와 2001년에 10개소가 지정되었다. 현재, 서울이 5개소로 가장 많고, 부산과 광주 3개소, 대구 2개소 및 대전, 울산, 인천, 경기, 강원, 전북, 경남 등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표 III-5> 전국청소년자활지원관 설치 현황

설치년도	시도	기관	시도	기관
1997	서울	서울관악	경기	경기광명
	서울	서울마포	대구	대구북구
	서울	서울노원	인천	인천동구
	서울	서울성북	부산	부산사상
	대전	대전동구	광주	광주남구
2001	서울	서울강서	강원	강원태백
	광주	광주북구일터	울산	울산북구
		광주북구동신	전북	전북전주
	부산	부산해운대	경남	경남김해
		부산금정	대구	대구남구

자료 : <http://jahwal.or.kr/young/young.htm>

모든 자활지원관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진로지도 상담 및 교육을 기본으로 하여 현장활동을 통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직업준비 심화교육, 진로맞춤교육 및 실업관련 활동 등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마포청소년자활관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교육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직업체험과 취업에 필요한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동아리를 결성하여 구체적인 취업준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직업동아리활동을 전개하는 등 청소년 취업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취업에 필요한 교육부터 각종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에 이르기까지 취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도 경기광명 청소년자활지원관을 비롯하여 경남김해 청소년자활지원관 등 몇 개소가 있으며 청소년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건전 일자리 캠페인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비즈쿨(biz-school) 시범 운영

비즈쿨이란 비즈니스(Business)와 스쿨(School)의 합성어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비즈니스를 가르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즈쿨은 미국 등 선진국에선 이미 실시 중인 프로그램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선 현재 시범운영 단계에 있는 이 프로그램은 창업을 희망하는 실업고교 1~3년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창업 마인드 요령, 손익분기점, 자금 조달과 운영 등 실무지식을 가르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실업고에선 대학 진학이나 은행, 전자, 자동차업체 등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한 교육을 실시해왔다. 때문에 학생들은 자영업을 하고 싶어도 직장에서 일정기간 훈련을 거친 뒤 창업하는 것이 바른 코스인 것처럼 여겨왔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과정은 외환위기 이후 실업고 출신들의 취업률이 낮아지면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 결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주도하에 2002학년도부터 5개 시범 학교를 선정해 이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재량학습 시간을 이용, 일주일에 2시간씩 경제와 경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르치고, 또 마케팅과 광고, 회계 등 소자본 창업에 필요한 실무적인 교육도 병행한다. 청소년 창업프로그램 "비즈쿨"은 실업계 고교생이나 인문계 비진학 취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청년실업 대책으로 볼 수 있다. 1987년에 창립한 미국의 NFTE(the National Foundation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재단은 학교 중도 탈락자들을 방지하고, 학습의욕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청소년 창업교육(Entrepreneurship)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창립자인 스티브는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가르칠 때 그들의 타고난 '노는 끼'가 '학습감각'으로 발전하고 결국은 '사업가적 소양'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퇴자가 외국의 경우보다는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중퇴자 못지 않게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잠재적 중퇴자가 많은 한국적 환경에 적합한 청소년 창업교육(Entrepreneurship) 프로그램은 학교내 교과활동 이외의 게임활동 중심학습으로 고교 중도탈락자를 예방하고 취업과 창업 성공의 설계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 준비 과정으로 활용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이상과 같이 비즈쿨 프로그램 개발의 배경은 청년실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에서 이루어졌으며, 교과학습이 학교교육의 주를 이루는 분위기에서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잠재적 중퇴자들의 중퇴를 막고, 실업계 등 진로가 불투명한 침체되고 위축된 학생들에게 동기화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등장하게 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실업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실업계 학생들에게 진로개척에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비즈쿨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4) 일하는 청소년 지원센터

일하는 청소년 지원센터는 2000년 7월 서울YMCA가 영등포지회에 일하는 청소년지원센터를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해 8월 전국 10개 지역(서울, 대구, 마산, 춘천, 속초, 아산, 구리, 천안, 포항, 여수)에서 일하는 청소년지원센터가 개설되었으며, 현재는 17개 지역(서울, 대구, 마산, 춘천, 속초, 아산, 구리, 천안, 포항, 여수, 군산, 시흥, 안산, 의정부, 이천, 홍성)으로 확대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일하는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스스로 돈을 벌어 경제생활을 영위해 보고자 하는 욕구를 건강하게 발전시켜서 훌륭한 시민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현재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일터에서 당할 수 있는 갖가

지 고충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법률적 조언과 도움활동도 겸하고 있다. 이 밖에 일하는 청소년들을 돕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청소년,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일하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상담활동, 교육활동, 각종 토론회 및 캠페인 활동, 청소년을 위한 일거리 창출활동 등 다양하다. 상담활동에서는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고발 접수와 처리,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취업과 관련된 고충을 상담하며, 진로탐색을 위한 적성, 성격, 흥미, 지능검사를 실시한다. 교육활동에서는 아르바이트 원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직업체험활동을 운영하며, 청소년 아르바이트 매뉴얼 발간 및 배포,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한 각종 집단상담, 청소년 진로결정을 위한 또래 지도자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일하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토론회 및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청소년의 건강한 아르바이트 문화 및 일할 권리의 보호를 위한 각종 캠페인과 세미나, 심포지엄, 토론회를 개최하며 일하는 청소년 지원센터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고 배포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업, 민간단체와 연계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인턴과정 개설, 직업교육 실시 및 수요자와 연계, 청소년 창업교육 등 청소년을 위한 일거리 창출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일하는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건전한 노동활동과 직업체험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17개 지역에서 일하는 청소년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 모습도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각 지역별 특수상황이 고려되어 지역별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

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고 있는 문제점을 청소년들이 쉽게 표출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원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상담원 교육을 위한 다양한 자료와 인적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고충과 상담처리를 위한 사회적 지원 체제 확립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권역별로 토론회나 세미나 정책협의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여론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상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다양한 사례 접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하는 청소년 지원센터의 근간을 이루는 사업은 상담 및 고발 접수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유용하고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 활동방향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창구역할을 한다. 상담 및 고발 접수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상담원의 양성이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창업이나 취업에 관한 지식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는 상담원 양성과 자원상담원의 확충이 요구된다.

(5) 서울시립 청소년 직업체험 센터(하자센터)

일, 놀이, 자유의 문화작업장으로 1999년 개관한 서울시립청소년직업센터에서는 10대를 위한 아르바이트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놀이와 일, 그리고 학습을 10대들 스스로가 기획할 수 있도록 돕는 창구로써, 10대들과 창의적인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자 죽돌 아르바이트 지원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하자 죽돌 아르바이트 지원체계는 하자센터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유·무급 형태의 구인, 구직과 관련된 모든 일의 의뢰-진행-평가 과정이 드러

나고 정보화되는 광장으로, 일에 대한 경험과 결과가 정리되고 하자센터의 경험과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진 일과 놀이로 십대들을 만나며, 일과 관련된 매뉴얼을 제공하는 곳으로써의 역할을 지닌다.

하자센터의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구인활동은 이 죽돌 아르바이트 지원체계를 창구로 하며, 유·무급의 일을 통한 외부 연계를 원하는 하자의 십대들은 모두 일정한 양식을 거쳐 구직 등록을 하여야 한다. 죽돌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등록된 일자리에 대한 접근권한은 지원체계에 따른 구직등록을 마친 십대들만의 권리이다. 만 24세 미만의 하자 넷 십대회원은 누구나 구직등록을 할 수 있으며, 하자죽돌 아르바이트 지원 체계를 통해 구직한 십대는 중간평가를 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십대창업기금 통장에 일정액을 납부하거나 경험 내용에 체험기 혹은 평가의 글을 써야 한다.

한편, “하자죽돌 기획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는데, ‘죽돌기획’이란 십대들이 자신과 친구들의 욕구에 기반 하여 사업을 스스로 기획·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 자원을 얻기 위해 갖추어야 할 협상력과 자기관리 능력을 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10대들은 꼭 해야 하는 의미 있는 일이 있고, 함께 할 동료도 있으나 실행시킬 예산이 없을 때, 기획력을 갖추었으나 책임기획자가 되어 볼 기회를 얻지 못할 때, 학벌위주의 사회를 조롱할 일 잘하는 기획자의 이력을 만드는 적극적 경력설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죽돌기획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다. 예산집행 결정권이나 사용권한이 십대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죽돌기획 프로젝트는 스스로 결정권을 가진 기획·연출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회 신청 가능한 총 예산은 1,000,000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행사 규모가 크거나 소요예산이 많고, 행사 기간이 긴 프로젝트의 경우는 전체 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다. 기획자의 인건비는 예산으로 책정할 수 없으나 외부 초빙

강사의 특강비는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기획서에 작성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약속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원 받은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 죽돌기획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지원 받은 경력이 있고, 프로젝트의 평가가 좋은 죽돌은 하자에서 주최 또는 기획하는 사업에서 특권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하자 아르바이트 지원과 죽돌 기획프로젝트는 10대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써 그 성과와 향후의 발전적 전망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2) 중퇴청소년과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의 필요성

최근 들어 중퇴 청소년 문제는 그 증가추세와 심각성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학교중도탈락은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커다란 손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처럼 학력과 학벌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학교중퇴자는 사회중도탈락자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적으로 낙오자의 길을 걷게되며, 사회적 차원에서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노동력의 확보에 실패하여 실업과 빈곤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한편 중도탈락 후 직면하게 되는 개인적인 위기상황이나 일탈행동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고등학교에서 중도탈락한 청소년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중도탈락 비율이 전체 실업고생의 5.0%에 달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청소년들의 학교 중도탈락 문제는 결손 가정 혹은 해체된 가정 등의 가정환경적 요인,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이 빚어낸 학교병리현상, 한국사회에 팽배해 있는 학벌주의, 유해한 지역사회 환경 등 복합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이혼율의 급증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구조적·기능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가정을 양산하게 되었으며,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입시만능의 학교환경은 청소년들의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를 다니는 자체만으로도 선택받은 인간으로서 특권을 누리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 학교는 배움의 터전과 인격수양의 공간이 아닌, 청소년 자신의 삶을 구속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본래의 기능이 크게 약화된 학력 위주의 학교풍토는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나 학업에는 흥미가 없는 청소년들에게까지도 자포자기의 심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유발함으로써 학교를 그만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한편, 유해환경의 범람과 접근의 용이성도 청소년들의 중도탈락을 부추기는 환경적 요인이 되고 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학교중도탈락은 학교를 그만둔다는 단면적 사실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며,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퇴 청소년을 위한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도 중도탈락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화된 구조를 갖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형태로 추진 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사업 및 정책은 주로 학생 청소년의 직업체험과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제적 지원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학교를 중퇴한 상태에서 이들보다 실제적으로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한 욕구와 필요가 더 높은 중퇴 청소년을 위한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학교 혹은 친구에 대해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학업의 부담을 과중하게 느껴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의 경우, 학업을 계속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학업을 계속하기보다는 직업을 가지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며, 이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직업을 통해 자신이 처해 있는 불안정성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며 학교에서 성취하지 못한 것을 일을 통해 보상받고 경제적 독립을 통한 사회 입문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중퇴청소년의 비행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과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공 백

IV.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문제점

1. 설문조사 결과분석
2. 면접조사 결과분석
3. 조사결과의 논의

공 백

IV.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문제점

1.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조사설계 및 조사범위

(1) 조사대상

설문조사 대상은 전국의 대안학교, 소년원, 직업훈련원, 선도보호시설, 쉼터 등 중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있는 학교나 시설의 청소년들이다. 각 시설별로 성격과 특성이 달라 대상자를 동일한 비율로 할당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대안학교를 전체의 50%정도로 할당한 후, 나머지 50%를 소년원, 직업훈련원, 선도보호시설, 쉼터에 남녀비율을 고려하여 골고루 할당하였다. 직업훈련원은 주로 남자청소년이 많이 할당되어 있어 여자청소년만 거주하고 있는 선도보호시설과 쉼터를 조사대상 기관으로 활용하였다. 중퇴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대안학교의 경우, 서울 성지고, 영산 성지고, 양업고, 원경고, 두레 자연고 등 주로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개교한 대안중학교인 지평선중학교와 헌산중학교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 비행의 강도 순으로 범죄청소년을 위한 소년원, 4호 처분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원 및 선도보호시설,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등을 선정하여 적절한 비율로 할당하였다.

조사를 실시한 전체 시설 수는 18개로 대안학교 7개, 소년원 2개, 직업훈련원 3개, 선도보호시설 3개, 쉼터 3개 등이다. 전체 시설에 1,235부의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설문지와 조사결과에 활용할 수 없는 설문지를 빼고 총 975개를

최종 결과로 활용하였다. 975명 중 남자는 581명, 여자는 394명이었으며, 조사대상자는 각 시설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표 IV-1> 시설별 조사대상 인원

시설 남녀	대안학교	소년원	직업 훈련원	선도보호 시설	쉼터	총계
남	296	196	89			581
여	170	100	16	70	38	394
소계	466	296	105	70	38	975

(2) 조사내용

본 조사의 주된 내용에 해당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영역을 크게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 아르바이트 실태, 아르바이트 영향 등 3개 부분으로 나누었다. 먼저,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에서는 용돈 관련한 문항과 아르바이트에 대한 유익성 여부, 문제의식 및 아르바이트 관련 법에 관한 인지도 등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였고, 가장 핵심되는 부분인 아르바이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하위영역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한 문항으로 근로조건과 구직방법,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아르바이트 동기 등에 관해 질문하였고, 부당대우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부당대우 경험 여부와 대처 방식에 관해 알아보았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난 뒤, 그 영향에 관한 질문으로 아르바이트 후 경제 및 소비생활의 변화와 긍정적·부정적 측면의 영향을 알아보았고, 향후 희망직업 및 직업과의 연계성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청소년 진로교육 담당 지도자 및 상담교사 등 현장 전문가와 관련학과 교수의 자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내용을 수 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개발된 설문지의 조사 영역 및 세부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될 수 있다.

<표 IV-2> 조사 범위 및 세부 설문영역

조사범위			세부 설문영역	
일반문항			- 성별	- 연령
			- 중퇴학력	- 중퇴사유
			- 부모	- 가정형편
			- 비행경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	용돈 관련	용돈규모와 만족도	- 용돈의 규모	- 용돈 만족도
		용돈출처와 용도	- 용돈마련 수단	- 용돈의 용도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	아르바이트에 대한 문제의식	- 유익성 여부	
		아르바이트 관련법에 관한 인지도	- 아르바이트 종류와 기회	
	아르바이트 실태	아르바이트 경험	- 아르바이트의 문제점	
		근로조건과 구직방법	-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및 보호규약에 관한 인식	
아르바이트 영향	아르바이트 경험	근로계약 체결	- 최초경험 시기	- 경험했던 일의 종류
		아르바이트 동기	- 구직시 고려사항	- 구직경로
		부당대우 경험 및 대처방식	- 보수규모	- 일당/주당 근무시간
	아르바이트 영향	아르바이트 만족도 및 문제점	- 일의 지속성	
		경제 및 소비생활의 변화	- 근로계약 체결여부	- 부모동의서 제출여부
		긍정적·부정적 영향	- 아르바이트 동기	- 번돈의 사용처
아르바이트 영향	아르바이트 영향	향후 희망직업 및 직업과의 연계성	- 아르바이트 후의 만족도	
		개인적 지원욕구	- 어려움 및 고충 유형	
			- 경제적 도움 유무	
			- 소비생활의 변화 유무	

2)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배경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해 보는 기준으로 성별, 연령, 중퇴학력, 중퇴사유, 부모상태, 가정형편 및 비행경험 등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대체로 고른 편이다. 전체 응답자수 975명 중 남자가 59.6%(581명)이고, 여자는 40.4%(394명)이다.

교육정도는 중퇴학력으로 알아보았는데, 대안학교나 직업훈련원, 소년원 등 현재의 시설로 오기 전의 학력이 '중학교 중퇴'가 가장 많고, '실업고 중퇴'가 '인문고 중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수 924명 중 '중학교 중퇴'인 응답자는 50.2%(463명)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실업고 중퇴' 29.6%(273명), '인문고 중퇴' 16.7%(154명), '초등학교 중퇴' 3.6%(33명)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를 그만 둔 이유로는 '친구교제'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재미없는 학교생활'과 '학교징계처분' 등이 주요 이유들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르바이트' 때문에 학교를 그만 두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 855명 중 '친구교제'가 27.7%(237명), '재미없는 학교생활'이 22.8%(195명), '학교징계처분'이 19.9%(170명)로 나타났고, '아르바이트'가 1.6%(14명)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중퇴를 하는 이유는 어려운 가정경제사정(6.3%)이나 가정불화(7.1%)와 같은 가정적 요인보다는 재미없는 학교생활(22.8%), 학교징계처분(19.9%), 학업성적 저조(2.1%) 등 학교환경 요인이 전체의 44.8%를 차지할 정도로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결과는 청소년 학업중단의 유형이 도피형과 불가피형 혹은 자발형 추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3> 성별

	남자	여자	전체
전 체(%)	59.6	40.4	100.0
(빈도수)	(581)	(394)	(975)

<표 IV-4> 중퇴학력

	초등학교 중퇴	중학교 중퇴	실업고 중퇴	인문고 중퇴	전체
전 체(%)	3.6	50.2	29.6	16.7	100.0
(빈도수)	(33)	(463)	(273)	(154)	(923)

<표 IV-5> 중퇴사유

	어려운 경제 사정	가정 불화	친구 교제	학업 성적 저조	재미 없는 학교 생활	학교 징계 처분	아르 바이트	기타	전체
전체(%)	6.3	7.1	27.7	2.1	22.8	19.9	1.6	12.4	100.0
(빈도수)	(54)	(61)	(237)	(18)	(195)	(170)	(14)	(106)	(855)

현재 부모상태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부모가 모두 살아 계시고, 함께 살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3.4%(421명)였고, 반수 이상인 56.6%는 이혼, 별거, 편부모, 계부모 등 구조적으로 결손된 가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도 2.9%에 달해 이들을 위한 가정의 지원력은 매우 미흡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가정의 경제형편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가정형편이 좋고, 중퇴학력에 따라서는 가정형편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응답자수 967명 중 가정형편이 ‘상’인 응답자는 12.7%(123명), 가정형편이 ‘중’인 응답자는 52.1%(504명), 가정형편이 ‘하’인 응답자는 35.2%(340명)이다.

<표 IV-6> 부모상태

	부모 모두 생존	부모생존/ 이혼, 별거	부모생존/ 계모	부모생 존/계부	편모	편부	부모 사망	전체
전체(%)	43.4	28.3	8.0	4.7	6.8	5.8	2.9	100.0
(빈도수)	(421)	(274)	(78)	(46)	(66)	(56)	(28)	(969)

<표 IV-7> 가정형편

	상	중	하	전체
전체(%)	12.7	52.1	35.2	100.0
(빈도수)	(123)	(504)	(340)	(967)

(2) 비행경험

응답자들이 경험한 비행경험의 종류로는 무단결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음주와 흡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이 중퇴청소년이므로 학업중단의 전조로써 무단결석의 경험은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갖고 있었다. 한편, 대부분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비행경험이 높게 나타났는데, 가출과 자살충동의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비행경험의 비율이 높으며, 반대로 가정형편이 나쁠수록 비행의 경험도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91.1%가 무단결석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응답자 10명중 9명이 무단결석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이나 음주의 경험 역시 각각 87.8%와 88.4%로 10명중 8명 이상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특히, 여자청소년의 흡연 경험비율이 85.3%로 남자의 경우 90.5%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여자 청소년의 흡연비율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출의 경우, 남자 응답자의 78.0%, 여자 응답자의 82.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의 경우보다 가출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충동의 경우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느꼈다

고 응답했는데, 남자의 경우 44.0%, 여자의 경우 64.8%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남자청소년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자살충동의 경우는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경험한 비율이 높아져 다른 비행경험들이 대체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많은 것에 반해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비행경험들은 가정형편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달리, 음란물의 경우는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음란비디오나 음란사이트 접촉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란비디오나 음란사이트를 보기 위해서는 비디오 재생기나 컴퓨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좋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기계에 대한 접근성이 그만큼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표 IV-8> 비행경험

		무단 결석	음주	흡연	가출	자살 충동	구타/ 폭력	성관 계	음란 물
전 체(%) (빈도수)		91.1 (861)	87.8 (826)	88.4 (828)	79.8 (742)	52.4 (485)	70.3 (650)	59.5 (550)	71.0 (650)
성별	남자	93.2	88.6	90.5	78.0	44.0	71.9	61.0	79.9
	여자	88.1	86.5	85.3	82.4	64.8	68.0	57.2	57.3
중퇴학력	초등 졸업이하	71.9	65.5	72.4	75.9	71.4	60.7	42.9	50.0
	중등 졸업이하	91.9	85.6	88.3	84.4	51.9	71.5	58.2	68.8
	고등 중퇴이상	93.5	93.0	91.5	78.1	51.2	71.0	64.0	75.9
가정형편	상	85.6	84.6	86.2	76.9	46.4	64.9	61.2	72.2
	중	92.0	88.6	88.9	78.9	50.4	69.9	61.7	71.0
	하	91.5	87.6	88.0	82.4	57.9	73.0	56.3	70.5

3)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

(1) 용돈규모와 만족도

월 평균 용돈의 규모는 대체로 10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 20만원 이상인 경우도 예상 밖으로 상당히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형편이 중상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4.8%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대안 학교의 경우 매달 20만원 이상의 기숙사비 부담을 해야 하므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가정의 자녀가 다니고 있고, 또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용돈의 규모가 일반 학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용돈의 규모도 커지고, 반대로 가정형편이 나쁠수록 용돈의 규모는 작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월 평균 용돈이 '10만원미만'인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수 972명 중 45.5%(442명)로 가장 많고, '10만원대'인 응답자는 30.0%(292명), '20만원 이상'인 경우도 24.5%(238명)에 달했다.

<표 IV-9> 용돈의 규모 (월평균)

		10만원 미만	10만원대	20만원 이상	전체
전 체(%) (빈도수)		45.5 (442)	30.0 (292)	24.5 (238)	100.0 (972)
가정형편 ¹⁾	상	40.7	34.1	25.2	100.0
	중	39.5	33.7	26.9	100.0
	하	55.2	23.7	21.1	100.0

1) $\chi^2=21.659$ $P<.001$

용돈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일반 학생집단과 비교하여 용돈의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자신의 용돈이 적다고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용돈이 '많은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수 974명 중 13.8%(134명)에 불과한 반면에, '적은편'이라

고 응답한 경우는 49.9%(486명)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응답자가 '적은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56.4%인 반면에, 남자의 경우는 45.6%로 여자가 남자보다 용돈이 적다고 느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편에 따라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자신의 용돈이 적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자신이 용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10> 용돈만족도

		많은편	적당한편	적은편	전체
전 체(%) (빈도수)		13.8 (134)	36.3 (354)	49.9 (486)	100.0 (974)
성별 ¹⁾	남자	15.2	39.2	45.6	100.0
	여자	11.8	31.8	56.4	100.0
가정 형편 ²⁾	상	17.9	40.7	41.5	100.0
	중	13.9	38.2	47.8	100.0
	하	12.2	31.5	56.3	100.0

1) $\chi^2=10.942$ $P< .005$

2) $\chi^2=10.276$ $P< .05$

(2) 용돈의 출처와 용도

응답자 10명중 7명은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용돈을 부모로부터 받는 응답자가 더 많아지고,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아르바이트를 하여 용돈을 마련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를 하여 용돈을 마련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응답자수 970명 중 용돈을 '정기적으로 부모'로부터 받는 응답자와 '비정기적으로 부모'로부터 받는 응답자가 각각 22.4%(217명)와 48.0%(466명)로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 경우가 모두 70.4%(683명)로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마련한다는

응답자는 27.7%(269명)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경우는 20%정도에 불과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마련한다는 경우보다 낮아, 비정기적으로 가끔씩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11> 용돈마련 수단

	부모 (정기적)	부모 (비정기적)	아르바이트	친구 (빌립/의존)	전체
전 체(%)	22.4	48.0	27.7	1.9	100.0
(빈도수)	(217)	(466)	(269)	(18)	(970)
초등졸업이하	21.2	39.4	30.3	9.1	100.0
교육정도 ¹⁾ 중등졸업이하	19.2	49.2	29.2	2.4	100.0
고등중퇴이상	24.1	48.3	26.7	0.9	100.0
상	23.6	50.4	23.6	2.4	100.0
가정형편 ²⁾ 중	23.4	50.7	24.6	1.4	100.0
하	21.0	42.5	34.1	2.4	100.0

1) $\chi^2=18.487$ $P< .05$

2) $\chi^2=12.398$ $P< .054$

청소년들은 용돈을 옷, 신발, 화장품, 악세사리 등을 구입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나, 외모를 꾸미는 데에 가장 많은 용돈을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응답자수 977명 중 용돈을 ‘옷, 신발, 화장품, 악세사리 구입’에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43.9%(429명)로 가장 많았고, ‘PC방, 오락실, 노래방 이용비’에 사용하는 경우가 25.1%(245명)로 두 번째로 높았다. 두 항목에 있어 남녀별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용돈의 용도가 ‘옷, 신발, 화장품, 악세사리 구입’인 경우는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51.9%로 남자청소년 38.5%보다 높았으며, 반면 ‘PC방, 오락실, 노래방 이용비’에서는 남자청소년이 28.8%로 여자청소년 19.8%보다 높았다.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도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이 두 항목에의 지출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반면 저축은 낮아지는 경향이다. 의외로 ‘이동통신 기기 구입 및 이용료’에 사용하는 경우는 12.5%(122명)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는 대체로 이동통신 기기가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자주 바꾸기에 부담스럽고, 부모가 대신 사주거나 이
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12> 용돈의 용도

		이동통신 기기구입/ 이용료	영화공연 관람 및 음반구입	옷/신발/ 화장품/ 약제서리구입	PC방/오락실 /노래방 이용비	간식/군것 질/식비	참고서/ 학용품구입	저축	전체
전	체(%) (빈도수)	12.5 (122)	11.3 (110)	43.9 (429)	25.1 (245)	5.2 (51)	1.3 (13)	0.7 (7)	100.0 (977)
성별 ¹⁾	남자	12.1	13.0	38.5	28.8	4.8	1.7	1.0	100.0
	여자	12.5	8.9	51.9	19.8	5.9	8	3	100.0
교육 정도 ²⁾	초등 졸업이하	31.3	6.3	34.4	12.5	9.4		6.3	100.0
	중등 졸업이하	11.3	11.9	44.8	26.4	4.1	1.1	4	100.0
	고등								
	중퇴이상	12.4	11.3	45.1	24.2	5.2	1.2	7	100.0

1) $\chi^2=24.565$ $P<.001$

2) $\chi^2=30.658$ $P<.05$

청소년들은 용돈이 부족할 때 충당방법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
우가 가장 많았다. 한편,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스로 아
르바이트를 하여 충당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르
바이트를 해서 부족한 용돈을 충당하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았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
돈을 충당하겠다는 비율도 더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님에게 더 받는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수 963명 중 48.9%(471명)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부모
에게 의존한다고 하였으며, ‘아르바이트’를 하여 충당한다고 응답한 경
우도 30.9%(298명)에 달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남자 응답자가
29.7%인 반면에 여자 응답자는 32.6%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아르
바이트를 통한 용돈 마련에 더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3> 용돈 부족시 대체수단

		부모	친구 (빌립)	아르바이트	친구 (의존)	훔치거나 훔침	전체
전 체(%) (빈도수)		48.9 (471)	13.3 (128)	30.9 (298)	3.4 (33)	3.4 (33)	100.0 (963)
성별 ¹⁾	남자	49.3	13.8	29.7	3.3	3.8	100.0
	여자	48.4	12.4	32.6	3.6	2.8	100.0
가정형편 ²⁾	상	54.5	10.6	26.0	4.1	4.9	100.0
	중	54.7	13.2	27.1	2.6	2.4	100.0
	하	37.7	14.0	39.5	4.3	4.6	100.0

1) $\chi^2=1.727$ $P<.786$ 2) $\chi^2=29.860$ $P<.001$

(3) 아르바이트에 대한 문제의식

① 아르바이트의 유익성에 대한 견해

청소년들은 대체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978명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889명으로 90.9%인 반면에 '해롭다'고 응답한 경우는 89명으로 8.7%에 불과해, 응답자 10명중 9명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성별이나 교육정도, 가정형편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두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V-14> 아르바이트의 유익성에 대한 견해

		유익함	해로움	전체
전 체(%) (빈도수)		90.9 (889)	9.1 (89)	100.0 (978)

② 아르바이트의 종류와 기회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매우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여자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종류가 남자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수 977명 중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종류가 ‘적다’고 응답한 경우가 52.9%(517명)에 달했고, ‘많다’고 응답한 경우는 25.0%(244명)였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60.3%가 일의 종류가 ‘적다’고 응답하여 남자 청소년 48.2%보다 높았는데, 이는 여자청소년의 성산업으로의 유입과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 90%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가 강한 반면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종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별 차이에서는 가정형편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로 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더 ‘적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아르바이트에 대한 필요와 욕구는 강한 반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표 IV-15> 아르바이트 종류에 대한 견해

		많음	적당함	적음	전체
전 체(%) (빈도수)		25.0 (244)	22.1 (216)	52.9 (517)	100.0 (977)
성별 ¹⁾	남자	29.7	22.1	48.2	100.0
	여자	17.8	21.9	60.3	100.0
가정형편 ²⁾	상	36.6	26.0	37.4	100.0
	중	22.1	25.8	52.1	100.0
	하	25.1	15.1	59.8	100.0

1) $\chi^2=19.785$ $P<.001$

2) $\chi^2=28.562$ $P<.001$

아르바이트 기회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적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여자가 남자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적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여자청소년의 경우가 남자청소년보다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종류가 적다고 응답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수 979명 중 61.8% (605명)가 '적다'고 응답한 반면에, '많다'고 응답한 경우는 14.4%(141명)에 불과해, 응답자 10명중 6명 이상이 건전하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90%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가 강한 반면에, 아르바이트를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가 눈에 띄는데, 남자의 경우 57.4%가 '적다'고 응답한 것에 반해, 여자의 경우 68.5%가 '적다'고 응답하여 여자가 남자보다 건전한 아르바이트의 기회가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아르바이트 기회에 대한 견해

		많음	적당함	적음	전체
전체(%)		14.4	23.8	61.8	100.0
(빈도수)		(141)	(233)	(605)	(979)
성별 ¹⁾	남자	14.7	27.9	57.4	100.0
	여자	13.7	17.8	68.5	100.0

1) $\chi^2=15.006$ $P<.001$

③ 아르바이트의 문제점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낮은 임금수준이나 임금체불을 지적했다. 전체 응답자수 974명중 26.8%(261명)가 '낮은 임금수준이나 임금체불'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23.1%(225명)가 '육체적 피로나 여가시간 부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일자리나 아르바이트 정보 부족'과 '사회나 어른의 부정적 인식'도 각각 16.8%(164명)와 16.7%(163명)로 비슷하게 언급하였다.

<표 IV-17> 아르바이트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

		낮은임금 /임금체불	직장내 인격모독	육체적피로 /여가시간 부족	학업방해	정보부족	부정적 인식	전체
전	체(%)	26.8	4.7	23.1	11.8	16.8	16.7	100.0
	(빈도수)	(261)	(46)	(225)	(115)	(164)	(163)	(974)
성별 ¹⁾	남자	24.9	5.2	25.1	13.7	14.2	17.0	100.0
	여자	29.7	4.1	19.9	9.0	21.0	16.4	100.0
교육 정도 ²⁾	초등 졸업이하	34.4	15.6	18.8	12.5	6.3	12.5	100.0
	중등 졸업이하	22.3	5.2	24.7	10.4	20.6	16.7	100.0
	고등 중퇴이상	30.2	3.3	22.6	13.0	14.4	16.5	100.0
가정 형편 ³⁾	상	23.8	4.9	23.0	18.9	12.3	17.2	100.0
	중	24.3	4.8	23.3	13.1	15.5	18.9	100.0
	하	32.0	4.2	22.3	7.4	20.5	13.6	100.0

1) $\chi^2=16.034$ $P<.01$ 2) $\chi^2=28.971$ $P<.05$ 3) $\chi^2=24.631$ $P<.01$

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면, 성별 차이에서 남자의 경우 ‘육체적 피로 나 여가시간 부족’과 ‘낮은 임금수준이나 임금체불’이 각각 25.1%(145명)과 24.9%(144명)로 다른 문제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지적된 반면, 여자의 경우는 ‘낮은 임금수준이나 임금체불’이 29.7%(116명)으로 다른 문제점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교육정도별 차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직장내 인격모독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가정형편이 낮을수록 낮은 임금이나 임금체불 혹은 정보부족의 문제점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4) 아르바이트 관련법에 관한 인지도

우리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에 관한 법이나 부모동의서 제출, 재해보상, 초과근무시 특별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반면에,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에 관한 법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6.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근로기준법'(제64조)에 의하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부모동의서를 사업주나 고용주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응답자는 73.1%로 부모동의서 제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기준법'(제17조, 제65조)에 의하면 청소년 역시 아르바이트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전체 응답자 70.5%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들 사이에 부모동의서 제출에 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에,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근로기준법'(제81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업주)로부터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1.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재해보상에 대해 많은 청소년들이 알고 있었다. 한편, '근로기준법'(제55조)에 의하면 연장근로나 야간 및 휴일근로를 했을 경우 통상임금에 30%~50%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45.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특별수당 지급 관련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 아르바이트 관련법에 대한 인지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법	부모동의서 제출	근로계약서 작성	상해 시 치료비와 보상청구	초과근무 시 특별수당 지급
전 체(%)	46.9	73.1	25.8	51.2	45.8
(빈도수)	(456)	(710)	(250)	(497)	(443)

4) 아르바이트 실태

(1) 근로조건과 구직방법

① 최초 아르바이트 경험 시기

청소년들이 가장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시기로는 15-18세가 가장 많았고,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일찍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949명 중 48.6%(461명)가 '15-18세'에 했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13-15세'라고 응답한 청소년들도 34.9%(331명)나 되어 상당히 이른 나이부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좀더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였다. 한편, 중퇴학력과 최초 아르바이트 시기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퇴학력이 낮을수록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있었다. 중퇴학력이 초등이하의 경우 13세 미만에 최초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경우가 33.3%, 13-15세 사이가 39.4%로 응답하고 있어 초등학교 이하의 72.7%가 법적 근로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15세미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최초 아르바이트 경험 시기

		13세미만	13-15세	15-18세	18세이상	전체
전	체(%)	8.3	34.9	48.6	8.2	100.0
	(빈도수)	(79)	(331)	(461)	(78)	(949)
성별 ¹⁾	남자	8.7	35.4	49.7	6.2	100.0
	여자	7.9	34.3	46.7	11.1	100.0
교육정도 ²⁾	초등 졸업이하	33.3	39.4	12.1	15.2	100.0
	중등 졸업이하	7.8	45.6	42.7	4.0	100.0
	고등 졸업이하	6.2	22.8	59.0	12.0	100.0
	중퇴이상					

1) $\chi^2=7.306$ $P<.063$ 2) $\chi^2=102.132$ $P<.001$

② 아르바이트 경험 직종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해본 아르바이트 직종은 ‘전단지 돌리기’였으며, 남자는 대체로 육체적인 힘이 많이 필요한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여자는 서비스 업종의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58.5%가 ‘전단지 돌리기’를 경험을 했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음식점 서빙’이 35.6%로 많았다. ‘주유소’(32.6%), ‘음식점 배달’(29.9%), 유흥업소 서빙·접대(26.9%) 및 ‘패스트푸드점’(27.7%) 등이 중퇴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을 알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전단지 돌리기’, ‘신문·우유배달’, ‘주유소’, ‘건설현장이나 이삿짐센터 등 막노동’, ‘유흥업소 고객’, ‘음식점 배달’ 등을 여자보다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패스트푸드점’, ‘상점판매보조’, ‘이벤트행사장 도우미’, ‘유흥업소 서빙·접대’, ‘음식점 서빙’ 등을 남자보다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막노동(남:35.7%, 여:3.1%)과 음식점 배달(남: 47.3%, 여:4.2%)은 남자청소년의 독점 직종이라 할 정도 남녀별 경험 격차가 심하였으며,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유흥업소 서빙/접대(남:22.4%, 여:33.3%)와 음식점 서빙(남:31.3%, 여:42.2%)에서만 10%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을 뿐, 여자청소년의 단연 우위 직종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청소년을 위한 아르바이트 직종은 남자청소년에 비하여 매우 적으며, 이는 여자청소년의 성산업 유입과 불법고용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20> 경험한 아르바이트의 종류

		전단지	패스트푸드점	24시간 편의점	상점 판매보조	신문/우유배달	주유소	이벤트행사장도우미
전체	(%)	58.5	27.7	15.2	11.4	19.0	32.6	5.8
	(빈도수)	(562)	(266)	(146)	(109)	(194)	(333)	(56)
성별	남자	65.0	24.3	15.2	10.0	28.2	40.8	4.9
	여자	49.2	32.8	15.1	13.5	8.1	26.0	7.0
		박노동(건설/이삿짐)	유흥업소서빙/접대	음식점서빙	유흥업소호객	음식점배달	기타	
전체	(%)	22.7	26.8	35.6	8.5	29.9	19.0	
	(빈도수)	(218)	(257)	(342)	(82)	(287)	(182)	
성별	남자	35.7	22.4	31.3	13.0	47.3	17.0	
	여자	3.1	33.3	42.2	2.1	4.2	22.0	

③ 아르바이트 선택 시 고려사항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때 ‘보수’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 942명 중 66.0%(622명)가 ‘보수’라고 응답하여 10명중 6명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때 ‘보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다음으로는 ‘시간적 여유’가 11.6%(109명)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보수’가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성이나 근무환경, 업무의 지속성 등 영구적인 직업에서 고려하는 것과는 달리 아르바이트에서는 보수와 시간적인 여유 등 직업과는 구별되는 단순하고 일시적인 요인만을 따지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비와 놀이문화를 추구하려는 청소년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경향은 중퇴청소년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21> 아르바이트 선택시 고려사항

		보수	시간적 여유	적성	근무 환경	숙식 제공	지속적 근무여 부	무조건 구해지 는대로	전체
전	체(%)	66.0	11.6	8.7	4.2	3.6	2.0	3.8	100.0
	(빈도수)	(622)	(109)	(82)	(40)	(34)	(19)	(36)	(942)
성별 ¹⁾	남자	68.1	9.8	9.4	3.5	3.7	1.8	3.7	100.0
	여자	63.3	13.9	7.5	5.4	3.5	2.4	4.0	100.0
교육 정도 ²⁾	초등 졸업이하	37.5	21.9	15.6	3.1	9.4	6.3	6.3	100.0
	중등 졸업이하	61.0	12.9	9.5	5.8	4.4	2.0	4.4	100.0
	고등 중퇴이상	73.5	8.7	7.0	2.9	2.4	1.9	3.4	100.0
	상	58.8	15.1	7.6	5.0	5.9	1.7	5.9	100.0
가정 형편 ³⁾	중	66.8	12.1	10.5	3.7	2.9	.6	3.5	100.0
	하	67.3	9.3	6.8	4.9	4.0	4.3	3.4	100.0

1) $\chi^2=7.439$ $P<.282$ 2) $\chi^2=32.815$ $P<.05$ 3) $\chi^2=25.457$ $P<.05$

④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는 친구 소개와 같은 인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936명 중 48.1%(450명)가 '친구소개'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벼룩시장, 교차로 등'을 보고 구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5.8%(148명)로 많았다. 반면에, 공식적인 구직 통로인 '아르바이트 정보제공 센터 소개'로 구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1.5%(14명)에 불과해, 아르바이트 정보를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센터를 통하여 구직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성별에 따른 구직경로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여자청소년보다 '친구소개'(남:52.3%, 여:41.9%)로 구직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광고전단'(남:9.9%, 여:16.5%), '직업소개소'(남:2.7%, 여:5.6%), 'PC통신이나 인터넷'(남:5.0%, 여:6.4%) 등에서 남자청소년보다 비율이 높았다.

<표 IV-22>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

		친구 소개	가족/친척소개	광고전단	직업소개소	PC통신/인터넷	벼룩시장/교차로	아르바이트 정보제공센터	전체
전체	(%)	48.1	12.6	12.6	3.8	5.6	15.8	1.5	100.0
	(빈도수)	(450)	(118)	(118)	(36)	(52)	(148)	(14)	(936)
성별 ¹⁾	남자	52.3	12.9	9.9	2.7	5.0	15.3	1.8	100.0
	여자	41.9	12.0	16.5	5.6	6.4	16.5	1.1	100.0

1) $\chi^2=19.766$ $P<.01$

⑤ 보수 규모

중퇴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보수는 시간당 3000원 이상이 가장 많고, 일당으로는 '2-5만원' 수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간의 시간당 보수 차이가 상당수준 높았으며, 고액 보수인 경우는 대부분 청소년들을 고용할 수 없는 유흥업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응답자 중 33.0%가 '3000원 이상'을 받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25.9%가 '2000원-2500원'을 받는다고 응답하여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와 상이하다. 이는 중퇴청소년의 경우 유흥업소 서빙이나 접대에 종사하는 경우가 일반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서 비롯되는 결과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남자의 경우는 '3000원 이상'을 받는 응답자가 36.1%로 가장 많았던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2000-2500원'을 받는 응답자가 31.8%로 가장 많아 남녀간에 보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당 보수의 규모 경우에는 '2-5만원'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40.2%로 가장 많았다. 한편, '10만원 이상'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12.8%나 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종류'에 대한 질문과 교차분석한 결과(표 IV-45 참조), 일당 '10만원 이상'을 받는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유흥업소 서빙·접대'가 49.1%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고액의 일당을 받는 경우에는 대체로 청소년들에게 유

해업소로서 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곳에서 하는 아르바이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0만원 이상(남:8.5%, 여:21.7%)의 고액 임금은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남자청소년보다 높았는데, 이는 여자청소년의 경우가 유흥업소 서빙·접대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과도 연관이 있다. 중퇴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일당 1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는 중등 졸업이하가 15.0%로, 고등중퇴 이상 11.3%나 초등졸업 이하 8.3%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자청소년의 대다수가 중학교 중퇴학력이라는 많은 연구조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V-23> 아르바이트 보수 규모(시간당)

		1500원미만	1500-2000원	2000-2500원	2500-3000원	3000원이상	전체
전	체(%) (빈도수)	6.7 (48)	13.5 (97)	25.9 (186)	20.9 (150)	33.0 (237)	100.0 (718)
성별 ¹⁾	남자	7.2	11.1	22.2	23.4	36.1	100.0
	여자	6.0	17.0	31.8	17.3	27.9	100.0

1) $\chi^2=17.231$ $P< .05$

<표 IV-24> 아르바이트 보수 규모(일당)

		5천원미만	5천원-1만원	1-2만원	2-5만원	5-10만원	10만원이상	전체
전	체(%) (빈도수)	10.0 (43)	11.4 (49)	5.3 (23)	40.2 (173)	20.0 (86)	12.8 (55)	100.0 (429)
성별 ¹⁾	남자	9.5	6.3	4.6	47.5	23.2	8.5	100.0
	여자	10.5	21.0	7.0	25.9	14.0	21.7	100.0
교육 정도 ²⁾	초등 졸업이하	8.3	41.7		33.3	8.3	8.3	100.0
	중등 졸업이하	10.9	14.0	6.7	34.2	19.2	15.0	100.0
	고등 중퇴이상	8.4	6.9	3.9	45.8	23.2	11.3	100.0

1) $\chi^2=47.806$ $P< .001$

2) $\chi^2=34.057$ $P< .05$

⑥ 일당/주당 근무시간

‘근로기준법’(제67조)에 의하면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는 근로시간

이 1일 7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최장 1일 8시간 이상은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947명 중 52.2%(494명)가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다수 업소들이 관련법을 위반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5> 일당 근무시간

		1-2시간	3-4시간	5-6시간	6-7시간	8시간이상	전체
전	체(%) (빈도수)	5.2 (49)	9.9 (94)	14.3 (135)	18.5 (175)	52.2 (494)	100.0 (947)
성별 ¹⁾	남자	5.3	6.7	12.6	17.7	57.6	100.0
	여자	5.0	14.6	16.7	19.3	44.4	100.0
교육 정도 ²⁾	초등 졸업이하	24.2	15.2	15.2	18.2	27.3	100.0
	중등 졸업이하	5.1	12.8	14.3	16.1	51.7	100.0
	고등 중퇴이상	3.1	6.0	14.4	20.6	55.9	100.0

1) $\chi^2=24.495$ $P<.001$ 2) $\chi^2=50.968$ $P<.001$

<표 IV-26> 주당 근무시간

		매일	1-2일	3-4일	5-6일	정해져 있지 않음	전체
전	체(%) (빈도수)	31.1 (295)	7.8 (74)	9.2 (87)	33.0 (313)	18.9 (179)	100.0 (948)
교육 정도 ¹⁾	초등 졸업이하	33.3	15.2	9.1	18.2	24.2	100.0
	중등 졸업이하	29.6	8.0	9.4	31.2	21.8	100.0
	고등 중퇴이상	32.9	7.0	9.1	35.1	15.9	100.0

1) $\chi^2=22.798$ $P<.05$

또한 주당 근무시간 역시 '5-6일' 일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일' 일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1.1%로 많았

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주말이나 휴일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가 더 많이 8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었고(남:56.7%, 여:44.4%), 중퇴 학력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일당 근로시간과 주당 근로일수가 길어지는 경향을 띄고 있다.

⑦ 일의 지속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기간은 대체로 짧아 임시적으로 노동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선택한 아르바이트를 얼마 동안 계속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946명 중 27.3%(258명)가 '약 15-30일'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약 1-15일'이 20.2%로 많았다. 반면에, 같은 일을 '약 6개월 이상'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4.8%에 불과했다. 따라서 대체로 1개월 내의 짧은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일의 지속성이 매우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표 IV-27> 아르바이트 지속성

	약1-15일	약15-30일	약2개월	약3개월	약4개월	약5개월	약6개월 이상	전체
전체(%)	20.2	27.3	18.2	11.1	5.3	3.2	14.8	100.0
(빈도수)	(191)	(258)	(172)	(105)	(50)	(30)	(140)	(946)

(2) 근로계약 체결

대다수의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942명 중 85.4%(804명)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25.5%이고, 모른다는 경우가 70.5%였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모르고 있을뿐더러 실제로 작성하는 경우도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IV-28>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작성함	작성하지 않음	전체
전 체(%)	14.6	85.4	100.0
(빈도수)	(138)	(804)	(942)

‘근로기준법’(제64조)에 의하면 고용주는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였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942명 중 74.2%(699명)가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부모동의서 제출인지도’에 대한 결과와 매우 상반되는 것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부모동의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73.1%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고용주가 굳이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거나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표 IV-29> 부모동의서 제출여부

	제출함	제출하지 않음	전체
전 체(%)	25.8	74.2	100.0
(빈도수)	(243)	(699)	(942)

(3) 아르바이트 동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용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939명 중 36.8%(346명)가 ‘평소 용돈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무엇인가를 꼭 사거나 쓸 곳이 생겨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26.3%(247명)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용돈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9%가 용돈이 ‘적은편’이라고 응답한 결과와 연결된다. ‘용돈 만족도’와 ‘아르바이트 동기’와 교차분석을 해 본 결과, 용돈이 ‘적은편’이라는 응답자의 경우 46.0%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 ‘용돈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하여 다른 경우보다 가장 높았다.

<표 IV-30> 아르바이트 동기

	용돈부족	꼭사거나쓸 곳이생겨서	친구의 권유	여가시 간 활용	사회경 험쌓기 위해	가정경제 에보탬	전체
전체(%)	36.8	26.3	6.2	7.3	13.8	9.5	100.0
(빈도수)	(346)	(247)	(58)	(69)	(130)	(89)	(939)
성별 ¹⁾							
남자	33.2	27.6	5.6	7.9	16.7	9.0	100.0
여자	41.8	24.3	7.1	6.6	9.8	10.3	100.0
가정 형편 ²⁾							
상	32.8	25.9	9.5	9.5	16.4	6.0	100.0
중	36.5	29.7	6.2	7.9	14.3	5.4	100.0
하	39.2	21.0	4.9	6.1	12.2	16.7	100.0

1) $\chi^2=15.024$ $P<.01$ 2) $\chi^2=40.651$ $P<.001$

한편, 여자가 남자보다 ‘용돈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성별 용돈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용돈이 ‘적은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용돈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아짐을 발견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의 사용 용도는 용돈의 사용 용도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 941명 중 48.7%(458명)가 ‘옷, 신발, 화장품, 악세사리 구입’에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우선 순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PC방, 오락실, 노래방 등 이용비’라고 응답한 경우가 17.6%(166명)으로 많았다. 번 돈의 사용 용도는 성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생기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로 ‘옷, 신발, 화장품, 악세사리 구입’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자와 여자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용도에서는 남자의 경우 ‘PC방, 오락실, 노래방 등 이용비’이었던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이동통신 기기 구입 및 이용료’라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표 IV-31> 번돈의 사용 용도

	이동통신기기 구입/이용료	영화공연관람 음반구입	옷/신발/화 장품/악세사 리구입	PC방/오락 실/노래방	식비(간식 /군것질)	참고서/학 용품구입	저축	수업/학 원비	생활비 예보	전체
전 체(%)	13.7	11.8	48.7	17.6	3.9	1.1	1.1	0.7	1.4	100.0
(빈도수)	(129)	(111)	(458)	(166)	(37)	(10)	(10)	(7)	(13)	(941)
성별										
남자	11.8	14.5	45.0	20.8	3.0	.9	1.4	5	2.0	100.0
여자	15.9	7.7	54.5	13.2	5.3	1.3	.5	1.1	.5	100.0

1) $\chi^2=32.337$ $P<.001$

(4) 부당대우 경험 및 대처방식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한 부당한 대우는 대부분 임금과 관련하여 일어나며,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부당한 대우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당행위에서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0.4%로 가장 많았다.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보다 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다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39.8%이나 되어,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신체적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다치는데, 그 이유는 남자가 여자보다 신체적 힘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근을 하거나 일요일에 일하고 특별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31.6%에 이른다. ‘근로기준법’(제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야근이나 휴일에 일을 하고도 특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32> 부당 대우 경험

		임금체불/ 삭감지급	초과근무 수당 지급 안함	초과근무 인건비 인상 안함	계약과 다른 일	작업환경 불결/위험	다침	폭언/ 구타	성희롱/ 성폭력
전 체 (%)		40.4	31.6	32.2	17.9	24.7	39.8	20.5	9.5
(빈도수)		(382)	(296)	(302)	(167)	(231)	(373)	(192)	(89)
성별	남자	36.8	31.5	30.3	16.7	24.4	43.5	19.5	4.1
	여자	46.0	32.2	35.0	19.9	24.9	33.5	22.0	17.8

한편, 전체 빈도분석에서 ‘성희롱이나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로 낮아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지만, 성별 변수와 교차분석 해본 결과,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89명 중 66명(74.1%)이 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에서 경험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물었을 때, 두 가지 상반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스스로 일을 그만둔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 중 38.6%로 가장 높았고, ‘참고 일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6.3%로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에 ‘경찰이나 노동사무소에 신고한다’와 같이 제도적 권력에 호소하는 경우는 2.5%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주위 사람들

의 힘을 빌리거나 제도적 권력에 호소하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3> 부당 대우시 대처방법

	고발기관에 대해 알지 못함	참고 계속일함	주인/ 상사에게 항의	친구/ 가족에게 도움 청함	경찰/ 노동사무소 신고	스스로 일을 그만둠	전체
전 체(%)	8.8	26.3	16.0	6.8	3.4	38.6	100.0
(빈도수)	(67)	(200)	(122)	(52)	(26)	(294)	(761)

5) 아르바이트 영향

(1) 아르바이트 만족도 및 문제점

상당수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한 것에 만족하는가를 물었을 때, ‘매우 만족’과 ‘만족’이 각각 11.1%, 50.1%로 전체 응답자 중 61.2%가 아르바이트의 경험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모두 38.8%에 달해, 응답자 10명중 거의 4명이 아르바이트를 한 것에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만족스러워 했다. 반대로 남자의 경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모두 33.9%인데 비해 여자의 경우는 불만족이 46.4%에 달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부당한 대우를 묻는 질문의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여자의 경우가 남자의 경우보다 더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대한 만족도 역시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34> 아르바이트 후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전체(%)		11.1	50.1	28.6	10.2	100.0
(빈도수)		(105)	(476)	(272)	(97)	(950)
성별 ¹⁾	남자	13.1	53.0	26.1	7.8	100.0
	여자	7.9	45.7	32.5	13.9	100.0

1) $\chi^2=19.738$ $P<.001$

앞서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임금수준이나 임금체불’이었듯이, 실제 응답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문제점 역시 ‘낮은 임금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48.7%가 아르바이트 수행 시 어려움으로 ‘낮은 임금수준’을 들었다. 앞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청소년들의 시간당 보수는 대부분 2000-3000원 수준이었다. 이러한 임금수준이라면 1일 합법적인 최장시간인 7시간 일을 한다고 해도 대체로 하루에 1만 5천원~2만원 정도의 임금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낮은 임금수준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고액의 불법 아르바이트 업소로의 유혹에 빠져들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표 IV-35> 아르바이트 수행시 어려움 및 고충

		낮은 임금	임금 체불	사업주/ 직원의 인격모독	구타/ 폭행	위험한 주변환경	기타	전체
전체(%)		48.7	6.6	8.2	2.3	17.6	16.5	100.0
(빈도수)		(437)	(59)	(74)	(21)	(158)	(148)	(897)

(2) 경제 및 소비생활의 변화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가 경제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 950명 중 76.6%(728명)가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거나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가 물질적 유인이 되는 이상,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수요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자의 경우 경제적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5%인데 비해 남자의 경우는 80.8%에 달해, 남자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생활에 있어 아르바이트에 더욱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6> 아르바이트의 경제적 도움 정도

		아주 큰 도움	약간 도움	별로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전체
전	체(%)	16.0	60.6	16.9	6.4	100.0
	(빈도수)	(152)	(576)	(161)	(61)	(950)
성별 ¹⁾	남자	18.3	62.5	13.1	6.0	100.0
	여자	12.6	57.9	22.5	7.1	100.0

1) $\chi^2=17.666$ $P<.001$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한 후 소비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후 소비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944명 중 55.6%(525명)가 '늘어났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3.1%(124명)에 불과해, 오히려 아르바이트가 소비욕구를 더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역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표 IV-37> 아르바이트 이후 소비생활의 변화 정도

		늘어남	변화없음	줄어듦	전체
전	체(%)	55.6	31.3	13.1	100.0
	(빈도수)	(525)	(295)	(124)	(944)

(3) 아르바이트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의 부정적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긍정적 영향의 6개 항목 중 4개 항목이 50%정도의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고, 부정적 영향의 경우는 7개 항목 중 음주·흡연(42%)과 소비욕구 증가(31.9%)를 제외한 5개 항목이 모두 30% 미만의 부정적 반응을 보여 아르바이트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남자청소년의 경우가 긍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더 높았다.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가장 긍정적인 영향은 직업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사회생활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로 인해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되었는가를 묻는 질문에 51.7%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는가의 질문에 49.1%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일의 보람과 직업의 중요성 알게 되었는가의 질문에 48.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노동의 의미와 직업의 중요성을 깨닫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일에 대한 자신감이나 사회생활의 경험을 쌓는데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8> 아르바이트의 긍정적 영향

		경제적 독립심	돈의 계획적 사용	사회생활 경험	진로결정에 도움	직업의 중요성 인식	일에 대한 자신감
전	체(%)	39.6	42.3	51.7	29.9	48.9	49.1
	(빈도수)	(375)	(398)	(483)	(280)	(459)	(462)
성별	남자	37.9	44.7	53.0	31.5	51.5	52.2
	여자	42.3	38.9	49.9	27.4	44.9	44.3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학업의 흥미가 떨어지고 일탈행위

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들의 생활에 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후에 수업이나 공부의 흥미가 감소되었는가를 묻는 질문에 27.2%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아르바이트가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의 학업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싸움의 횟수가 증가하였는가, 외박이나 가출이 증가하게 되었는가, 성경험이 증가하였는가 등의 질문들에 공통적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비율이 훨씬 더 낮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남자청소년의 경우가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낮았다.

<표 IV-39> 아르바이트의 부정적 영향

		공부흥미 감소	잔병치레 증가	음주/ 흡연증가	싸움횟수 증가	외박/ 가출증가	성경험 증가	소비욕구 증가
전	체(%) (빈도수)	27.2 (256)	19.7 (184)	42.0 (394)	13.5 (126)	26.4 (247)	16.3 (153)	31.9 (300)
성별	남자	28.9	17.3	43.6	13.1	24.6	17.1	30.4
	여자	24.7	23.3	39.8	13.9	29.0	15.1	34.2

(4) 향후 희망 아르바이트 직종 및 직업과의 연계성

① 희망 아르바이트 직종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패스트푸드점이나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가를 묻는 질문에, ‘패스트푸드점’이 2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4시간 편의점’이 17.8%로 뒤를 이었다. 청소년들이 패스트푸드점이나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종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적 근

로환경이 좋고 안정적이며, 대외적 이미지가 좋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현재(또는 최근에)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 패스트푸드점이나 24시간 편의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27.7%와 15.2%로 낮은 편이다. 이러한 상반되는 두 개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패스트푸드점이나 24시간 편의점이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이지만, 실제 이런 곳에서는 청소년들을 잘 고용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0> 향후 희망 아르바이트 종류

		전단지	패스트 푸드점	24시간 편의점	상점판매 보조	신문/ 우유배달	주유소	이벤트행사장 도우미
전	체(%)	28	22.4	17.8	7.7	1.3	3.9	7.5
	(빈도수)	(25)	(203)	(162)	(70)	(12)	(35)	(68)
		막노동 (건설/ 이삿짐)	유흥업소 서빙/접대	음식점 서빙	유흥업소 호객	음식점 배달	기타	전체
전	체(%)	3.1	6.7	6.1	2.2	3.4	15.2	100.0
	(빈도수)	(28)	(61)	(55)	(20)	(31)	(138)	(908)

② 아르바이트와 향후 직업과의 연계성

아르바이트가 앞으로 갖게 될 직업과 얼마나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인지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52.0%가 ‘연결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48%가 ‘연결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아르바이트의 긍정적인 영향을 묻는 질문의 결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아르바이트가 앞으로 진로 결정과 적성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29.9%에 불과했던 것처럼,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신의 재능이나 적성을 확인해보지 못하며, 또한 아르바이트가 향후 직업을 갖기 전 예비적인 직업 경험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매우 제한된 분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V-41> 향후 직업과의 연계성

	많이 연결됨	약간 연결됨	별로 연결안됨	전혀 연결안됨	전체
전 체(%)	10.4	37.5	27.7	24.3	100.0
(빈도수)	(99)	(356)	(263)	(231)	(949)

(5) 개인적 지원욕구

①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나 사회가 지원해야 할 중요한 것은 ‘취업알선(일자리소개)’과 ‘청소년 노동권 보호(고발센터운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취업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작업장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취업알선(일자리소개)’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어린 나이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경우에 사회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을 더욱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에서 ‘많은 일자리마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자가 남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표IV-16>에서 아르바이트의 기회가 적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았던 것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많이 개발하여 소개하고 그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42>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

		취업알선	청소년 노동권보호	많은 일자리마련	사회인식 변화	임금인상	전체
전	체(%) (빈도수)	38.0 (297)	32.0 (250)	21.3 (166)	7.3 (57)	1.4 (11)	100.0 (781)
성별 ¹⁾	남자	38.3	33.0	19.7	7.3	1.7	100.0
	여자	37.2	30.8	23.7	7.4	1.0	100.0
교육 정도 ²⁾	초등 졸업이하	47.4	21.1	21.1	10.5		100.0
	중등 졸업이하	43.8	28.8	20.1	6.1	1.3	100.0
	고등 졸업이상	30.6	36.2	23.0	8.5	1.7	100.0

1) $\chi^2=2.516$ $P<.642$ 2) $\chi^2=15.512$ $P<.05$

② 개인적 요구 사항

현재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에서, '충분한 여가시간과 취미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것은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시간에 쫓기며 각박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다. 다음으로는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취업정보센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2.8%로 뒤를 이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취업을 하는데 제도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취업정보센터를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만큼 여자가 취업을 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43> 개인적 요구사항(현재 필요한 것)

		검정고시준 비워한도움	복교/ 진학정보	취업정보 센터	취업관련 직업훈련	경제적도움/ 후원자연결	충분한 여가시간/ 취미활동
전	체(%) (빈도수)	39.6 (375)	43.7 (410)	52.8 (497)	46.1 (433)	49.7 (468)	65.1 (614)
성별	남자	38.8	43.4	50.4	44.8	49.9	64.1
	여자	40.7	44.3	56.6	48.1	49.6	66.8

6) 아르바이트 직종별 교차분석 결과

(1) 아르바이트 직종에 따른 유해성 인지도

아르바이트의 유익성 여부와 현재(또는 최근)에 경험한 아르바이트의 종류를 교차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 경우와 해롭다고 하는 경우 모두 ‘유흥업소 서빙 및 접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전혀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IV-44> 아르바이트 직종에 따른 유해성 인지도

		전단 지	패스트 푸드점	24시간 편의점	상점판 매보조	신문/ 우유배달	주유소	이벤트행사장 도우미
전	체(%)	11.3	9.3	2.7	4.3	1.7	7.5	1.4
	(빈도수)	(97)	(80)	(23)	(37)	(15)	(64)	(12)
유익성	유익함	11.4	9.2	2.9	4.6	1.9	7.5	1.5
여부	해로움	9.6	9.6		1.4		6.8	
		막노동 (건설/ 이삿짐)	유흥업소 서빙/접대	음식점 서빙	유흥업 소 호객	음식점 배달	기타	
전	체(%)	6.5	13.6	9.9	2.0	10.5	19.3	
	(빈도수)	(56)	(117)	(85)	(17)	(90)	(166)	
유익성	유익함	6.5	13.1	9.9	1.9	10.6	18.9	
여부	해로움	6.8	19.2	9.6	2.7	9.6	24.7	

아마도 ‘유흥업소 서빙 및 접대’를 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아르바이트의 종류에 비해 보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해롭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경험에 비추어 유흥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가 청소년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보수 규모와의 관련성

시간당 보수 중 가장 높은 3,000원 이상인 경우는 ‘유흥업소 서빙 및 접대’나 ‘음식점 서빙 및 배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가장 많

은 응답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신문, 우유 배달’이나 ‘전단지 돌리기’, ‘주유소’일은 보수가 낮은 편이며, 현재 또는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응답한 사람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표 IV-45> 아르바이트 직종과 보수규모

	전단지	패스트푸드점	24시간 편의점	상점판매 보조	신문/우유배달	주유소	이벤트행사장도우미
전체(%)	11.3	9.3	2.7	4.3	1.7	7.5	1.4
(빈도수)	(97)	(80)	(23)	(37)	(15)	(64)	(12)
시간당 보수							
1500원미만	12.8	5.1		7.7	7.7	5.1	5.1
1500-2000	21.1	8.9	4.4	1.1	2.2	12.2	
2000-2500	7.5	17.9	2.9	7.5	1.7	17.9	0.6
2500-3000	9.3	11.6	5.4	5.4		9.3	0.8
3000원이상	10.3	6.5	2.8	2.8	2.8	2.8	2.3
일당 보수							
5천원미만	22.5	7.5	5.0	5.0	2.5	10.0	
5천-1만원	4.7	8.7				2.2	2.2
1만원-2만원	28.6		4.8	4.8		9.5	
2만원-5만원	5.6	5.6		6.8		4.9	1.2
5만원-10만원	3.8	3.8		2.6	1.3	2.6	3.2
10만원이상	7.5		1.9	1.9		1.9	3.8
	택노동 (건설/이삿짐)	유흥업소 서빙/접대	음식점 서빙	유흥업소 호객	음식점 배달	기타	
전체(%)	6.5	13.6	9.9	2.0	10.5	19.3	
(빈도수)	(56)	(117)	(85)	(17)	(90)	(166)	
시간당 보수							
1500원미만	5.1	5.1	5.1	5.1	12.8	23.1	
1500-2000	2.2	6.7	11.1	1.1	3.3	25.6	
2000-2500	3.5	4.0	9.2	1.2	6.4	19.7	
2500-3000	3.1	11.6	14.7	2.3	16.3	10.1	
3000원이상	6.5	16.8	10.3	3.7	14.5	17.8	
일당 보수							
5천원미만	2.5	2.5	7.5		12.5	22.5	
5천-1만원	2.2	6.5	2.2		2.2	28.3	
1만원-2만원		19.0	9.5		9.5	14.3	
2만원-5만원	6.2	8.0	12.3	1.9	25.9	21.6	
5만원-10만원	32.1	23.1	2.6	2.6	10.3	12.8	
10만원이상	3.8	49.1	5.7		1.9	22.6	

또한 일당 보수가 5만원-10만원 또는 10만원 이상인 경우처럼 고액인 경우 대부분이 ‘유흥업소 서빙이나 접대’가 대부분을 차지해, 보

수 규모가 클수록 청소년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유해업소에서 하는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3) 아르바이트 직종과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작성하지 않은 경우 모두 ‘유해업소 서빙 및 접대’를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는 경우의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아마도 근로계약서를 가장 많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 ‘유해업소 서빙 및 접대’의 경우는 합법적인 근로계약서라기보다는 근로 수행시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기 위한 규정이나 보수지급 방식과 관련된 규정들을 명기한 계약서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가장 적게 하는 경우도 ‘유해업소 서빙 및 접대’로서, 이 경우는 청소년 고용이 원칙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많이 작성하는 경우는 ‘패스트푸드점’으로 나타났다.

부모동의서 제출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부모동의서를 가장 많이 제출한 경우는 ‘주유소’와 ‘패스트푸드점’이고, 가장 많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유해업소 서빙 및 접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IV-46> 아르바이트 직종과 근로계약

	전단지	패스트 푸드점	24시간 편의점	상점판매 보조	신문/ 우유배달	주유소	이벤트행사장 도우미
전 체(%) (빈도수)	113 (97)	93 (80)	27 (23)	43 (37)	17 (15)	75 (64)	14 (12)
근로계약서							
작성	72	128	40	16	40	96	32
작성안함	118	87	23	48	14	70	11
부모동의서							
제출	60	120	56	42	28	153	19
제출안함	129	82	17	44	14	49	13
	박노동 (건설/ 이삿짐)	유해업소 서빙/접대	음식점 서빙	유해업소 호객	음식점 배달	기타	
전 체(%) (빈도수)	65 (56)	136 (117)	99 (85)	20 (17)	105 (90)	193 (166)	
근로계약서							
작성	64	168	88	24	72	160	
작성안함	66	132	102	19	112	197	
부모동의서							
제출	56	69	83	14	97	204	
제출안함	69	159	106	21	107	189	

(4) 아르바이트 직종과 부당대우 경험

부당 대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아르바이트 직종은 ‘유흥업소 서빙 및 접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흥업소 서빙 및 접대’를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는 경우 응답자 40.2%가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유흥업소의 경우를 제외하였을 때,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든가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수와 관련된 부당대우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는 의외로 ‘패스트푸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당대우가 가장 적게 일어나는 경우는 ‘24시간 편의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7> 아르바이트 직종과 부당대우 경험

		전단지	패스트푸드점	24시간 편의점	상점판매보조	신문/우유배달	주유소	이벤트행사장도우미
전	체(%) (빈도수)	113 (97)	93 (80)	27 (23)	43 (37)	17 (15)	75 (64)	14 (12)
부당 대우 경험	임금체불/ 적게받음	85	99	25	54	20	73	20
	특별수당받 지못함	71	104	26	56	15	78	07
	다친경험	94	82	26	32	23	53	20
	성희롱/ 성폭력	73	49	24	37	49	73	37
		막노동 (건설/ 이삿짐)	유흥업소 서빙/접대	음식점 서빙	유흥업소 호객	음식점 배달	기타	
전	체(%) (빈도수)	65 (56)	136 (117)	99 (85)	20 (17)	105 (90)	193 (166)	
부당 대우 경험	임금체불/ 적게받음	76	178	96	14	99	161	
	특별수당 받지못함	78	160	104	30	141	130	
	다친경험	96	155	99	20	181	117	
	성희롱/ 성폭력	24	402	73	37	24	98	

2. 면접조사 결과분석

면접조사는 설문조사에서는 도출되기 어려운 사항들인 아르바이트 환경,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 욕구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면접대상은 현재 혹은 가까운 과거(대부분 1년 이내)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퇴생 20여명으로, 각각의 아르바이트 업종별로 분류해 각 업종별로 할당되도록 하였다. 조사는 1:1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한 명만 더 추가되어도 청소년들 스스로 서로 감시의 시선이 되어 면접조사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면접조사의 내용은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가족·친구관계, 중퇴경험·학력, 현재상황), 아르바이트 경험(경험한 직종·주 직종, 구직이유, 임금·근로조건, 일에 대한 만족도, 아르바이트 영향), 부당대우 경험(유형과 대처방식), 노동권 보호 관련 규정 인지도,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향과 시사점 등으로 구성되었다.³⁾

1) 면접대상자에 관한 일반적 사항

(1) 가족관계

먼저 면접대상자의 가족관계는 가족의 2가지의 특성을 구분해서 질문했다. 첫째, 가족의 정서적인 기능에 대한 질문으로, 각각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느끼는 부모와 형제자매에 대한 애착의 정도, 반대로

3) 면접대상자는 현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퇴생과 쉼터 등에 기거하며 중퇴 및 가출 이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혹은 최근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으로 표집되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면접조사내용이 해석되어야 하며, 중퇴청소년의 경우도 해외 조기유학의 경우나 자신의 꿈과 목표에 현재의 입시 위주의 교육이 필요없다고 판단해서 행하는 저항적인 의미의 중퇴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나 형제자매인 가족들이 느끼는 방향으로 질문했다.

두 번째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상 청소년의 상황과 정서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부모와 가족의 경제적인 지원과 미래의 지원의사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러한 가족의 기능은 상호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복합적인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

가족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퇴 청소년의 대부분이 초등학교를 전후해서 '부모이혼'을 경험했다. 이로 인해 부모로부터 경제적·정서적인 지원과 관심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가족구조적인 조건이 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중퇴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이혼 시 부양의 문제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상황이 대부분이었다.

대개 인터뷰한 청소년들이 부모이혼과 동시에 이주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주경험은 청소년들의 생활에 긴장감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의 문제를 낳게 된다. 타 도시에 있는 조부모나 먼 친척의 손에 형제자매들이 뿔뿔이 넘겨지거나, 아니면 부모 중 한쪽에 의해서 길러지게 되었다.

이렇게 부모이혼은 생활의 어려움, 또는 이주의 경험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낳는데, 이러한 조건에서의 긴장감이 아래의 응답내용에 잘 표현되어 있다. 첫 번째는 이혼 이후 엄마와 살게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조모 등 친척들과 살게 된 경우의 문제점이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로 집이 싫었어요. 엄마는 돈 버느라고 바빴어요. 가출하기 전에 엄마한테 언니랑 '독립한다'고 말했는데, 엄마가 인정을 안 해 주셔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 마음은 아예 작정을 하고 나오는 거죠(여-17세, 중 2퇴, 주 직종 : 분식집)."

"어릴 적에 이혼하셨나봐요. 엄마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친척들이랑 할머니랑 살았어요. 중1때 아빠가 재혼해서 어떤 여자랑 오셨어요. 저는 무척 반가웠는데, 아빠는 맨날 술만 드시고, 집에 오면 물건 다 때려부수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친구들이랑 다른 도시로 가출했어요(남-18세, 중 1퇴, 주 직종 : 각종배달)."

둘째, 한쪽 부모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비 등 경제적인 것들이 문제가 되었다. 물론 부모가 아닌 다른 부양자에 의해서 길러지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였다. 즉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비용인 학용품, 기타 잡지, 용돈과 생활물품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필요한 용품들은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서 사 달라고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집에 있기 싫었어요 아빠는 연락도 안 되는데, 아빠 고지서는 할머니랑 사는 우리 집으로 날라 왔어요 고지서 오는 날은 집에 있기 싫었어요 돈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친구 집에 가서 좀 있었어요(여-18세, 중 2퇴, 주 직종 · 주유소)."

청소년들은 가출과 관련된 이탈을 말할 때, '집에 안 들어간다'와 '가출'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쓰고 있었다. 먼저 '집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1차 거주지(즉 부모나 친척과 생활하는 집)에 24시간, 혹은 2-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말 그대로 일시적이고, 도피적인 가출형태의 원인은 부모 불화, 부모 이혼, 가정의 경제적인 곤란, 공부 기피, 우연한 외박, 재밌게 놀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집에 안 들어간다'고 할 때의 일시적-도피적 가출은 청소년들이 대개는 자신이 직면한 문제해결의 한 방식이거나, 문제 회피의 한 유형이 된다.⁴⁾

한편 '가출'은 준비를 하고 행하는 '기획가출'인데, 1주일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 이후, 친구들과 다른 도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등을 통해서 학교와 거주지를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완전히 집과 학교를 떠나는 '가출'은 대개는 '집에 안 들어간다'고 정의된 상태를 짧게는 한달, 길게는 몇 개월을 반복하다가 보다 많은 준비를 통해서 감행하게 된다.

4) '우연한 외박'을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이 매우 많았다 우연한 외박은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잊었거나, 놀다가 버스가 끊겨서 친구네 집에 가서 잤다던가 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중퇴 청소년들의 경우 이러한 완전한 ‘가출’ 이전에 ‘집에 안 들어간다’는 상태에, 다양한 ‘아르바이트’에 대한 많은 노하우가 학습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인터뷰를 했던 대부분의 가출 청소년들은 부모이혼을 전후로 해서, 가족구성원의 해체와 부모들의 경제적인 지원과 정서적인 친밀감의 부족을 경험했다.

이 결과, 친구들과 가출을 선택했고, 한번 가출한 경우는 대부분은 다시 가출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설령 다시 마음을 돌려서 되돌아간다고 해도,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과 조건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즉 일시적-도피적 가출 이후 되돌아간 집은 돈들이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곳, 즉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붙어 있어야 하는 곳일 뿐이다.

(2) 친구관계

먼저 친구관계는 중퇴 이전과 이후의 친구관계의 차이를 비교했고, 남녀의 친구관계의 차이점도 아울러 질문했다. 둘째, 친구관계 내부의 구분방식으로 질문했다.

첫째, 중퇴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친구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중퇴 이전은 ‘가출경험’을 공유하는 ‘가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중퇴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는 친구들을 주로 언급했다. 그러나 중퇴 이전과 이후의 시간구분과 무관하게 친구관계의 일관된 특징은 비슷한 가족조건과 생활조건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대부분의 중퇴 청소년들이 친구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들의 공통점은 부모 이혼의 경험과 중·하층의 생활수준을 들 수 있다.⁵⁾

중퇴 이전의 친구들은 ‘학교 친구들’과 ‘같은 주거지’의 친구들 2부

5) 부모이혼과 중·하류층 생활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인 것은 인터뷰 대상자들의 대다수가 가출과 쉼터 등 청소년보호시설에서의 경험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경제적인 이유와 정서적인 이유 모두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류가 대부분이었고, 이들과 가출 이전의 '집단생활상태'를 경험하다가 가출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즉 비슷한 부모이혼과 생활조건을 경험한 이들과 함께 비교적 자주 집을 비우거나, 생활의 간섭을 덜 받을 수 있는 한두 명의 청소년들의 집에서 공동생활하고 있었다.

"중1 때는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시는 집, 그런 친구 집에 가서 놀았어요 그러다가 맘 맞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다가 학교 안 다니는 언니들하고 그냥 가출했어요. 집에 다시 들어가기도 싫고, 친구들이랑 있으면 맘이 편했어요(여-18세, 중 1 퇴, 주 직종 : 티켓다방)."

한편 일시적-도피적 가출이 반복되다가 학교를 중퇴한 경우는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 많은 시간들의 대부분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냈다. 그러나 함께 가출한 친구들과 집단적으로 생활하다가 다시 이후에 완전히 집과 학교를 떠나는 형태로 '완전가출'을 하게 된다.

"주로 가출 같이 했던 친구들하고 친해요 아무래도 어려운 때를 함께 보냈잖아요? 함께 밥 먹고, 자고 그랬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다들 그냥 그래요 쉼터 들어오고부터는 자주 안 만나려고 노력해요 비슷한 처지고 그러니까요(여-17세, 중 3퇴, 주 직종 : 한식집 서빙) "

'일시-도피적 가출'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교우관계를 통해 쉼 방을 구해서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완전가출'에 대한 대비책인 '거주지'('썸 월세방', '고시원', '여관' 등을 공동구입)와 '생활비'에 대한 정보공유와 학습이 나이가 좀더 많은 언니, 오빠들, 즉 교우관계의 관계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가출이나 중퇴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는 남녀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남녀차이의 문제는 다시 '아르바이트'의 노동조건과 직종의 차이와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친구관계의 '관계망'의 차이라는 측면에서만 살펴보고 이후에 다른 항목에서 좀더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남녀 모두 청소년들이 가출이나 중퇴 등을 통해서 제일 먼저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는 문제이다. 가출 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은 공원, 공중화장실, 벤치 등을 배회하며 생활한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는 두산타워, 밀리오레 등 대형 의류상가가 밀집한 동대문 일대, 여의도 한강공원, 대학로 등 주로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 가출 청소년들의 집결지가 된다(한국일보, 2002. 11. 22).

그러나 청소년들은 이렇게 배회하면서 생활하다가 지치면, 대개는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려고 노력한다. 문제는 집(1차 거주지)을 나가 방을 얻기 위해서는 ‘보호자’ 등의 보증서 등이 필요했다. 남녀 청소년 모두 경우는 먼저 친구들 집, 싼 월세방, 그리고 숙식제공 일자리(주유소, 식당, 신문배달 등)에 취업하는 형태로 숙식을 해결했다.

그러나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는 쉽게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었는데, 다음의 인터뷰 내용은 그 전후 관계를 잘 알 수 있다. 즉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닌, ‘또 다른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처할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약간 위의 연배인 ‘아는 오빠들’ 혹은 ‘아저씨’ 등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매우 손쉽게 노동력의 착취나 성적인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다.

"일단 집을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먼저 돈을 얼마 벌어서 준비해 뒀다가 친구들이랑 싼 방을 얻어요 그러면 집을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만한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돈 떨어지면 너무 힘들어요(한숨) 그때 아는 오빠가 좀 편하게 돈 벌 수 있다고 일자리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게 '티켓다방'이었어요(여-17세, 중2퇴, 주 직종 : 티켓다방)."

남녀 청소년들은 좀더 윗 연배의 청소년들과 교류하면서, 가출할 때 생활정보인 거주지, 아르바이트,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해결의 정보와 노하우를 학습하거나 교환한다. 이러한 가출 청소년 집단 내부에는 나름의 질서가 있는데,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들이 이들 집단의 주된

경제적인 생활수단(보도방, 원조교제, 전화방(휴게텔), 터캣다방, 단란주점 등)의 주 자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우리가 가출할 때는 그냥 '갑'(동갑을 나타내는 은어)이랑 한 거죠. 처음에는 돈이 좀 있었어요 근데 금방 돈 떨어지니까 . 배도 고프고, 잠자리도 없어졌어요 일단은 좀 더 썩 방으로 다 같이 옮긴 후에, 다들 나가서 일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식집에서 일했어요 근데 한나절 일해도 30만원밖에 안 되고 . 그래서 아는 언니들, 좀 무서운 언니들인데 그 언니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잠깐 단란주점에서 일했어요(여-17세, 중 3퇴, 주 업종 한식집 서빙) "

공급형태도 여자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길거리 헌팅과 일자리 소개요구 등)에서부터, 윗 연배의 남자 혹은 여자 청소년들의 설득과 협박 등을 통해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었다. 윗 연배 청소년들이 아래 연배 청소년들을 억압하는 형태는 폭력이 많이 수반된다고 보다는, 함께 생활하다 보니 일종의 공동생활·경제단위의 문제해결방식이 대부분이었다.

둘째, 흔히 10대들은 자신들을 ‘범생이’, ‘중간’, ‘날라리(재학 중 날라리, 중퇴 날라리)’ 등 몇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⁶⁾ ‘날라리’는 공부를 잘하는 못하는 노는 것 하나는 확실히 하는 아이들을 말한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스스로 날라리들을 다시 학교 다니는 날라리들과 학교를 다니지 않는 날라리들과는 구분했다. 이 둘은 소비수준부터 생활습관, 말투 등 모든 것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아는 학교형이랑 어디 함께 가서 학교 안 다니는 형들 만났죠 학교를 다니는 형들과는 달라요 웃 입는 것부터 달라요 돈도 척척 내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웃으면서)어딘지 '어른' 같아서 좋아 보였어요(남-17세, 중 3퇴, 주 직종 식당 주방일) "

6) ①‘범생이’는 공부만 하는, 그래서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이다. 범생이는 최근 입시 위주의 체제에 순응하고 동조하는 파와,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지만 학교 밖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보해 놓은 파로 나뉘기도 한다. ②‘중간’은 공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는 아이들, ‘양아치’는 잘 놀지도 못하면서 노는 척 하는 아이들인데, 이 중간 층은 대부분 많이 감소해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를 다니는 날라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의 소비수준이 필요한데, 이들은 주로 부모에게 받는 얼마 안 되는 ‘용돈’을 통해 소비생활을 한다. 반대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날라리’는 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일정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중간’들과 학교를 다니는 ‘날라리’에게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날라리’들의 높은 소비수준은 빨리 어른이 된 듯한 느낌으로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중퇴 날라리 선배’는 일시적-도피적 가출이나 완전 가출 시, 청소년 내부 공동체에서 가출과 관련된 각종 학습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권력관계의 상층의 위치를 점하게 된다.

(3) 중퇴경험/학력

중퇴경험과 중퇴학력을 알아보기 위해 첫째, 중퇴 이전의 학교생활, 즉 선생님과의 관계, 공부에 대한 관심 등을 질문했다. 둘째, 아르바이트의 여부가 중퇴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자퇴 이후 다시 학교에 돌아갔을 때 겪었던 경험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중퇴경험과 학교생활을 알아보기 위해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어떤 상태였다고 생각했는지를 질문했다.

"그냥 별다른 이유 없어요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학교는 재미없잖아요? 애들하고 놀다가 하루를 안 갔거든요. 다른 날도 알바 갔다가 놀다 보니까 학교에 못 갔어요. 친구네 집에서 살게 되니까 학교 간 날이 안 간 날보다 적어져서 선생님도 찾아오고 그랬는데요 그 날은 이미 제가 집에 없었죠(웃음) 이미 가출한 다음이었죠(여-18세, 중 2퇴, 주 직종 : 주유소) "

대부분의 중퇴 청소년들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일은 좋아했다. 공부에는 그다지 높은 관심은 없었지만 공부의 필요성, 정확하게 말해서 ‘졸업장’의 필요성은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는 싫으나 졸업장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방식

은 다음과 같다.

아침에 약간 일찍 학교에 가서 출석을 부르고 나면, 1-2교시 수업 시간에는 잠을 자다가, 학교를 나와서 놀다가 다시 종례시간에 학교에 들어가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해도 대부분의 중학교 선생님들은 눈감아주고 있다고 학생들은 말했다. 그러나 학교 자체를 매우 재미없거나, 심심한 곳으로 정의했다. 청소년들은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나 통제 가능한 학생들인 이른바 ‘범생이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둘째,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중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인터뷰를 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늦잠을 자서 학교에 늦거나,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일찍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도 있었다. 심지어 일부 청소년의 경우는 나이를 속인 상태로 초등학교 고학년인 5, 6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⁷⁾

"아르바이트요? 학교보다 재미있었어요 모르는 것도 배우고,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아무튼 학교보다는 아르바이트하는 게 덜 심심했어요 학교에서는 아무리 잠자고 해도 수업시간이 가질 않았거든요. 근데 아르바이트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다 가버려요 일할 땐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돼서 좋아요(남-19세, 중 1퇴, 주 직종 기계제작공장)"

즉 아르바이트 자체가 중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용돈, 소비생활유지 등)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그 이후 학교생활과 공부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돈을 버는 일에 들이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인성이나 전인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보다는 공부와 입시를

7)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업허가증이 있어야 취업이 가능한 13-15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율은 34.9%, 13세 미만 청소년의 경험율도 8.3%에 달했던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표 IV-19 참조).

중심으로 한 학교생활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재미없고 따분한 학교생활과 공부를 대체할만한 여타의 다른 '시간 보내기'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청소년기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잊을 수 있는 이른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도피성 시간 보내기로 활용되는 측면도 매우 강했다.

셋째,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일시적인 가출을 하다가, 부모나 선생님들, 그리고 경찰에 의해서 쉽게 잡히고, 이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다시 돌아간 학교의 상황은 몇 개월 사이에 달라져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해서 '가출'과 '비행' 때문에 얻게 된 '문제아'라는 낙인으로 인해서 그나마 재미없었던 학교생활에서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지게 된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도 그래요. 그찮아요? 의무교육이니까, 중졸이라도 되어 된다고 하잖아요? 담임이 다른 선생님 앞에서는 진짜 잘 해주는데. 막상 둘만 있으면 선생님은 눈빛이 달라져요(정그림) 귀찮아하는 표정을 지어요 그 눈빛 보면 다시 학교 가기 싫어요. 그냥 자퇴하는 편이 나아요(남-17세, 중 3퇴, 주 업종 : 식당주방일) "

즉 청소년들은 다시 돌아간 학교에서 더 큰 부적응과 재미없음 등으로 표현되는 '변하지 않은 따분함'만이 재차 반복될 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다시 돌아간 중학교에서 어떻게든 '수업일수'를 채워 '졸업장'만이라도 따야 한다는 선생님들의 강요와 위협은 아이들에게 너무 괴로운 현실이었다. 요컨대 먼저 중퇴를 경험한 학생들의 경우 대개는 공부와 학교생활을 재미없어 했고, 이로 인해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다. 둘째, 아르바이트 자체가 중퇴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공부와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할만한 '시간 보내기'를 위해 필요한 '용돈마련'의 수단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셋째, 중퇴 이후에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경우도 따분한 학교생활과 선생님의 태도로 인해 한층 더 부정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재차 중퇴하게 된다.

<표 IV-48> 면접대상자에 관한 일반적 사항 (성별: 여)

	연령	가족관계	교우관계	중퇴경험/ 학력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까지의 경험 직종	주 직종/ 근무조건
1	17	부모이혼, 조모와 생활	가출, 알바 친구들	중1퇴/ 고입검정	전단지, 식당, 미용보조원	미용보조원/ 50만원 11-8시
2	17	부모이혼, 언니가출	가출, 알바 친구들	중2퇴/ 고입검정	분식집, 커피숍, 빵집, 원조교제, 전화방	분식집/ 70-80만원 10-7시
3	18	부모이혼, 조모와 생활	쉼터친구들	중2퇴/ 고입검정	신문배달, 주유소,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주유소/ 시급2,300원 9-6시
4	19	부모이혼, 가족해체	쉼터친구들	중2퇴/ 고입검정	각종배달, 주방일, 전단지 등	배달·주방일/ 숙식+30만원 한나절
5	17	부모이혼, 동생가출	학교친구 가출친구들	중3퇴/ 고입검정	신문배달, 한식집, 노래방(보도), 전화방	한식집 싸빙/ 월급30만원 5시간
6	17	부모별거, 언니가출	가출친구들	중2퇴/ 고입검정	한식집, 티켓다방, 단란주점	티켓다방/ 150만원 주·야간교대
7	16	부모이혼, 조모와 생활	아르바이트 친구들	중1퇴/ 고입검정	노래방도우미, 전화방, 단란주점, 주유소	노래방도우미/ 일당10만원 저녁타임
8	18	부모이혼, 부만 연락됨	쉼터친구들	중1퇴/ 고졸검정	티켓다방, 술집, 갈비집 등	티켓다방/ 월급150만원 하루종일
9	19	부모이혼, 부 재혼	쉼터, 학원 친구들	중1퇴/ 고졸검정	커피숍, 레스토랑, 유흥업소, 원조교제 등	유흥업소전반/ 3-4백만원 하루종일
10	17	부모별거, 연락두절	쉼터, 알바 친구들	중1퇴/ 고입검정	주유소, 전단지, 식당, 주방일, PC방	PC방 카운터/ 58만원 9-4시

<표 IV-49> 면접대상자에 관한 일반적 사항 (성별: 남)

	연령	가족관계	교우관계	종퇴경험/ 학력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까지의 경험 직종	주 직종/ 근무조건
1	19	부모이혼/ 모와 생활	가출, 알바 친구들	중1퇴/ 고3재학	각종 배달, 주유소, 커피숍, 웨이터, 기 계제작공장 등	기계제작공장/ 60-70만원 한나절근무
2	18	부당노병/ 모 차킨집, 동생가출	가출, 알바 친구들	중1퇴/ 고2재학	각종 배달, 자동차부 품 조립공장 등	각종배달/ 150만원 9시간근무
3	19	부 사망, 모 유흥업소 동생가출	가출, 알바 친구들	중1퇴/ 수능예정	주유소, 배달, 써빙, 안마시술소 등	안마시술소/ 200만원 24시간 근무 숙식제공받음
4	18	부 재혼, 모 사망, 조모와 생활	가출, 알바 친구들	중1퇴/ 고3재학	각종 배달, 전단지, 주유소 등	각종배달/ 120만원 9시간 근무
5	17	부모이혼, 부재혼, 고모와 생활	윙터, 알바 친구들	중3퇴/ 고입검정	전단지, 신문배달, 온라인게임무기판매, 식당주방일 등	식당주방일/ 60-70만원 한나절
6	16	부모이혼, 친척과 생활	가출, 알바 친구들	중2퇴/ 고입검정	전단지, 신문배달 등	전단지배포/ 장당 25원 한나절 소요
7	17	부모이혼, 가족해체, 조모와 생활	가출, 알바 친구들	중2퇴/ 고입검정	주유소, PC방, 편의 점, 배달, 주방일 등	배달·주방일/ 150만원내외 9시간 근무
8	17	부모이혼, 가족해체, 조모와 생활	가출, 알바 친구들	중2퇴/ 고입검정	전단지, 철거작업, 신문배달, 일반공장	일반공장/ 70만원 8 30-7:30
9	18	부모이혼, 친척과 생활	가출, 알바 친구들	중2퇴/ 고입검정	전단지, 주유소, 카페서빙, 티켓다방 보도, 호스트바 등	호스트바/ 일당10만원+a 저녁근무
10	18	부모이혼, 연락두절	가출, 알바 친구들	중1퇴/ 고입검정	커피숍 써빙, 나이트 빠끼, 웨이터 등	나이트웨이터/ 기본120만원+a 저녁7-새벽3시

(4) 현재상황

중퇴한 청소년은 대부분은 가출 이전과 이후, 그리고 다시 범죄 등을 이유로 쉼터 등 청소년보호시설로 보내지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이 3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가족관계, 친구관계, 그리고 학교관계 모두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 변화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50> 가출(중퇴)이전과 이후 집단생활 사이의 변화내용

	가출(중퇴) 이전	가출(중퇴) 이후	쉼터 및 집단생활
가족관계	· 부모이혼/ · 가족해체경험	· 타도시로의 가출생활 · 가족과 연락두절 · 일부 가족과는 연락 (부모 중 한쪽, 형제자매 중 하나)	· 일부 가족 혹은 가족 전부와 연락, 가정으로 복귀 · 쉼터 혹은 또래들과 집단생활 지속
	↓		
	· 거주지 구성원 변화		
	↓		
친구관계	· 친척들과 생활	· 가출친구들 · 아르바이트 친구들 · 형, 언니들의 소개에 의한 친구들	· 쉼터 친구들 · 검정고시나 기타 학원 친구들 · 이전 친구들과도 일부 는 교류
	· 학교·거주지중심 비슷한 생활조건 친구들 · 학교에 무관심한 친구들		
학교관계 혹은 학력	· 선생님의 무관심 공부와 학교생활 담당함	· 학교나 학력에 대한 준비는 거의 없음	· 학교복귀 혹은 다시 중퇴 · 대부분 검정고시 준비

첫 번째 시기인 가출과 중퇴 이전과 이후, 그리고 쉼터 및 집단생활에 따라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학력의 상태는 변화된다. 먼저 가출과 중퇴 이전의 경우, 부모이혼이나 가족구성원의 해체를 경험한다.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함께 생활하는 가족구성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가족과 생활의 변화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친구관계를 더욱 의존적으로 만들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와 학력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줄어들게 된다. 이 시기에도 아르바이트는 계속 하고 있으나, 아르바이트가 학교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경우는 드

문 편이다.

두 번째 시기인 중퇴와 가출 이후의 시기는 가족과 더욱더 멀어지는 시기이다.⁸⁾ 먼저 중퇴하고 나면 매일 등교하던 학교를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출상태와 시간제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전일제 아르바이트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다시 가출에 이르게 되면, 가족과는 연락이 끊기고 되도록 부모나 경찰 등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아닌, 타도시로 이주하게 된다. 이주는 주로 농어촌에서 도시로,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의 이동하며, 이때는 가출집단을 지어서 이동하며 이들은 일종의 경제공동체로 변하게 된다. 경제공동체의 성격을 띤 가출집단에게는 아르바이트나 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가 공유된다.

세 번째, 쉼터나 가족에의 복귀 혹은 그대로 집단생활의 시기에 부모 중 한쪽, 혹은 가족구성원의 일부와 연락하게 되고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원조도 수반된다. 쉼터나 검정고시학원, 그리고 이전에 가출집단 친구들이 주된 교우관계이지만, 성인을 위한 준비를 해야할 시기이기 때문에 가출집단 친구들은 스스로 경계하는 태도를 지니기도 한다. 학교에 다시 재입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여전한 학교와 더 심해진 선생님의 태도에 대부분 재차 중퇴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중퇴 청소년들은 졸업장 등 학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공부에 대한 흥미나 혼자 공부하는 방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학원을 다녀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얻게 된다.

8) 중퇴·가출을 전후로 부모·가족의 관심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때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무관심한 상태로 일관된 경우가 많았다.

2) 아르바이트 경험

본문에서도 제시된 바 있으나,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법적, 제도적, 사회적 여건 등이 열악하고,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전문성, 비지속성, 낮은 임금수준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심층면접을 통해서도 이러한 아르바이트의 열악성과 비연속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한 특성들이 잘 드러났다.

2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이 경험한 아르바이트는 성인의 직업세계처럼 직종별 명확한 구분이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속성처럼 비전문성, 낮은 임금수준은 아르바이트 기간을 지속적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경험한 직종을 현재까지 경험했던 직종 모두와 주로 경험한 직종을 구분해서 질문했다. 실제로 응답한 내용을 살펴봐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5-6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자신에 맞는 일을 스스로 찾거나, 혹은 청소년들끼리의 '정보교환'(내부의 서열과 선후배관계를 동원한)을 통해서 주로 경험하게 되는 직종으로 수렴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인터뷰를 통해 볼 때 아르바이트 직종은 전단지,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상점판매, 각종 배달, 막노동, 유흥업소 등 10개 내외의 직종으로 한정된 심한 '비대칭성'을 띠고 있었다. 본 절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한 면접내용을 ①성별로 본 아르바이트 직종과 임금의 차이, ②10개 내외의 직종별로 구분한 각각의 직종별 구직경로, 임금수준, 근로조건, 부당해고 등의 특징, ③직종별 아르바이트의 부당대우와 아르바이트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한다.

(1) 성별로 본 직종과 임금차이⁹⁾

면접 대상 청소년들이 경험한 아르바이트를 성별을 구분하여 각각의 직종과 임금차이를 기준으로 아래의 표에 제시해 보았다.¹⁰⁾

표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남녀간의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나가 팔 수 있는 교환가치는 크게 육체적인 힘을 이용한 ‘육체노동력’과 자신이 가진 몸을 ‘상품화’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여자 청소년보다 육체적인 노동력의 쓰임이 많기 때문에, 육체노동의 경우 남자 청소년의 임금수준이 더 높았다. 예를 들어 똑같은 식당 배달 일의 경우도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일이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직접 손으로 들고 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남자 청소년들의 특징 중의 하나는 온라인게임(리니지, 디아블로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온라인게임 상에서 사용하는 각종 ‘무기들’을 사고 파는 형태의 아르바이트도 게임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아르바이트 중 하나였다.

반대로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표의 하단부분의 아르바이트 직종은 여자 청소년의 몸을 스스로 혹은 남자 청소년 혹은 성인을 매체로 하여 상품화하는 직종의 임금수준이 제일 높았다.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여자 청소년들과 중퇴 이후 함께 생활하면서 일종의 집단생활을 시작하는데, 이에 필요한 생활비와 유흥비를 그 집단, 혹은 다른 여자 청소년집단을 물색해서 가장 나이가 어리고,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여자 청소년들을 집단으로 팔아 넘기는 식인 ‘여자알선(탕치기, 납치 등)’을 통해 해결한다.

9) ‘직종별 임금 및 근로조건’은 현재까지 경험한 직종과 주로 경험한 직종을 모두 기술하되, 주로 경험한 직종에 대해 보다 자세히 질문되었다.

10) 참고로 임금은 월급 혹은 시급제로 할 경우 약간의 지역적, 각 업체별 차이가 있으나 대개는 일반적으로 일치되는 평균수준을 따랐다.

<표 IV-51> 성별로 본 직종과 임금차이

남자	임금			여자	임금
전단지	장당 25원	↓	↓	전단지	장당20-25원
신문배달	월15-40만원	↓	↓	신문배달	월15-30만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시급2,500내외 월30-50만원	↓	↓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시급2,500내외 월30-50만원
PC방	월50-60만원	↓	↓	PC방	월40-50만원
각종 막노동 공장노동	월70-80만원	↓	↓	미용보조원 등 보조노동	월50-60만원
주유소	시급 3천5백원	↓	↓	주유소	시급3,000원
식당주방일	월80-90만원	↓	↓	식당배달 서빙	50-70만원
온라인게임	100만원 내외	↓	↓	식당주방일	80만원 내외
식당배달일	120만원 내외	↓	↓	커피숍·노래방	100만원 내외
나이트웨이터	200만원 인상	↓	↓	티켓다방	150만원 내외
호스트바	200만원+a	↓	↓	단란주점	200-300만원
보도방	성과급제	↓	↓	원조교제	건당 5-50만원

임금수준 상승

몸의 교환 가치 상승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는 PC방, 전화방 등에서 진행되는 ‘채팅’과 ‘전화팅’을 통해 ‘원조교제’(연령에 관계없이 대가성 성행위 모두 포함)의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가 가장 손쉽고, 얼마이지 않는 고액의 수입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였다.¹¹⁾ 물론 남자청소년의 경우도 호스트바 등 스스로 혹은 성인 등을 통해서 강제로 상품화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자 청소년의 신체적 상품화만큼 활발하지는 않은 듯 하다.

(2) 각 직종별 구직경로 · 임금수준 · 근로조건 · 부당대우

① 전단지 돌리기

전단지(혹은 ‘찌라시’, 벽보 · 스티커 붙이기 등을 포함) 돌리기의 경

11) 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 원조교제는 단란주점이나 티켓다방 등과 비교할 때, 업주에게 미리 떼이는 각종 명목의 돈이 없다는 장점과 그때그때 돈이 필요할 때면 언제, 어디서나 만남이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도 아울러 가진다고 설명해 주었다. 또한 받을 수 있는 돈도 5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 만날 때 협상을 잘 할 경우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덧붙였다.

우는 대부분의 중퇴 청소년들이 중퇴 이전에 한번씩은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아르바이트였다. 전단지를 돌리는 일은 전단지를 직접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 전단지나 식당메뉴 등을 주택 혹은 아파트에 넣거나 붙이는 일, 그리고 불법 대출·사채 전단지를 승용차에 끼우는 일 등 다양했다.

첫째, 구직경로는 대부분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서였고, 아니면 직접 전단지를 돌릴 법해 보이는 식당이나 상점에 직접 찾아가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면 대개는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다. 전단지 돌리기는 20여명의 심층면접 대상 청소년들이 대부분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대개는 초등학교 5-6학년 때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PC방비 마련, 컵보드 등의 구입을 위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주로 5, 6학년 초등학교생들이 동네 피자집이나 부동산중개업소 광고전단지를 돌리는 일을 주로 했다고 한다.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청소년들이 학교를 빠지는 일마저 있다(문화일보, 2001. 11. 29 참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했어요 전단지는 첨에는 힘들어요 한 장당 25원이예요. 돈도 얼마 안되고 일단 주변 지리를 익혀야 되고, 겨울철 같은 때는 힘들어서 죽어요(남-16세, 중 2회, 주 직종 : 전단지) "

둘째, 임금수준은 장당 25-30원으로 정해져 있다. 대개는 100-300장 정도를 돌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개 2-3시간 정도이고, 이럴 경우 시간당 5-6천원 정도의 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해 받기도 한다.

셋째, 근로조건은 학교를 다니면서, 혹은 학교 방과 후 잠깐 몇 시간 돌리는 형태로 작업한다. 때로는 2-3일 혹은 일주일 정도 고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잠깐 몇 시간 아르바이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을 마친 후 청소년들은 그 돈으로 PC방으로 가거나, 옷을 사는 등 아르바이트는 일시적인 용돈마련의 한 방법이었다.

"대출·사채하는 전단지를 돌리는 건데요 경찰 뜨면 막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돈을 많이 썼어요. 지금은 그런 일자리 찾기 힘들어요(여-17세, 중 1퇴, 주 직종 전단지) "

전단지를 돌릴 때 부당대우 경험은 대개는 전단지를 제대로 돌렸는지를 여부를 묻는 상점 주인과의 실랑이에서 비롯된다. 전단지를 돌리는 일은 일에 비해 받는 돈이 적고, 또 나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단지를 돌리지 않고 일부 혹은 전부를 그냥 버려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단지를 다 제대로 돌렸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주인이 동행하거나, 혹은 다 돌렸다고 하는 등 청소년의 거짓말이 발각될 경우 주인에게 맞거나, 욕설을 듣는 경우가 있다.

② 신문배달

신문배달의 경우 구직경로는 생활정보지, 각종 벽보, 신문, 친구소개 등이다. 임금수준은 월 20-30만원 내외가 대부분인데, 신문배달의 경우도 남자의 경우가 육체적으로 강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의 이용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받는다. 임금은 월급이긴 하나, 한 부에 1,300~1,500원, 한번에 돌리는 부수는 약 200부 정도인데, 배달 부수에 따라 약 5-10만원 내외의 차이가 있다.

근로조건은 새벽 4-6시 사이에 신문배달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새벽에 1시간 30분 정도 내외의 시간에 이루어진다. 또한 임금과 별도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어렵거나, 가출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임금수준을 20-30만원 정도로 하고, '신문배달 기숙사'를 이용하도록 알선해주는 신문보급소도 있다고 한다.

인터뷰를 진행했던 청소년들의 경우, 2명중에 한 명은 신문배달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달 이상 지속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는데, 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이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부당대우 경험은 크게 응답되지 않았지만, 다만 신문배달의 경우도

6개월 정도 지속했던 경험이 있었던 한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여러 가지 신문배달의 애로사항을 지적했다. 비오는 날, 추운 겨울날 등은 신문배달의 악조건이라고 덧붙였고, 우유배달과 비교해서 신문배달이 더 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각종 광고지(속지)를 신문사이에 끼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1시간 정도이고, 한 달에 한번씩 ‘지로용지’를 끼워서 돌리는 일도 쉽지 않다고 한다.

③ 패스트푸드점 ·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의 구직경로는 대개는 매장 앞에 붙어있는 모집 포스터 등을 통해서이다. 16세 미만일 경우는 ‘부모동의서’, ‘보건증’, ‘주민등록등본’ 등 모두 지참해 가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로 고등학생 이상의 나이가 주로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은 시급 2,000~2,500원으로 대부분의 업계는 비슷하고, 아무리 많아도 3,000원 미만이다. 시간은 일인 기준으로 최소 4시간에서부터 매니저 급은 최대 8시간까지 할 수 있다. 한 업계의 경우는 2,100원에 시작해 6개월마다 임금인상의 기회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일하는 청소년은 매우 드물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매장이 끝나고 나서 새벽에 1-2시 사이에 진행되는 청소와 뒷정리를 ‘클로징’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개는 남자 청소년만 하는 매우 힘든 일이다. 편의점의 경우도 야간(24시~7시)의 경우가 시급이 좀더 높고, 식대, 야식비 등도 받을 수 있다. 패스트푸드점 ·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돈 계산’과 주인이나 점장, 그리고 손님과의 관계에 있다. 돈계산이 잘못된 경우 대개는 그 시간을 담당했던 청소년이 부족분을 보상하는 것이 관례이고, 주인이나 점장이 돈 계산 내역을 의심할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손님과 관련된 문제는 친절하지 못했거나, 주문내역을 잘못 알아들었을 때, 그

리고 야간에 근무할 경우는 술취한 손님이나 여러 가지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등의 위험도 존재한다.

④ PC방

PC방의 경우도 구직사이트, 생활정보지, 아는 선후배를 통한 소개 등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된다. PC방의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은 매니저의 경우는 시급 4,000원, 일반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시간당 1,800원에서 2500원 정도이다. 하루에 7-8시간 정도 일하면, 월급으로 40만원 내외가 된다. PC방의 경우도 편의점처럼 '야간시간'에 일할 경우, 여기에 얼마간의 보너스와 식대 등이 보태진다. PC방 일은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컴퓨터, 재떨이, 각종 스낵과 커피자판기 체크 등을 한다. 그리고 컴퓨터를 잘 다루거나, 고칠 경우는 약간의 보너스도 포함이 된다.

"제가 하는 PC방은 좋아요 하루 종일 있으면 담배 연기가 좀 괴롭긴 해도 그래도 좋아요. 제일 힘들 때는 돈 맞추는 일이에요. 가끔 사장님이 절 의심하는 것 같은 눈초리로 볼 때하고... 요즘은 초등학교생들이 와서 장난칠 때가 제일 짜증이 나요 (여-17세, 중 1퇴, 주 직종 PC방 카운터)."

야간의 경우는 남자를 선호하는데, 이는 술 취한 손님 등이 말썽을 부리는 일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는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자를 더 선호하기도 한다. PC방 내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 예를 들면 워드프로세서를 잘 모르는 나이든 손님들의 워드 작성이나 더 어린 청소년들의 숙제 등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얻는 약간의 부수입도 일부 있을 수 있다.

⑤ 공장노동·각종 막노동

공장이나 각종 막노동(공사장, 철거공사 등) 등의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생활정보지, 아는 선후배를 통한 구직, 그리고 일손이 딸리는 거

주지 주변의 크고, 작은 공장을 찾아가 직접 일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 전일제로 일할 경우와 시간제로 일할 경우가 나뉘어 있다.

공장 아르바이트의 보수는 시급 4,000원 내외로 매우 높은 편이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전일제처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야간이나 휴일수당 등이 지급되기 때문에 한 달에 100-150만원 정도로 비교적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한 청소년의 경우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전일제로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고, 재미도 없었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하다가, 이후에는 시급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실제로 집안 사정이 어려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중퇴 이후 부모 등과 함께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매일매일 그렇게 일 하기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욕심껏 오래하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힘들고, 반복되는 일이라서 그렇게 오래하기는 힘들어요. 재미도 없구요 기계 제작하는 일은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나마 재밌는 일인 것 같지만 . 공장 사장님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힘들긴 했지만 일하는 동안은 맘이 편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6개월 이상 계속 하기는 힘들어요(남-19세, 중 1퇴, 주 직종 기계제작공장) "

그러나 대개는 한달 이내에 그만두거나, 길어도 6개월을 넘기지는 못한다. 따라서 실제로 1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라기 보다는, 시급제로 진행되는 70-8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⑥ 주유소

주유소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시급 3,000~4,500원까지 각 지역별, 위치별로 다양했다. 국도변의 한가한 주유소는 시급 2,000~2,300원, 대부분의 직영주유소는 시급 2,300~2,800원, 세차와 주유를 같이 하는 주유소인 경우 시급 2,300~3,000원, 새벽에 일하는 경우는 시급 3000

원 이상이고, 서울쪽의 아주 바쁜 주유소는 낮에 일해도 4000원 이상이지만, 하루종일 서 있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래에 인용된 청소년의 경우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급이 높은 편에 속한다.

"주유소에서는 대개는 시급으로 3,500원씩 계산해요. 다른 알바에 비해서는 많이 받는 편이에요 미성년자니까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로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잘 해 주세요(여-18세, 중 2퇴, 주 직종 주유소)."

주유소 야간의 경우는 70~80만원 정도인데, 오후 2시부터 12시 사이에 주로 진행된다. 야간의 경우는 야간수당도 지급되지만, 매우 고되기 때문에 숙식을 해결하려는 청소년이 아닌 이상 잘 하지 않을 뿐더러 '부모동의서'가 없을 경우는 더욱 구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출이나 중퇴 이후에 숙식제공을 원할 경우, 일이 힘들더라도 야간시간에 하는 주유소 일자리는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높다.

"주유소 일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아르바이트 중에서 편한 일에 속하지만, 서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손님 별로 없는 곳은 손님 기다리기가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요 주유하다가 제일 힘든 일은 요구(경품 등)가 많은 손님들이 따질 때 상대하는 거예요(여-18세, 중 2퇴, 주 직종 주유소)."

위의 인터뷰의 내용처럼 주유소 아르바이트의 경우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 혼이 나게 되는데 실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유차에 휘발유 넣는다거나, 연료캡을 안 닫아서 기름이 흘러서 다시 오는 경우, 돈 맞춘다고 하다가 기름이 흐르는 경우, 주유기총을 꼽아 놓아서 주유하는 기구가 부서져 버린 경우 등이다.

⑦ 식당주방일과 각종 서빙

식당주방일·서빙 등의 경우도 구직은 생활정보지나 포스터 등을 통해서 하게 된다. 식당 서빙의 경우는 하루 종일 일하면 50~80만원 정도 벌 수 있다. 주방보조의 경우는 주방에 잡일을 맡아서 하는데, 심

부름, 청소, 설거지, 야채손질 등이 주로 하는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 오전, 오후 시간을 나눠서 일하게 되며, 50만원 이상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배달 등도 함께 해야만 한다. 식당 주방일의 경우도 청소년이 주방일을 담당하기보다는, 주방보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당에서 일하는 일은 '밥순이'죠 대학생들이 방학 안 할 때, 우리 청소년들을 써요 식당은 나름대로 서열이 있잖아요? 우리는 늘 제일 밑이고, 그래서 이것 저것 심부름이 장난이 아니예요(한솔). 근데 식당 서빙으로 취직했는데도, 식당 아저씨가 자꾸 빼끼 같은 것도 시키고 그래요 자주 구박하고 아줌마 안 볼 때, 어깨 같은데 만지고 그래요(여-17세, 중 2퇴, 주직종 : 분식집) "

위의 인터뷰 내용처럼 식당에서 서빙이나 주방 보조를 할 경우도 대부분은 대학생들, 즉 '성인'의 일자리를 대신한다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하는 식당 아르바이트는 성인과 똑같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월급이나 대우 면에서 훨씬 더 조건과 상황이 나쁘다. 또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식당 내부의 위계서열 상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과 심부름의 양도 적지 않을 뿐더러, 인터뷰 내용처럼 식당 빼끼(즉 고객행위 등)도 쉽게 시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방보조의 경우 간단한 조리를 하다가 칼에 베이거나, 화상을 입거나, 부딪쳐 머리가 드는 등 여러 가지 부상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한 남자 청소년의 경우, 식당에서 일하다가 손목에 화상을 당했는데도 아무런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식당 주인은 한 2-3일 정도 쉬다가 나오라고만 했다고 했다면서 손목에 남아있는 화상의 자국을 보여주기도 했다.

커피숍, 호프집 등 각종 서빙일은 주로 밤 시간대인 밤 6시부터 새벽 2-3시 사이에 주로 이루어진다. 커피숍 등 서빙일도 주방일(커피나 기타 음식 만들기 등)이 우선시 되고, 보조적인 일이기 때문에 임금수

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 또한 이 경우도 남녀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남자의 경우는 대개는 마감시간 이후에 상대적으로 힘든 정리·정돈하는 일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시급은 3~4천원 내외이다.

"제가 했던 커피숍은요 아파트단지 옆이었거든요. 근데 장사가 별로였거든요 근데 시작하고 며칠 지나고 나서, 사장님이 우리(여자청소년 2명)를 불렀어요 자기가 잘 아는 손님들이 자주 오실 건데 그때 우리에게 신경 좀 쓰라고 그러셨어요 그날부터 자주 아저씨들이 오셨는데, 좀 그랬어요 여기저기 자꾸 만지려구 하구요(한숨) 그래서 그런 날은 우리도 잘 아는 오빠들 불러서 한쪽에서 놀게 했어요. 그럼 아저씨들이 그냥 술만 마시고 가고 그랬어요(여-17세, 중 2퇴, 주 직종 분식집)"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대개는 서빙일(청소, 주방보조를 포함)은 시간당 3,000원 내외의 시급이 대부분이다. 위의 인터뷰 내용처럼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낮시간에는 커피숍 등을 하고, 밤에는 간판을 내리고 단란주점 식으로 경영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점일 경우는 성적인 시중도 수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근무하는 시간대별로 임금차이와 보너스, 교통비 등이 지급되므로 같은 서빙 일이라고 해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⑧ 음식 등 각종배달

음식물 등 각종배달업무는 중퇴를 경험한 대부분의 남녀청소년이 경험해 본 직종 중 하나이다. 중퇴 이전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파르타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중퇴 이후에는 전일제 배달업무를 담당한다. 배달업의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은 성별, 근로시간, 그리고 식당 등의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먼저 음식 배달일은 남녀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남자의 경우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업무를 하고, 여자의 경우는 식당과 동대문 등 밀집한 지역에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달일은 배달 전에 준비(밀반찬, 수저, 통세척 등)를 한시간 가량 해야

한다. 또한 배달이 끝나고 나면 입금, 그릇수거 등에도 2-3시간 가량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자장면 배달은 힘들어요 가끔 짬뽕 국물 같은 거 흐를 때가 짜증나요(웃음) 그치만 배달일이 오토바이 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전 '원동기 면허'랑 '오토바이'도 가지고 있어서 일 구하기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끔 계산이 틀릴 때 주인이랑 실랑이하고 그래요 머리같은 데도 때리고 좀 그랬어요. 손님들도 음식배달이 늦으면 막 짜증내고 그래요(남-18세, 중 1퇴, 주 직종 : 각종 배달)."

남자의 경우는 대부분 오토바이를 타고 하는 중국집, 치킨집, 피자집 등 빠른 시간에 배달해야하는 음식점 배달이 대부분이다. 야간의 야식배달 등도 주로 남자청소년이 하는 일이다. 음식배달을 할 경우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고, 여기다 원동기면허를 소지했을 경우는 좀더 구직할 때 도움이 된다. 대개는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 120만원 내외의 월급(시급으로는 4천원 내외)과 배달 건수당 수당 등도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동대문 식당에서 잠깐 일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동대문 쇼핑센터에서 일하는 언니들이 밥 시켜 먹잖아요? 그런 식당에서 배달하는 건데 밤샘해서 일하는 거라고 돈은 좀더 주는데 갈 때 없어서 먹고 자면서 좀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한 한달 정도하고 나면 거의 죽어요 집에 오면 녹초가 되요(여-19세, 중 2퇴, 주 직종 : 배달 주방일) "

일반적인 배달일에 여자를 쓰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지만,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동대문 등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에 저녁식사나 야참 등의 경우 손님이 물리고, 배달 일도 많다. 예를 들면, 쇼핑타운이 밀집한 동대문지역의 경우에는 쇼핑센터 내의 여자판매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배달에 여자 청소년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⑨ 보도방

보도방은 단란주점과 유흥업소(나이트, 안마시술소, 여관, 전화방,

노래방, 다방, 단란주점, 이발소, 안마시술소 등)에 여성을 공급하는 일을 전문으로 한다. 보도방은 10~20명의 여성을 준비해 놓고 소위 '2차'를 강요하여 윤락행위를 유도해 그에 대한 수수료를 선불 등으로 챙기는 형태로 유지된다. 원래 '유료직업소개소'라고 칭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보도방 등으로 변질된 곳이 많다.

최근 '인터넷'의 구인·구직 사이트 등과 결합되어, 보도방에 대한 정보교류와 파급력은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 보도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와 업주를 돕는 남자들과 보도방의 도움으로 일을 하는 여성(청소년+20대 이상의 여성)으로 구성된다. 아래의 인터뷰 내용은 보도방에서 일하는 남자 청소년들이 어떻게 여자 청소년들을 데려와 '보도방'의 인력 수급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아는 선배가 신문보고 시간당 얼마씩 준다고 했어요, 다른 거에 2배 정도 되는, 돈도 많이 주는 '좋은 일자리'라고 해서 가봤어요 나쁜 거, 저는 성매매 쪽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채팅해서 한마디로 여자를 작업하면, 그 여자랑 놀다가 싫증나면 넘기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남-18세, 중 2퇴, 주 직종 : 호스트바) "

실제로 위의 인터뷰 내용처럼 가출한 상태에 있었던 여자청소년들의 경우는 비슷한 남녀 청소년들과 생활한다. 그럴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기타 윗 연배의 남자청소년들이 강요하거나,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에 윤락행위를 하는 이른바 '업소일'을 시작하게 된다.

한편, 남자 청소년끼리도 아래 연배의 남자 청소년을 납치하거나, 유혹해 '호스트바' 등으로 넘기는 일도 모두 '보도방' 등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제로 인터뷰를 했던 남자 청소년 중에서 호스트바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보도방' 관리자들과의 소개를 가장한 협박이었다고 한다. 이후에는 월급과 팁으로 얻는 부수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연상의 주부들과의 '원조교제'와 '호스트바'를 함께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보도방 등을 통해서 행해지는 부당대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

당공급되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업주 또는 범죄조직의 통제, 성매매 여성의 취업을 둘러싼 불법적인 선불금 관행, 업주·폭력배·남성고객 등에 의한 성매매 여성의 인권유린 문제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한국일보, 2003. 6. 18 참조).

⑩ 노래방도우미

노래방 도우미는 원래 카운터를 포함해 노래방에서 하는 일을 돕는 보조일을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 노래방 도우미는 함께 노래를 불러주고, 술을 접대하고, 때로는 2차까지 가서 성관계를 맺는 경우를 포함하는 일이다.

이전에는 주부들이 주로 했던 일로, 특히 IMF경제위기 이후 도우미로 일하는 주부들이 많아서 물의를 일으켰던 일로써, 이제는 업소들이 밀집한 지역이나 주택가 등의 노래방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되었다(대한매일, 2003. 2. 10 참조). 요즘은 10대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도 '단란주점'과는 조금 다른 이미지이기 때문에 한다고 대답했다.

임금조건의 경우는 시급 3만원 내외로, 일당으로 계산할 경우 팁(예를 들면, 노래방 점수에 따라 팁이 계산됨)을 포함해 최소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보통이다. 노래방이나 보도방 측에서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내는 등을 통해서 구인을 한다(문화일보, 2003. 5. 10 참조).

"생활정보지에서 봤어요 '노래방 도우미'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냥 카운터보고 도와주는 거라고 해서요 근데 출근했더니 바지입고 오지 말라고 하고, 아저씨들 있는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망설이다가) 좀 그랬어요. 남자들이 노래만 부르지는 안잖아요? 같이 일했던 애들 중에는 2차를 간 애들도 많았어요(여-16세, 중 1 퇴, 주 직종 노래방도우미)"

도우미는 각자 혼자 활동하는 도우미와 '보도방'을 통해 활동하는 도우미가 있다. 전자는 거의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주부들이고, 후자는 나이가 비교적 어린 10대 후반 전후로 잠깐 돈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는 노래방에서 전화를 받고 나면 출퇴근

을 도와준다. 이 대가로 '보도방'에는 2천원, 노래방에는 3천원을 지불해야만 하며, 보통 밤 9시부터 새벽1시에 많이 일하는데 새벽까지 일할 때도 있다.

⑪ 티켓다방·단란주점

티켓다방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보도방과 생활정보지, 청소년들 내부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서 구인·구직이 이루어진다. 티켓다방의 경우 대부분 서울을 제외한 중소 시·군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미성년자(이른바 '민짜')에 대한 단속과 감시가 비교적 소홀하기 때문이다. 티켓다방의 경우는 주로 농산물 출하 시기를 맞춰서 대량의 여자 청소년들을 데리고 보도방이 여러 도시로 이동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처음 집 나와서 이것저것 배달하고 하다가요 돈이 없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고... (한숨) 유료직업소개소 같은 데를 찾아갔어요 가니까 티켓다방에 소개를 시켜줘서 거기서 일했어요. 처음에는 100~200만원을 선불로 땡겨 받아요. 물론 옷이랑 핸드폰도 주고, 지각하면 5~10만원 이상 벌이 지고 나중에 불어나요 그럼 벌 갚으려고 그때부터 애들이 막 망가지는 거죠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버는데, 나중에는 몸도 많이 상하고, 벌도 생기고 그래요(여-17세, 중 2퇴, 주 직종 티켓다방)"

티켓다방의 일은 커피배달(기본 3인분 4,500원 내외)과 함께 티켓을 끊는지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후에 커피배달과 동시에 윤락이 행해진다. 식당-술집-노래방-2차 등으로 이어지는 티켓다방의 윤락행위는 전과정을 다 할 경우는 40만원 내외를 지불해야 가능하다. 임금은 1시간에 25,000원이고 다음 한 시간이 지나면 2만원이 되며, 소위 2차를 갈 경우에는 15만원 내외에서 돈이 결정된다. 노동시간은 주·야간조로 나뉘지는데, 야간의 경우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여자 청소년도 있었다.

⑫ 원조교제

‘원조교제’는 나이가 어린 여자 청소년과 나이가 많은 남자의 대가성 성관계를 의미했다. 기존 원조교제가 지속적인 면과 나이 어린 여자와 성인 남자의 성관계를 의미했던 것에 비해, 근래에 들어서는 더욱더 지속성 없이 진행되는 대가성 성관계 전반(청소년성매매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시기적으로 중퇴·가출 전후로 해 원조교제의 경험을 가지게 된다. 원조교제의 경우는 보도방 등에 메이지 않는다는 점과 단란주점처럼 술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언제든지 간단히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는 점 등의 장점을 지닌다.

더욱이 ‘인터넷’의 사용증가와 함께 다양한 채팅방식(음성, 전화, 채팅, 화상 등)의 증가와 대중화는 좀더 편하고, 꺼리낌없이 ‘원조교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아래의 인터뷰 내용은 여자 청소년에게 가장 쉽게,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의 응답이다.

"아무래도 '채팅알바'가.. ('채팅알바'에 대해서 다시 질문) '원조' 뭐는 거죠. 제일 쉽게 벌려요 화상채팅하다 만나서 하면 되잖아요? 단란주점도 술먹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다른 일보다 아무래도 원조교제가 쉬워요 한번할 때 기본이 10만원이에요 그리고 협상을 하면 돈을 높힐 수도 있어요. 가장 빨리 돈 벌 수 있는 방법이죠(여-19세, 중 1퇴, 주 업종 유흥업소 전반) "

원조교제할 대상자를 구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는 PC방에서 채팅사이트와 전화방 등을 이용했다(동아일보, 2003. 3. 3 참조).¹²⁾ 화상채팅의 경우는 낮밤 어느 때나 채팅사이트의 ‘채팅방’에는 단 시간내에 30-40여개의 채팅방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화상채팅방에서 사용하는 대화명은 ‘색녀’, ‘섹스조아’, ‘노라조’, ‘남친 구함’ 등

12) <동아일보, 2003년 3월 3일자, ‘PC방서 윤락거래 기승·유흥가 림살롱 주변선 ‘접대부 대기실’전략’> 혹은 PC방 내에서 어깨 너머로 채팅이나 바둑, 고스톱을 즐기는 ‘성인남성들’의 ID를 확인한 후, ‘썩지’를 보내 PC방 이용료를 계산해 준 이들과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으로 노골적이었다.

이러한 아이디어로 채팅방을 만들어서 음란물 등을 교환하거나,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등 원조교제할 수 있는 ‘약속’을 받아낸다(동아일보, 2003. 6. 10 참조). 다음의 심층면접 내용은 이와 같이 채팅과 전화방을 매개로 하게 되는 원조교제의 실상을 잘 드러낸다.

"집 나와서 친구들과하고 여관에 있다가, 돈 떨어져서 친구들이랑 언니들이랑 전화방 가서 원조교제 할 사람 기다리다가 약속이 잡혀서 만났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저랑 하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게 되었어요 옆에 있는 언니가 그냥 30분만 참으라고 했어요(여-17세, 중 2퇴, 주 직종 : 분식집) "

"전화방 전화하면 남자랑 전화를 연결시켜줘요 핸드폰으로 연결시켜 주면 만나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거기는 다른 그런 이야기만 해요. 확실히 전화방 대화는 좀 구려요(민망한 웃음) 단란주점보다 편하고, 엽메일 필요도 없고 자유로워요. 시간 있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면 되니까요(여-17세, 중 3퇴, 주 직종 : 한식집 서빙)."

이렇게 최근의 원조교제는 1990년대에 급속히 확산되었던 원조교제와 차이를 보인다. 먼저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여고생’에서 ‘여중생’ 중심의 업종으로 변화)은 성장이 빨라져 사춘기가 빨리 오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쉽게 성구매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문화일보, 2003. 3. 12 참조).

⑬ 온라인게임 아르바이트

온라인게임 아르바이트는 남자청소년들 사이에 현재 매우 유행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이다. 실제로 온라인게임들(리니지, 디아블로 등)의 경우, 기본아이템과 게임에 필요한 사항들(‘무기’, ‘장비’ 등으로 칭함)을 구입한 후, 다시 제작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재조정해서 게임을 하는 것이다. 하루 정액을 끊어서 작업을 시작할 경우 보통 얼마간의 온라인 화폐와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¹³⁾

13) 시간을 투자한 만큼 게임속의 캐릭터가 성장하며, 오랫동안 게임을 할수록 각종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고, 힘도 강해진다. 그래서 상대방을 압도하려면 오랜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중퇴를 하고 게임 속의 '사이버아이템'을 거래하는 아르바이트에 매달리는 남자청소년들은 PC방, 혹은 인터넷이 설치된 여관에서 사이버머니 및 무기·갑옷 등 다른 게이머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장해주는 사이버 아이템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부모명의를 도용해 통장을 만들어 한 달에 2-3백만원씩 거래액이 오고 가거나, '사이버머니'에 대한 입금만 확인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한편, 일부 남자 청소년들은 '집단적인 형태'로 온라인게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일종의 '직업'으로까지 인식하고 있다. 온라인게임에 능숙한 게임방 같은 장소에 모아놓거나, 감금시켜 놓은 상태로 하루종일 게임화폐를 모으는 작업을 시키는 것이다. 식사시간을 제외한 거의 하루종일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온라인 게임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월급으로 약 100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서 고가의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¹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아르바이트에 불법적인 성인들이 합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몇 년 전부터는 조직적으로 사이버머니를 만드는 '제조공장'이 등장했는데, 사채업자나 조직폭력배 등이 중퇴한 남자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유지한다. 10여명 남짓한 창고에서 컴퓨터와 소파, 간단한 샤워시설이 갖춰져 있고, 담배값·숙식비 등 각종 명목으로 이들의 월급을 갈취해 한 달에 3,0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조선일보, 2003 5. 30 참조).

"우리는 이걸 '장사 노가다'라고 불러요(웃음) 온라인게임 하다보면, 장비같은 걸 좀거나 만들 수 있거든요 부츠노가다, 엘름/레이피어노가다, 요판/파글노가다 같은 거 있어요 다 달라요 뭐 장사 밀천(게임상의 돈)이 들지요 얼마나 미친 듯이 매달리냐에 따라 달라요. 뭐 150만원 정도는 팁으로 작업하면 금방 벌어요. 근데 좀 인간의 삶이 아니죠(한숨)? 햇벌도 잘 못봐요 완전히 감금된 기분이에요(남-17세, 중 3퇴, 주 직종 식당주방일)."

14) 일부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는 감금생활과 같은 이런 작업실에서 도망가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다.

각 온라인게임 상에는 필요한 것들(아이템, 아텐 등으로 칭함)을 화폐처럼 사용하기 시작했고, 높은 아이템의 경우는 현금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점차 매매가 성행하게 되면서 시세가 평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100-200만원 사이의 고가의 아이템들이 거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¹⁵⁾ 이 정도의 고가(高價)로 온라인게임 관련 아이템들이 매매되고 있는 것은 캐릭터별, 옵션별로 아이템이 구별화되어 있을뿐더러 한꺼번에 모아서 고가로 판매하는 형태가 더욱 이익이기 때문이다(조선일보, 2003. 6. 16 참조).

3) 부당대우 경험과 대처방식

(1) 공통된 부당대우 경험

청소년들의 부당대우 경험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본래 특성인 비전문성, 비연속성과 그에 따른 각종 성격의 노동력 착취에서 기인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생들이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 업무상 재해 등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해를 입어도 정당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우 경험과 각 대처방식은 직종별 공통적인 경험내용과 차별적인 경험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고 응답한 부당대우 경험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많이 응답한 경우가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욕설과 청소년 비하 발언’이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인터뷰의 내용에서 보듯이 ‘중퇴’를 경험했거나, ‘가출’을 한 듯하게 보이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더욱이 이러한 욕설과 비하 발언의 경험이 많았다.

이러한 부당대우에 대한 대처는 대부분은 그냥 참는 등 소극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지속하기 위

15) 예를 들어 리니지의 경우, 1005, 즉 100만 아텐이 5만원 식으로 일정의 시세가 존재한다

해서는 그 정도 일이 일어나는 일은 자신이 어리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심하게 혼나거나, 꾸지람을 듣는 경우나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과 같은 가벼운 구타의 경험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게 되는 경우도 많다.

"다른 도시에서 알바할 때인데 가출했다고 하니까 돈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가출한 티가 나니까 그때부터 무시했어요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나봐요 한달 죽어라 일했는데도 30만원 밖에 못 받았어요 그럴 때 진짜 업소라도 나가고 싶어요(여-16세, 중 1퇴, 주 직종 노래방 도우미)"

둘째, 대개의 청소년들은 5-6개의 직종을 전전하다가 비교적 자신의 경제적, 상황적 요인, 또는 친구관계를 통한 정보에 의해서 오래 지속할 직종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임금체불의 문제'는 '미성년자'라는 문제와 불안정성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체불된 임금은 대부분은 받지 못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받으러 다니다가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노동부가 서울 등 6대 도시의 중. 고생 3,47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에 관해 설문조사를 2002년에 실시해 발표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41.3%의 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21.6%가 임금을 늦게 받거나 약속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등 계약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보수를 받았다는 비율은 18.1%로 조사됐다(경향신문, 2002. 12. 25 참조). 그런데 이런 경우 아르바이트를 한 달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아래의 심층면접 내용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월급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빵집에서 알바할 때였는데요 할머니가 너무 심하게 야단을 치셨어요 거의 한 달 다 일했는데 3일 안 나왔다고 한달 월급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친구가 가서 '민짜'(미성년자) 고용했으니까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어요(여-17세, 중 2퇴, 주 직종 분식집)"

한 남자 청소년의 경우도 ‘음식배달’을 하다가 월급을 받지 못하고 나온 경우를 설명했는데, 이는 상점 주인이 월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도 하고, 만나주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성희롱’의 문제이다. 특히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는 윤락 등 업소경험과는 거리가 먼 일반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성희롱과 심지어는 성폭력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심층면접 내용은 성희롱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여자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열악한 상황을 말해준다.

"한식집 같은 좀 큰 식당에서 알바하면요 이상한 아저씨들도 많고, 술도 팔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그래요 연젠가는 별로 손님 없을 때 술따라 달라고 하는 손님도 있었거든요 그럼 일단 사장님 눈치 보면서 적당히 따라주고 팁도 받고 그래요 안 그러면 좀 분위기도 썰렁해지고 웬지 저만 좀 뻔뻔하게 군다고 할까봐 그냥 그렇게 해요(여-17세, 중 3퇴, 주 직종 한식집 서빙)."

노동부의 2002년 9월말 통계조사에 의하면, 중·고교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정당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2. 12. 25 참조). 특히, 조사대상의 9.8%는 성적 농담을 듣거나 신체접촉으로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렇듯 만연된 성희롱에 대해서 ‘그냥 참았다’는 응답이 51.3%로 가장 많았고, 거부감을 표시하고 항의했다(32.7%), 일을 그만두었다(8%), 경찰서나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했다(3.6%),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다(3.5%)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종의 차이와 무관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심각한 성희롱 수준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성희롱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았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던 것이다. 심층면접에 응답했던 대부분의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 ‘성희롱’ 정도는 적당히 참아 넘겨야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직종별 부당대우경험

다음으로 위에서 언급한 공통된 부당대우와 이전에 직종별 아르바이트의 상황에 대해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직종별 부당대우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떤 직종이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부당대우 유형은 욕설이나 인격적 모독, 임금체불, 상해 및 성희롱 등이었다. 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신체적으로 격한 노동에 종사하거나 여자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매개로 성적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강했다.

직종별로 특수하게 나타나는 부당대우 경험도 다양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52> 공통된 부당대우와 직종별 부당대우의 경험

직종	직종별 부당대우	공통된 부당대우	
전단지	전단지 돌린 여부 검사시 문제	① 욕설 비하발언 ② 임금체불 ③ 상해 ④ 성희롱	↓ ↓ ↓ ↓ ↓ 임금 수준 상승 몸의 교환 가치 상승
신문배달	배달사고나 각종 상해에 대해, 보상이 미흡함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PC방	카운터 돈 계산 등 입출금 내역맞추기, 초과근로, 야간근로 중·상해		
각종 막노동 공장노동	초과근로, 상해시 보상 없음		
주유소	상해시 보상 없음		
식당주방일	각종 상해시, 병원비 등 보상 없음		
식당배달일	배달사고 등에 대한 임금삭감		
온라인게임	강금 폭행 등		
단란주점 보도방 원조교제	2차 강요, 폭력, 강금 등		

4) 노동권 보호 관련 규정인지도

아르바이트권리보호법, 부모동의서 제출, 근로계약서 작성, 상해시 치료비·보상청구, 초과 근무시 특별수당 지급 등 노동권 보호 관련 규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부모동의서와 근로계약서, 초과근무시 특별수당 지급이라는 3가지 항목은 미리 알고 있었고, 다음 아르바이트권리보호법과 상해시 치료비·보상청구는 거의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는 부모동의서와 근로계약서 등은 실제로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PC방, 주유소 등에서 자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고, 또 지켜지고 있는 것은 ‘부모동의서’였다. 아르바이트의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이미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대개는 나이를 속이거나,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 ‘부모동의서’를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한편, 이러한 ‘부모동의서’의 경우도 대부분의 중퇴 청소년들은 실제로 제출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부모들이 대개는 관심이 없거나 부모이혼 등의 가족해체를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초과근무시 특별수당 지급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시급으로 계산되는 임금계산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인지하고 있는 편이었다. 다만 초과근무시 특별수당이 지급된다고 보다는, 야간에 하는 일자리의 경우 낮에 일하는 일자리에 비해 약간 높게 책정되는 식으로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근로제한시간(오후 10시~오전9시)에 진행되는 아르바이트와 야간근무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대부분의 상점과 사업장에서 잘 인지하고 있

지만, 실제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 규정 중의 하나였다. 근로계약서의 경우는 상점 주인이 먼저 쓸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어떤 청소년의 경우도 자신이 먼저 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공연히 규정 운운하면서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해사 치료비·보상청구의 문제와 관련하여 음식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오토바이와 관련된 일을 할 경우는 각종 상해가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병원 등의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 불에 데인 상처나 오토바이 사고 등으로 인해서 얻게 된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보여주는 청소년들도 많았다. 대개는 얼마간의 용돈과 함께 한 2-3일 정도 쉬는 등의 조치가 전부였다.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상태와 그 침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파악은 어려웠다.

5) 아르바이트의 문제점 및 향후 진로

(1) 문제점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청소년 학업중단이라는 사회현상은 이른바 ‘중퇴·가출·아르바이트’라는 일종의 유행과 같은 ‘하위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1990년대와는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하위문화와 같이 급속하게 대중화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문제를 크게 3가지 정도만 언급하도록 한다.

첫째, 중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이유’와 ‘가족 생활비’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 가장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중퇴 청소년의 경우 가족해체와 중퇴·가출을 거의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그 결과, 거주지, 생활비, 학원비, 학교의 기타 준비물 등 생활의 거의 모든 면에 걸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동기를 용돈마련으로 꼽고,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생활비와 가족의 생계 등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중퇴·가출 등의 이유로 파트타임 근무에서 전일제 아르바이트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기개발, 학습 등에 투자할 비용과 여유가 거의 없다. 모든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을 ‘여유 없음’을 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퇴·가출 청소년들의 생활수준과 복지의 현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노동력 착취와 관련된 문제인데, ‘청소년’, 즉 다른 한편으로는 ‘미성년자’라는 연령상의 지위는 성인에 비해 모든 노동조건이 취약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실제로도 성인들이 잘 하지 않거나, 적은 임금을 받는 직종, 그리고 노동시간도 대부분은 야간시간대에 몰려 있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청소년이 종사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직종은 대부분 20개 내외의 직종에 한정되어 있을뿐더러, 장기적으로 종사한다고 해도 어떤 ‘전문성’을 갖기 어렵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도 해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직업적인 만족과 성취감을 얻기는 힘들다.

넷째, 여자 청소년을 중심으로한 성적 착취의 구조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중퇴·가출을 경험한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는 업소나 성매매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함께 생활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친구관계를 맺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더욱 낮은 연령대로 보편화되고 있는 여자 청소년의 성매매가 일종의 ‘단기 고소득 아르바이트’처럼 당연시되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데에는 집단적으로 행하는 의도

된 가출과 그에 따른 성매매 구조가 짜여지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집단가출 내의 연령적, 성적인 분업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여자 청소년들이 이 집단의 생계를 위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에 상관없이 성매매의 일선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다.

(2) 구직의사 및 희망직종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볼 때, 대다수 중퇴 청소년의 경우 앞으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시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학생’이 아닌 ‘청소년’으로 살아가기에는 ‘경제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모님도 연락이 안 되고, 그래요 아버지는 연락이 되지만(한숨), 업소경험이 있는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쉼터 보조비(즉 교통비, 학원비 등)로 생활하고 있는데, 아직은 독립할 여유가 없어요 여기서 일단은 20살 정도까지 보내고 나서 반드시 독립하려고요 대학도 가고 싶은데, 아직은 공부하는 일이 어려워요(여-19세, 중 1퇴, 주 직종 : 유흥업소 전반)."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인 지원이 부모로부터도, 사회로부터도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미 인터뷰를 했던 청소년들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중학교 고학년, 또는 고등학교 정도의 연령대였기 때문에 곧 ‘성인’이 된다는 두려움이 컸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감’과 ‘돈’에 대한 필요는 더했다

둘째,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미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해 봤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받는 상대적으로 적은 용돈으로는 생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직접 ‘성매매’를 경험, 또는 알선업무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학력과 기술도 없는 청소년들이 그 상태 그대로

로 다시 노동시장에 나갈 경우 다시 성매매시장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성매매의 경험을 한 어떤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섹터생활 이후에는 좀더 성실하게 살고있고, 아르바이트는 비교적 건전한 일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직종에서, 얼마만큼의 임금수준을 기대하는지 물었을 때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못했다. 단지 ‘돈을 많이 버는 일’과 ‘돈 많은 남자와의 결혼’ 등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답변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3. 조사결과의 논의

이상에서 살펴본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관한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가출-중퇴로 이어지는 중퇴 청소년의 경우에 아르바이트는 ‘생활비 마련’을 위한 노동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가출과 중퇴라는 낙인으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더욱 어렵고, 심지어 노동착취를 당하기도 한다. 또한 숙식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르바이트는 대개는 ‘성매매’와 ‘노동력 착취’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아이들은 하룻밤의 잘 곳과 먹을 것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책 대안 마련에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기회와 아르바이트 직종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음성화를 조장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응답자 90%이상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점은 매우 긍정적이며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강

하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기회와 아르바이트 직종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자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직종은 남자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대체로 많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는 ‘전단지 돌리기’나 ‘주유소’, ‘음식점 배달’ 등인데, 이런 일들은 대체로 보수가 적고 근로환경도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반면에, 청소년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패스트푸드점’이나 ‘24시간 편의점’의 경우에는 청소년들보다는 대학생을 위주로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많은 청소년들이 비록 고용이 불법적이지만 쉽게 구할 수 있고 보수도 높은 편인 ‘유흥업소 서빙·접대’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아르바이트 시장의 경쟁력에서 남자에게 뒤지는 여자의 경우는 아르바이트 구직에 어려움을 갖게 되고, 따라서 더욱 ‘유흥업소 서빙·접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조건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직종 개발이 매우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현재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이 만연되고 있으며,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로 청소년 인권침해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현재 우리 사회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청소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부모동의서를 받고 근로계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은 연소자 근로 관련법 규정에 대해 70%이상이 모르고 있을 뿐더러, 실제로 부모동의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작성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고용주가 관련법 규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소년이 그것들을 요구할 때 고용이 불확실할 것을 예상하여 굳이 스스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러한 위법적인 고용 실태는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유흥업소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또한 불법적인 청소년 고용 실태는 심각한 부당 대우로 이어진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한 부당한 대우는 임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일어나며,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부당한 대우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임금을 받기 일쑤이며, 야근을 하거나 일요일에 일하고도 특별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여자청소년의 경우 74.1%가 성희롱이나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관련법 규정상 청소년들은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는 청소년들을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심각한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주위 사람들의 힘을 빌리거나 경찰이나 노동사무소와 같은 제도적 권력에 호소하기보다는 스스로 일을 그만두거나 참고 계속 일하는 등 개인적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은 청소년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중퇴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들이 행하는 모든 아르바이트들과 관련된 ‘규정들’이 현재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현실’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먼저 성매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아르바이트 연령대가 더욱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규정의 정비와 단속, 적발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 등의 이유로 인해 청소년의 노동력이 과도하게 착취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생활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학생’의 경우는 먼저 ‘학생’이라는 설정 자체만으로도 보호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지만, 중퇴·가출한 청소년들의 경우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문제아’로 보는 시선이 강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생활비 지출항목 중의 하나는 ‘교통비’이다. 현행 ‘학생할인’이라는 관점을 넘어서 ‘청소년할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겠다.

여섯째, 청소년들의 재활 기회와 사회 복귀 시스템을 갖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원활한 가족 복귀를 위해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가족 복귀가 불가능한 청소년들에게는 거주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대부분의 중퇴 청소년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또 한번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건전한 아르바이트 알선하고, 직업교육과 생활기술 훈련 등을 통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침해 차단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르바이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소년에게 매우 유익한 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불법적인 고용과 부당 대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무관심으로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에 놓이게 되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로 설문조사의 결과, 많은 청소년들은 정부나 사회가 청소년의 취업을 지원할 취업정보센터나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해줄 고발센터 운영과 같은 정책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 아르바이트 기회와 직종이 적고 부당대우를 더 많이 경험한 여자청소년에게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선입견이나 부정적인 시각을 배제하고,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들의 생활에 제공하는 유용성을 더욱 살

릴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불법적인 청소년 고용을 막고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상담 및 소개, 감독, 사후 문제처리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할 정부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노동의 의미를 깨닫고, 사회생활과 직업의 세계를 경험하고,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건전하고 다양한 아르바이트 직종을 개발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공 백

V. 외국의 중퇴청소년 취업현황 및 지원정책

1. 캐나다의 중퇴생 현황과 취업지원정책
2. 미국의 중퇴생 현황과 취업지원정책
3. 호주의 청소년 취업현황과 지원정책
4. 일본의 청소년 취업현황과 지원정책
5. 한국에의 시사점

공 백

V. 외국의 중퇴청소년 취업현황 및 지원정책¹⁶⁾

사회구조, 역사적 인식,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 는 하지만, 어느 국가 혹은 사회에서든지 청소년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을 중도에 포기한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 중 가장 강조되는 것은 그들을 학교로 돌려보내거나 학력을 인정하는 代替교육기관으로 보내어 학업을 계속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나 교사, 친구에 대해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학업의 부담을 과중하게 느껴 중퇴한 청소년들은 학업을 계속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학업을 계속하기보다는 직업을 가지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한 청소년들이 전체 청소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청소년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선진국은 개도국에 비해 청소년들의 평균학력이 높고 중퇴청소년 대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의 중퇴청소년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중퇴자를 학교로 돌려보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퇴자는 저임금을 받는 미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승진이나 임금인상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기 쉬운데, 다시 학업을 계속하여 졸업을 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한번 이상 중퇴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학교로 돌아가도록 하려면 학교를 떠난 원인을 파악하여 그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중퇴청소년이 학교로 복귀할 때 전문가나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여 개인적인 어려움을 해결

16) 본 장은 제 4절(일본의 중퇴생 현황과 취업지원정책)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노재봉(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의해 집필되었다.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복교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두 번째 대책은 중퇴청소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직업을 알선해주거나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는 방식이 있다. 중퇴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임시적인 성격이거나 미숙련 단순노동인 경우가 많으므로 전자의 방식보다는 후자의 방식에 중점을 두는 편이다. 이와 관련, 주·야간 직업학교에서 기술을 가르치거나 업무 중 직업훈련(on the job training)을 실시한다. 세 번째 대책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혼합한 것으로서 대안학교나 학력인정학교를 다니면서 직업을 가지도록 권고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직업은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고양하고 사회참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본 장에서는 외국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지원정책을 조사·분석하고자 하며 한국이 참조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선진국의 사례 중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정책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상기 세 가지 대책 중 직업과 관련된 대책과 관련 프로그램을 살펴볼 것이다.

1. 캐나다의 중퇴생 현황과 취업지원정책

1) 중퇴생 현황

캐나다의 인적자원개발부(HRDC: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는 2000년도에 “과도기 청소년에 관한 조사(YITS: Youth in Transition Survey)”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청소년들의 학업과 노동시장진출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조사를 통하여 작성된 데이터베이스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입안·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同 조사에 의하면 캐나다의 중퇴생은 지난 10년 간 꾸준히 줄어들었다. 1991년에 18%에 달했던 중퇴생 비율이 2000년에는 12%로 낮아졌다¹⁷⁾. 이는 중퇴생의 복교를 권장하는 “2차 기회(second chance)”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세의 중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8.9%의 청소년들이 복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녀 청소년의 경우를 비교하면 남자 청소년의 중퇴비율은 14.7%를 기록, 여자 청소년의 9.2%를 상당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퇴생은 졸업생에 비해 취약한 가족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81.4%가 兩부모를 갖추고 있는데 비해, 중퇴 청소년이 양부모를 가진 비율은 63.6%에 불과하다. 양부모가 있는 가정은 보다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의 폭도 넓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들의 학력과 자녀들의 중퇴현상간에는 負의 상관관계가 보인다. 즉 부모들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중퇴비율이 낮아진다. 고교를 졸업하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56.6%가 고교보다 높은 상급학교를 졸업한데 비해 중퇴생의 부모는 27.9%만이 상급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퇴 청소년 부모의 26.9%가 고교 중퇴생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고교를 졸업한 청소년 부모의 8.7%만이 고교 중퇴생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 부모의 직업이 관리직이나 전문적인 경

17) 91년의 경우 출석률을 기준으로 한 조사에서는 중퇴 비율이 31%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상당히 과대 평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대안학교에 입학하거나 중퇴 이후 복교하는 경우도 모두 중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8세부터 20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한 자료에 근거하여 18%를 중퇴 비율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

우 중퇴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판매직이나 서비스직, 또는 제조업체 종사자의 경우에는 자녀의 중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퇴의 원인이 학교 공부의 어려움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중퇴생이 졸업생에 비해 평균적으로 성적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중퇴생이 낮은 성적을 기록하지는 않았다. 중퇴생의 절반 가량이 B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였고 C 미만의 성적을 보인 비율은 3.6% 밖에 되지 않았다.

중퇴생은 졸업생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과과정이 유용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도 중퇴생의 경우가 높았는데, 그에 따라 교과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고 숙제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퇴생은 졸업생에 비해 학교 내 친구들과 별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에 가까운 친구가 없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다른 친구들이 자신을 잘 대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았다. 전반적인 학교생활에서 중퇴생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즉 클럽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정상적으로 졸업을 하는 학생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과 중퇴간에는 흥미로운 상관관계가 관찰된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혀 없는 비율은 중퇴생의 경우가 48.3%, 졸업생이 37.3%였고, 1시간에서 29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은 중퇴생이 39.1%, 졸업생이 57.3%였다. 한편 과도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즉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는 중퇴생이 12.7%를 기록하여 졸업생의 5.4%를 상회하였다. 결국 적절한 아르바이트는 건전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아르바이트는 학교 생활에 지장을 준다고 보인다.

결혼이나 동거 여부는 중퇴와 正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졸업생 중 여자는 7%, 남자는 3.4%만이 결혼이나 동거를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퇴생의 경우에는 여자의 26%, 남자의 10.4%가 결혼이나 동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퇴생의 경우 아이를 가진 경우도 꽤 많아, 여자의 27.7%, 남자의 5.4%가 1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중퇴율이 낮기는 하나, 중퇴 청소년중 여자는 남자에 비해 결혼이나 동거를 하거나, 아이를 낳아 기르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

중퇴생은 졸업생에 비해 비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높다. 졸업생 중 수업을 빼 먹은 경험을 한 비율은 21.2%인데 비해 중퇴생은 절반이 넘는 57.6%가 수업을 빼 먹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술이나 마약 사용의 비율도 중퇴생의 경우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대마초나 마리화나를 사용한 중퇴생 비율은 28.1%에 이르러, 9.1%를 기록한 졸업생의 경우를 크게 앞지른다.

중퇴의 이유로는 교사와의 불화, 학과나 학교 자체에 대한 흥미 상실 등 학교와 관련된 이유가 41.7%를 차지하였고, 일과 관련하여(27.3%), 개인적인 혹은 가정 상의 이유로(16.9%), 기타의 이유로(14.1%) 중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와 관련된 이유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학교생활이 지겹고 흥미가 없다”는 것으로서 중퇴생의 19.9%를 차지하였다. 자퇴가 아닌 퇴학의 경우도 상당수 있는데 이 비율은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중퇴생 중 남학생의 9%가, 여학생의 4.3%가 비행이나 지나친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퇴학을 당하였다.

2) 취업지원정책

(1) 개요

캐나다는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숙련도를 증진시킨다는 각도에서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된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청소년 관련

사업의 비중은 예산 규모로 볼 때에는 작은 편이지만 사회적인 인식이나 정치인들의 캠페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큰 편이다. 중퇴생에 대한 지원정책은 이러한 지원 정책 중 일부로써 상당히 실효성을 거두는 것으로 평가된다.

캐나다 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재학 중, 혹은 졸업 후의 진로를 노동시장진출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①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②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③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④ 고등학교 졸업 후 지역학교(community college), 전문대학, 대학교 등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⑤고등학교를 중퇴하였으나 학력인정학교 등을 거쳐 고교 졸업장을 획득하는 경우 등 다양한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①부터 ⑤까지의 비율은 각각 12.8%, 10.4%, 22.7%, 53.1%, 1%로 나타나, 상급학교 진학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고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을 가지는 경우도 상당수임을 알 수 있다.

고용에 있어서 청소년에 대한 특별 배려가 필요한 이유는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며 노동시장에서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난 30년간 예외 없이 청소년의 실업률은 성인의 거의 두배에 달하였다.
- ② 청소년의 실업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9년에 11.2%였던 청소년 실업률은 1997년에 16.4%로 상승하였다.
- ③ 청소년의 노동시장진출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실업률은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청소년의 취업이 더욱 힘들어진다는 증거이다.
- ④ 취업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1989년에 비해 1996년에는 취업무경험청소년의 비율이 거의 두배가 되어, 20%를 기록하였다.
- ⑤ 청소년들은 비자발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 ⑥ 벽지 청소년, 가난한 가정의 청소년, 이민가정의 청소년, 원주민 청소년, 장애 청소년 등은 노동시장진입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청소년고용전략(YES: Youth Employment Strategy)”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 진입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와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성인이 되었을 때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同 전략은 궁극적으로 캐나다 청소년들의 노동의 질과 숙련도를 높여 미래의 산업환경에 적합한 노동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청소년고용전략에 있어서 취업지원대상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학생,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youth at risk)¹⁸⁾, post secondary education(지역학교, 전문대학교, 대학교 등 고교졸업 후 다니는 상급학교 교육)을 받는 청소년 등으로 3분된다. 이 중 중고등학교 학생은 학교를 다니고 있으므로 실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post secondary education을 받는 청소년은 상급학교를 다닌다는 측면과 스스로 취업할 능력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점적인 지원대상이 아니다. 결국 “youth at risk”가 가장 중점적인 지원대상이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면 지원대상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4월 현재, 캐나다의 청소년고용전략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18) youth at risk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가출, 중퇴, 비행, 약물, 한 부모 가정, 가난, 장애, 원주민(아메리칸 인디언) 등 상당히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youth at risk가 반드시 중퇴청소년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중퇴를 한 상태거나 중퇴를 경험한 청소년들임에는 틀림없다.

- ①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과 관련 서비스를 “맞춤(tailored)” 형식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광범위하고 유연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시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개량한다.
- ② 지역학교, 전문대학, 대학 등의 상급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에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직업과 관련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③ 청소년들에게 취업정보, 숙련도 증진 기회, 실질적인 직업 경험 등을 제공함으로써 직업을 찾거나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청소년고용전략은 Skills Link (숙련도 제고), Career Focus (경력 증진), Summer Work Experience (하계직업경험) 등의 3가지 프로그램으로 대별된다. Skills Link는 청소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직업훈련, 직업 경험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조직에 대해 고용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제공한다. 이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은 자녀를 가진 청소년, 원주민 청소년, 장애 청소년, 최근에 이민 온 청소년, 시골이나 산간벽지의 청소년, 고등학교 중퇴 청소년 등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적자원개발부가 관장하며, 비용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해당지역의 상황, 장기고용 가능 여부, 계획의 참신성 등에 따라 선정된다.

청소년고용전략의 대상자는 캐나다 내에서의 취업에 법적 제한이 없는 15세부터 30세까지의 사람이지만 주로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돕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되려면 고용보험(EI: Employment Insurance)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있어야 한다. 동 전략을 추진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는 민간회사, 협회, 위원회, 지방정부 등이 있다. 또한 농림부, 주택부, 식품안전청, 외교통상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자연자원부 등, 캐나다 중앙정부의 14개 부처가 이

에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있다.

(2) Skills Link

최근 캐나다 정부는 Skills Link에 가장 중점을 두고 청소년 취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후술할 Career Focus는 참여율이 낮고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Summer Work Experience는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여름 동안의 임시직업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과정에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Skills Link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수혜자 중 상당 부분은 중퇴생이거나 중퇴했다가 복학한 청소년들이다. 중퇴가 지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중퇴생의 경우 우선적인 지원 대상이 된다. 중퇴생에 대한 정책 중 가장 우선 순위를 지니는 것은 복교지원이지만, 복교의사가 없거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Skills Link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Skills Link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상 6개월 내에 취업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필요 시 총 3년까지 지원을 연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로 구성되는데, 참여 청소년들이 각 단계 모두를 필수적으로 거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경우에 따라 마지막 단계로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중간 단계를 건너뛰기도 한다.

- ① 1 단계는 고용능력훈련(employable skills training)으로서 생활능력(life skill)과 기본능력(basic skill)을 교육받는다. 1주 30시간 정도씩 24주간 교육을 받는데 이는 full time 교육을 의미하며, 교육을 받는 대가로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돈 (British Columbia 주의 경우 시간 당 8 CAD\$)을 참가 청소년들에게 지급한다. 이 돈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인센티브인 동시에, 프로그램 참가 기

간 중 청소년들의 생활비로 쓰인다¹⁹⁾.

- ② 2 단계는 사회봉사를 통한 고용능력배양(employable skills with community services)인데 1단계의 교육 이수 후, 혹은 1단계의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을 경우, 참가하게 되는 단계이다. 본격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사업 등을 통해 일의 경험을 쌓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2단계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거리 청소, 공공장소 청소, 공공기관에서의 단순업무 등을 수행한다. 2단계의 참가자에게도 allowance를 주며 본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500-2000 CAD\$ 정도의 보너스를 지급한다. 이 보너스는 복교 시의 책 값, 취업 시의 옷 값 등으로 사용하라는 의미이며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완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 ③ 3 단계는 취업을 통한 고용능력배양(employable skills with work experience)이다. 3단계에 참여하여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나 단체, 기관을 Sponsor라고 하는데, 이러한 Sponsor의 협조를 얻어 실제로 일을 하며 경험을 쌓는다. Sponsor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나 회사이기보다 비영리단체인 경우가 많다. 이 단계에서는 정상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배우고 익히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지만, 임금 형태로 돈을 받게 된다. 임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 연금,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때문에 앞의 1, 2 단계의 용돈보다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게 되지만, 3단계부터는 실업의 경우 실업 수당을 받으며, 연금수혜를 위한 적립기간으로 간주된다. 한편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을 받지만 해당 산업의 평균임금이 높을 경우 그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정부의 보조금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Sponsor가 임금의 일부를 직접 부담한 사례도 있다.

19) 이 돈은 임금(wage)이 아닌 용돈(allowance)이므로 세금이나 보험료, 연금 등을 공제하지 않는다. 한편 청소년들이 생활비 등을 이유로 더 많은 돈을 요청할 경우 사안별 심의를 거쳐 요청을 수용하거나 거절한다.

- ④ 4 단계는 직장경험(work experience)인데 일정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청소년들을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청소년들이 회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게 된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청소년 고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즉 신입직원 훈련 비용, 각종 행정 비용, 추가 장소 임대 비용이나 컴퓨터 등 사무용기기 조달 비용, 해당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임금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직장경험을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 10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 우선적인 대상이 된다.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보조금 없이도 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과거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큰 회사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정부가 거절한 사례가 있다. 한편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평균 6개월이며, 최대지급기간은 1년까지이다.

Skills Link의 성공률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통계는 없지만 70-80%의 성공률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성공률에는 현실이 왜곡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 보통 청소년들을 고용한 회사에게 성공 여부를 묻게 되는데, 회사는 성공 확률이 높아 보이는 청소년들을 주로 고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의 평균 수치보다 높은 성공률을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통계에는 직업의 유지율이 반영되지 않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일자리를 유지해야만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약 50%의 청소년들이 Skills Link 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도 현재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절반 가량의 청소년들이 본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인적자원개발부는 Skills Link와 관련된 정보를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Youth Awareness”라는 별도의 홍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website를 활용하기도 한다. website를 통한 정보전달의 경우, 정부 website가 지루하고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므로 청소년들이 자체 제작한 참신한 website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각종 간행물에 정보를 담아 이를 학교, 경찰서, YMCA나 쉼터 등 청소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 도서관 등 청소년들이 잘 가는 장소 등에 비치한다. 취업박람회라 할 수 있는 Career Fairs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며 TV의 공익광고, 버스의 부착물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에 부가적으로 펜, post-it, 게임용 CD case 등 청소년들이 좋아하거나 필요로 하는 물건에 광고를 부착한다.

(3) Summer Work Experience

Summer Work Experience는 여름방학기간 중고교생이나 상급학교 재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사업인데,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회사에게 임금을 보조해 주기도 한다. 이에 참여하는 기관은 민간 회사,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등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그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취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동 프로그램은 경험이 없으면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일자리가 없으면 경험을 쌓을 수 없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인적자원개발부가 운영하는 Student Center에서는 취업을 위한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작성 요령, 면접 요령, 일자리 찾는 방법 등 취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안을 교육시키고,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고용주와 청소년을 직접 연결해 주기도 한다. 또한 임금, 노동법, 근무환경 등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준다 Summer Work Experience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일반적인 민간회사에서 경험을 쌓으며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잔디깎기나 거리청소 등 단순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조사나 연구의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일자리의 범

위를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4-5월부터 8월까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약 2개월 정도 임시직업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고등학생들의 취업이 더 어렵거나 취업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고등학교의 방학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준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이 비영리 기관일 경우 임금의 100%까지 지원을 하며, 영리기관일 경우에도 50% 정도의 임금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Summer Work Experience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돈을 버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일의 경험을 제공하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 청소년의 경우에는 돈을 버는 것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된다.

(4) Career Focus

Career Focus는 상급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직업 경험과 고급기술을 전수해 주는 프로그램이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하지만 예산상의 제약과 사회적인 관심의 부족으로 그 진행이 부진한 편이다. Youth International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에서의 취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Career Focus는 주로 상급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을 위한 제도이지만, Skills Link와 Summer Work Experience는 고교 재학, 중퇴, 졸업생들을 위한 제도이다. 특히 Skills Link는 중퇴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캐나다에서 중퇴 후 직업을 가지는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청소년 중 10.4%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주로 미숙련 단순 노동에 종사하게 될 확률이 높고 중산층이 되지 못할 확률도 높아 사회불안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캐나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반영하여 청소년고용전략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근무 중 상해를 당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가 많고 저임금을 감수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휴일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해고통보와 관련된 법규를 잘 알지 못하여 해고 시에 부당한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퇴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가 없으므로 더욱 취약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위생, 안전, 공정성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직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청소년을 고용하는 기관이나 회사가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노력과 민간의 인식전환이 결합될 때 비로소 청소년 고용 보호정책은 실효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

3)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청소년고용전략으로 대표되는 캐나다의 청소년 취업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① 청소년들은 동 정책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노동 시장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장래직업에 대한 심화된 정보도 입수하였다. 이는 아르바이트적 성격의 직업을 얻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직업이나 자격, 능력 등에 비추어 중장기적으로 자신이 장래에 갖고자 하는 직업을 모색하고 그 직업을 획득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을 촉진한다.
- ② Career Focus 실시와 꾸준한 홍보의 결과 고등학교와 상급학교를 졸업하는 비율이 상승하였다. 중퇴비율을 낮춘 것은 건전한 노동시장의 육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노동의 전반적인 질적 상승을 가져왔다.
- ③ 직업훈련과 실제 직업간의 연계성이 강화되었다. 즉 청소년들이 실제로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는 비율이 상승하였다. 이는 맞춤형

지원제도가 이전의 획일적인 지원정책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맞춤형 제도의 실시와 정착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었지만 그 이익은 투입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④ 청소년의 실업률은 하락하였다. 실업률 하락의 원인에는 2차 기회 제공으로 인한 복교의 증가와 고등학교 졸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도 있지만,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숙련도를 배양하는 지원 정책이 실효를 거둔 것이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분석된다.
- ⑤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직업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는 지역 사회의 기관이나 협회, 회사가 꾸준히 협력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한 결과이다.
- ⑥ 청소년들의 평균임금이 상승하였다. 보다 나은 자격 요건과 능력은 임금 상승으로 귀결되었다.
- ⑦ 청소년들의 창업비율이 상승하였고 창업이후 성공적인 기업운영의 사례도 증가하였다. 이는 장래 캐나다의 산업구조를 다원화하고 건전하게 하는 데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며, 지원정책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획득한 능력과 자신감은 향후 캐나다 경제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상기의 전반적인 효과는 중퇴생의 직업획득이라는 측면에서도 유사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다만 어느 수준으로 중퇴생의 직업획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리하여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그 직업이 임시적인 성격, 즉 아르바이트에 해당하는 것인지, 장래에도 계속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보다 중장기적인 성격의 직업인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평균임금이 상승한 혜택은 분명히 중퇴생에게도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앞으로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미국의 중퇴생 현황과 취업지원정책

1) 중퇴생 현황

1980년대에는 미국 인구의 69%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90년대에는 그 비율이 80%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매일 1,868명의 십대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퇴하고 있다. 한편 중퇴자 비율은 70년대와 80년대에 꾸준히 줄어들었으나 90년대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교육통계센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중퇴생 비율을 계산한다. 하나는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중퇴발생율(event dropout rate)이며 다른 하나는 축적된 중퇴생 비율을 계산하는 중퇴상태율(status dropout rate)이다. 중퇴발생율은 학교나 교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중퇴를 방지하였는가를 시사하는 비율이다. 이를 직접적으로 정의하면 학교나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비율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중퇴상태율은 고교졸업을 위하여 추가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라 할 수 있는데 중장기적인 교육수요를 계산하는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다.

2000년의 중퇴발생율은 4.8%를 기록하였으며 소득수준과 중퇴발생율 사이에는 강한 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상위 20% 소득수준 집단에서의 중퇴율은 하위 20% 집단의 중퇴율의 1/6에 불과하였다. 2000년의 중퇴상태율은 10.9%를 기록하였으며 90년대 이후 큰 변화 없이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퇴상태율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백인의 중퇴율은 흑인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두 집단간의 격차는 줄어들어 왔다. 히스파닉계의 중퇴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고 아시아계는 가장 낮은 중퇴율을 보인다. 이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한다.

미국의 경우 중퇴생들은 학교와 관련된 이유, 일과 관련된 이유, 가족과 관련된 이유, 기타 이유 등으로 인해 중퇴를 한다. 중퇴를 촉진하는 학교내 이유로는 학교를 싫어하거나 교사를 싫어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 학우들과 갈등을 빚거나 소속감이 결여된 경우도 상당수 있다. 일과 관련해서는 일자리를 찾았거나 찾아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족문제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 결혼을 한 경우 등이 일반적이다. 기타 이유로는 친구가 중퇴를 하거나 여행을 하고 싶어서 등을 들 수 있다.

2) 취업지원정책

(1) 개요

미국내에서 고교졸업생의 취업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직업의 25%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며 65%가 고교 졸업 이후의 별도의 직업훈련을 필요로 한다. 단순한 고교 졸업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직업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며 해당 직업의 평균임금도 하락하는 추세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중퇴생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노동부는 청소년의 고교졸업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적극 권유하는 한편 취업을 돕는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취업지원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직업을 가진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의 취업을 알선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정책이다. 전자는 공정노동기준법(FLSA: Fair Labor Standards Act)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 고용의 조건을 엄격하게 정하는 것이며, 후자는 고용훈련처(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가 주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은 유해환경에의 노출을 막고 과도한 노동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청소년 보호라는 측면

에서, 또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강조된다. 동 정책은 청소년들에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정보의 부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성인과 청소년간의 근무조건 차이를 규정하고 강제하는 것 등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근로조건이나 근무환경 중 자신이 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을 잘 알지 못하며, 안다 해도 강력히 이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중퇴, 저소득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보호정책의 혜택은 중퇴,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주로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업주들은 청소년 노동에서의 시간 제한이나 업종 제한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안다 해도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고용시의 주의사항을 알리고 이를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강제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으나 사실 상 취업지원정책의 대부분은 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다. 동 정책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징을 보인다

- ① 청소년지원정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개인의 경우에 적합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 사례에서 지역적인 차이나 가정환경의 차이로 인해 일정한 경우에 유용한 지원정책이 다른 경우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② 청소년의 직업은 성인의 경우와는 다른 각도에서 고려된다. 우선 청소년들에게 제시되는 직업이나 업종에는 제한이 따르게 마련이다. 또한 청소년의 직업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직업으로의 이행과정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결정해야 한다.
- ③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데에는 민간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민간기업의 적절한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④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가 중요한 성공의 열쇠이므로 지역사회의 노동수요 및 공급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지원을 실시한다.
- ⑤ 장기고용을 할 경우 해당 기관이나 회사를 더 큰 폭으로 지원한다.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임시적인 성격의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청소년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또한 일정 직업에서의 숙련도 향상을 위해서 장기고용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2) Workforce Investment Act

미국은 최근에 노동력투자법(WIA: Workforce Investment Act)을 통하여 새로운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정책이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이었다는 비판을 의식하여 청소년, 저소득 성인, 부적절하게 배치된 근로자 등과 관련된 3개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새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집약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학교중퇴자를 집중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또한 지원실시 후 1년만에 걸친 후속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이한 연령집단에 대하여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지원 방법을 모색하여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직업수행을 통하여 학습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노동력투자법에 의한 각종 프로그램은 다음의 특징을 보인다.

- ① 개인교습을 통한 학습능력 제고: 틀에 박힌 교육 커리큘럼으로는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지식이나 정보를 적절히 전달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개인교습을 실시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려 한다. 학습효과를 측정한 여러 조사결과에서 개인교습은 집중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② 대안학교의 졸업기회 부여: 기존의 학교를 싫어하는 청소년에게

는 복교 프로그램보다 대안학교를 다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 ③ 학문적이고 직업적인 학습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하계임시취업의 기회 확대: 여름방학을 이용한 인턴쉽은 경험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하며, 직업과 관련된 학습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
- ④ 무료 및 유료 직업경험의 공존: 무료 직업경험을 통해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법이나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배울 수 있다.
- ⑤ 개별직업의 숙련도 훈련: 각 직업의 특성에 맞는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훈련을 함으로써 직업을 유지하는 과정을 강화하고 임금 수준을 향상시킨다.
- ⑥ 지도력 함양: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중간 관리자나 임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 ⑦ 1년간의 지원정책 지속: 단기간의 지원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에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3) 연방 청소년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사례

한편 미국의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은 43개가 있으며 그 중 6개가 청소년과 관련된 것이다. 이 6개의 프로그램은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직업훈련, 직업봉사단(Job Corps)활동, 직업훈련파트너쉽법(JTPA: Job Training Partnership Act)에 의한 하계 청소년고용 및 훈련, JTPA에 의한 청소년 훈련,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노동력투자법(WIA)에 의한 청소년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를 프로그램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²⁰⁾.

①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직업훈련

이는 교육부가 주관하며 청소년범죄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하여 범죄 재발율을 줄이고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학력을 기르며 직업을 찾고

20) 직업훈련파트너쉽법(JTPA)이 노동력투자법(WIA)으로 대체되었으므로

③④⑥의 프로그램은 노동력투자법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지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교도소 혹은 소년원에 수용되거나 보호관찰 중인 25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원을 받기 위하여 고교졸업학력이 필요하다.

② 직업봉사단활동

직업봉사단활동은 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직업 훈련과 숙련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의 주요 대상은 미국시민이거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16세-24세의 저소득, 중퇴 청소년이다.

③ 직업훈련파트너쉽법에 의한 하계 청소년고용 및 훈련

이 프로그램은 노동부가 주관하며,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직업획득과 임금상승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복지제도에의 의존율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동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는 14세에서 21세 사이이다.

④ JTPA에 의한 청소년 훈련

이 프로그램은 ③의 하계 청소년고용 및 훈련과 매우 유사한 프로그램이다. 차이점은 대상 청소년의 연령이 16세-21세라는 점, 기초학력이 부족한 청소년, 임신·출산을 한 청소년, 장애 청소년, 가출하였거나 가정의 없는 청소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등에 중점이 두어진다는 점 등 두 가지이다.

⑤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중퇴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집이 없는 빈민층 가정에 집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16세에서 24세까지의 빈곤층 청소년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수혜 대상자에 가능한 한 많은 여자청소년들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⑥ 노동력투자법(WIA)에 의한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이는 청소년들에게 직업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숙련노동력의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14세-21세의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퇴, 가출, 임시가정에서의 기거, 임신, 자녀 기르기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각종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취업을 돕는 유용한 수단이며 중퇴청소년의 취업을 돕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직업봉사단 활동과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노동력투자법에 의한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중퇴, 저소득 청소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중퇴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취약계층(underprivileged) 청소년들을 돕는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은 주로 중퇴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중퇴 청소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비교적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3)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미국의 청소년 취업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 ① 고교졸업, 대안학교를 통한 고교졸업 학력 취득, 학력인정시험에 의한 고교졸업 학력 취득 등 전반적인 교육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이 고교졸업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② 저소득 청소년의 소득 증대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나, 해당 청소년의 임금은 아직도 평균임금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빈곤의 악순환을 제거한다는 목적의 달성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 ③ 개별적인 경우를 고려하여 지원 방식을 결정하므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과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만족도의 증대가 직업의 유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직업의 유지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주 입장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④ 중퇴, 가출, 임신, 비행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취업지원정책의 혜택을 매우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이들 청소년들에게는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이 거의 유일한 돌파구로 간주된다. 따라서 보다 많은 자원을 이들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배분해야 할 것이다.

3. 호주의 청소년 취업현황과 지원정책

1) 청소년의 취업현황

호주의 중퇴생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중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15세-19세 사이의 남자 청소년 중 학교를 다니는 비율은 1987년에는 56%였으나 1998년에는 67%로 증가하였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59%에서 75%로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정규적인 직업을 가지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60년대 중반에는 남자 청소년의 58%가 정규직업을 가진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90년대 후반에는 그 비율이 20%로 감소하였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규직업을 가지는 비율이 더욱 떨어져 57%에서 11%로 감소하였다. 한편 청소년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교육기간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직업을 가지는 과정에서 과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년들은 임금이 낮거나 안정성이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직업군에 속한 청소년들은 “취업상의 위험”에 처한 것으로 분류된다. 지난 20년간의 통계에 의하면 호황기에는, 그 비율이 평균 약 12%로 나타나고 불황기에는 약 17%로 나타난다. 이는 전체 노동시장의 비율에 비해 높은 수치로서,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남자 청소년은 호황기에는 취업상의 위험에 처한 비율이 9%, 불황기에는 15%를 기록하여 여자 청소년의 15% 및 18%에 비해 변동폭이 큰 특징을 보인다.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중퇴 청소년들은 적절한 직업을 가지고 싶어하며 성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각종 지원제도 및 직업 훈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다. 중퇴를 감행하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취업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준비 없이 학교를 떠난다. 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상당히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취업 기회가 충분하지 않고 설혹 어렵게 취업을 한다 해도 임금이나 발전성이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기존의 학교 교육이 직업과 유리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호주 정부는 교육 프로그램을 취업과 연계시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전환기 청소년 지원 원칙

호주의 교육청소년부(Commonwealth Department of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Affairs)는 청소년들이 적절한 직업을 가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전환기청소년지원반(Youth Pathways Action Plan Taskforce)을 발족시키고, Australian Center for Equity through Education(ACEE)에게 청소년들이 처한 문

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광범위하게 연구하도록 의뢰하였다. ACEE는 실현가능하고 현실에 적용하기 용이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상집단을 선정하고 전환기청소년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고등학교 교사, 청소년직업훈련기관의 상담사, 청소년 지원기관의 공무원 등을 인터뷰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청소년관련정책에 반영토록 하였다.

ACCE의 연구에 따르면 전환기는 청소년들이 필수적으로 겪는 과정으로서 일률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고 청소년 개인의 주변 환경과 지역사회와의 상황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모든 청소년의 경우에 적용되는 표준적인 해법은 제시될 수 없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 호주 정부는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현재 혹은 미래의 직업을 찾고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함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유연성 확보, 청소년들의 참가율 제고,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접근법,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결합, 전환기 청소년을 위한 광범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국가정책의 일관성, 관련연구의 장려 및 효과적인 사후 관리 등의 7가지 원칙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이 7가지 원칙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유연성 확보

전환기 청소년의 문제점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므로, 취업 지원책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구상되어야 한다. 일률적인 프로그램은 실제 적용할 때 취약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들이 정교한 분석과 연구를 거쳐 만든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이를 적용할 때는 지역적인 특색을 고려하여 적절히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관료주의적인 정형화는 되도록 피해야 한다. 한편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 즉 학교를 중퇴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역사회의 청소년 지원 기관들과 학교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

력해야 한다.

② 청소년들의 참가율 제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참가율을 제고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프로그램의 구성 단계부터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기호와 필요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원 미화, 거리 청소, 박물관 안내, 도서관 이용 안내 등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적인 성격의 직업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직업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청소년들과 미리 의논하여 정한다면 청소년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이 성숙하게 될 것이다.

③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접근법

청소년들의 문제점은 청소년기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이전의 어린 시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전환기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격적인 청소년기에 비로소 교육을 시작한다면 전환기를 원활하게 보낼 가능성이 줄어든다.

청소년들이 직업을 가지는 것은 전환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 중 하나인데, 취업을 통하여 전환기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속적이고 수동적인 어린이로서의 자아 인식을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어른으로서의 자아 인식으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전환은 취업을 통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가족들과 떨어져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과정에서 직업은 경제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자아 존중감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④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결합

정책 및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여러 부

서의 청소년지원정책이 통일성 없이 산만하게 추진될 확률이 높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별개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각 부처와 지자체간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산하고 적절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청소년의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을 확보한 부서는 그 예산을 활용할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고 프로그램을 갖춘 부서는 예산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부처이기주의를 없애며 수직적인 협력보다 수평적인 협력을 균형있게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⑤ 전환기 청소년을 위한 광범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전환기 청소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이전의 초등학교 교육, 직업훈련, 직장에서의 인턴쉽, 직장에서의 교육 등이 모두 적절히 시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취업기회의 제공과 같은 지역사회의 지원과 임금보조를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도 필요하다. 이러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에 청소년 취업지원의 실효성이 보장된다. 부분적인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⑥ 국가정책의 일관성

청소년지원정책은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지방정부의 노력이 결합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의 양적, 질적인 향상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학교와 취업지원 서비스간의 연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⑦ 관련연구의 장려 및 효과적인 사후 관리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제안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 집단의 연구가 집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관련 연구를 통하여 정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적인 문제점을 수정하고 프로그램을 개선

해야 한다. 지방노동시장에 대한 이해, 청소년들의 행동 특성에 대한 분석, 지원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하다. 한편 프로그램 실시 이후의 사후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지원을 받은 청소년들이 직업을 일정 기간 이상 잘 유지하고 있는지, 직장에서 겪는 문제는 무엇인지, 적절한 임금을 받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원 방식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3) 취업지원정책

호주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현황 파악(tracking), 지도사 연결(mentoring), 서비스 알선(brokering), 개별지도(case management) 등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1) tracking(현황파악)

현황파악은 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들의 현 상황에 대한 조사 및 통계자료의 확보를 의미한다. 현황파악의 주목적은 유효적절한 정책의 구상이나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 것이다. 특히 중퇴자의 경우 중퇴 이후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야 관련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현황파악이 정확할수록 복교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업알선 프로그램 등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현황파악은 취업지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초작업이지만 사실 상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거의 모든 학교가 졸업생들의 졸업 이후의 진로를 추적하지만, 중퇴자에 대한 기록은 중퇴 시점과 기본적인 가정 환경에 대한 정보 이외에는 별로 없다. 특히 12학년이 되기 전에 중퇴한 경우에는 현황파악이 더욱 어렵다. 각 학교는 중퇴자의 현황을 파악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황파악에 필요한 예산이나 전문가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현황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중퇴청소년에 대한 통계치가 별로 없고, 있다 해도 통계수치간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는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결과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간의 통일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호주 정부는 전환기에 처한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를 추적하여 적절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 mentoring(결연제도)

지도사를 청소년에게 연결시켜주는 것은 성인과 청소년을 연계시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지도사는 직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는 물론 사회생활에 필요한 일반상식이나 조언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취업 및 직업유지 과정을 돕는다. 결연제도는 교육이나 취업과정에서 과거의 도제제도를 대신한다. 도제제도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많은 회사가 젊은이들이 직업을 가지는 데에 필요한 자격을 과거보다 더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턴쉽과 같은 준비과정을 과거보다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청소년들의 취업준비 상태는 별로 완벽하지 못하며 수많은 청소년들이 처음 직장에 나갈 때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낀다. 따라서 성인인 지도사가 취업하는 청소년들을 여러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도사는 일의 숙련도를 증가시키는 기술적인 조언으로부터 청소년들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에 대한 충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도움을 제공한다.

부모가 정규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역할을 보고 자란 청소년들은 지도사의 도움 없이도 일터에 비교적 쉽게 적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부모가 장기 간 실업을 한 경우나 부모와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쉬우며 지도사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대부분의 중퇴생은 부모를 역할 모델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지도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도사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그 과정은 대략 4 단계로 나누어진다. 우선 지도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대상자는 주로 자원봉사자들이고 양성을 위한 교육은 보통 3개월간 진행된다. 둘째 과정은 지도사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과 지도사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 때 청소년들의 희망직업, 성별, 인종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충고를 잘 따를만한 지도사를 선정하게 된다. 다음은 취업준비과정이나 직업수행의 어려움을 지도사와 청소년이 개별적으로 토론하는 단계이다. 취업준비과정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만나 희망직업과 관련된 취업기회, 자격요건, 장래 전망, 임금 수준 등에 대한 조사를 함께 해 나가고, 청소년이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은 사후관리단계인데, 통상적으로 12개월 정도 지도사가 해당 청소년에게 직업과 관련된 조언을 해준다.

중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기도 한다. 이 경우 지도사는 직업과 관련된 충고를 하기보다는 자아존중감, 긍정적인 자세, 시민의식 등을 길러주며 출석을 제고, 학업태도 개선, 성적 향상과 같은 요소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 파일럿 연구에 의하면 10학년 학생 중 학교를 중퇴하기로 마음먹은 학생들과 지도사들을 연결시킨 결과, 80%의 학생이 학교를 계속 다니기로 결심을 바꾸었으며 중퇴를 감행한 학생들도 지도사들의 도움을 받아 취업에 대한 사전 준비를 비교적 철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사 제도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도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과정의 어려움은 상존한다. 또한 서로 뜻이 잘 맞도록 지도사와 청소년을 적절히 연결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호주 정부는 지도사 양성 및 청소년과의 적절한 연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늘어나가고 있다. 한편 지도사협회를 신설하여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고 청소년지원 프로그램의 유용성도 점검토록 하고 있다.

(3) brokering(서비스알선)

서비스 알선은 교육, 훈련, 복지, 건강, 거처, 취업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중퇴생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 주는 과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의 대부분이 학교와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중퇴생은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중퇴하기 전에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 중퇴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가를 미리 파악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당수 학교들은 이를 시행하여, 중퇴 의사를 가진 학생들에게 청소년지원서비스 제공자를 소개한다. 과거에는 교사가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시간 및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불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요즘에는 학교외의 서비스 제공자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상당수의 청소년지원프로그램은 서비스 알선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호주의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Job's Pathway Program(JPP)은 청소년들의 취업기회 탐색과정을 돕고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훈련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 JPP는 학교와 연계하여 실시되므로 학교가 속한 구역에 따라 관할구역이 나누어지며, 중퇴생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중퇴생들이 이를 활용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주로 학교를 계속 다니는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Job Placement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JPET)은 가출이나 비행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퇴 청소년의 상당수가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다. JPET는 직업훈련과 직업알선과정으로 대별되는데 훈련기간 동안 거처를 제공하거나 기초생활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Job Network는 가장 보편적인 직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Job Network는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성격의 지원책으로서 현황과 약이나 개별지도 과정도 포함한다.

(4) case management(개별지도)

개별지도는 각 청소년들의 상황에 따라 상담, 지원, 지도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청소년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도움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학교와 학교외 기관들 모두가 개별지도를 추진하므로 양자간의 조화와 협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협력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는 개별지도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조언을 하고 필요시 그 학생들을 학교외 기관에 소개해 주며, 학교외 기관들은 기관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한다.

개별지도가 반드시 1대1의 지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명의 또래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가족 모두가 참가하는 형태로, 혹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것도 개별지도에 속한다. 개별지도를 통해 청소년들의 문제와 청소년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교사나 상담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지원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개별지도가 항상 문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중퇴나 가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이 개별지도를 통해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별지도과정에서 지도자는

각 청소년의 현재상황을 평가하고 그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해 상담을 한 후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교육훈련이나 취업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해당 청소년들이 직장에서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Centrelink라는 프로그램은 개별지도를 위하여 구상된 것으로서 청소년들의 소득수준이 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4)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호주의 청소년 지원정책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상되어 있으며 학교와 학교와 기관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하지만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우선 중퇴 청소년의 상당 부분이 노동시장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 학교를 “무작정” 떠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들을 다시 교육훈련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결국 문제 발생 이전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는 중퇴하기 전에 학교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하지만 학교 교육은 중퇴하려는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학교를 계속 다니는 청소년들을 위한 측면이 강하므로, 사전적인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각 학교에 전환기 청소년을 돕는 전담 교사 혹은 상담원을 배치해야만 할 것이다.

전환기 청소년을 돕는 체제가 관료적인 비효율성 및 책임소재의 불명확함 때문에 의도한대로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역학교, 직업훈련학교, 고용지원기관, 청소년복지부서, 보건담당 부서, 문제청소년 상담기관 등이 전환기 청소년들을 돕기 위

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원정책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수립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호주내의 많은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예산 및 인력은 지원하되, 지방정부가 청소년지원정책의 책임을 지는 이원적인 구도를 권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재원이 풍부하지만 실제 청소년들을 접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일본의 청소년 취업현황과 지원정책²¹⁾

일본의 경제 사회는 글로벌화, 고도정보화 및 서비스 경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에 급속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후반 버블 경제의 붕괴 이후, 장기적인 불황 하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많은 이직자가 나오고 있어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한층 더해가고 있다.

청소년층의 실업률 증가는 어떻게 보면 어느 선진국에서나 공통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치중하면서 전문성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노동력을 채용하기 마련이다. 일본의 경우 대졸 신입사원 일괄채용과 기업 내 교육훈련 등 특수한 일본식 시스템으로 이를 극복해 왔다. 그러나 버블경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의 대기업 고용관리 시스템의 재편은 종신고용,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고용 시스템을 바꿔 비정규고용자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의 신규졸업자의 구인수의 급격한 감소는 단지 경기후퇴보다는 청소년층 노동시장 전체의 대규모적인 구조적 재편 속에서 생겨났다 할

21) 본 절은 김태영(강릉대학교 교수)가 집필하였다.

수 있다.

이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 및 노동시장의 변용 속에서 기업의 신규 졸업자의 취업을 또한 떨어지고 있다. 특히 신규 졸업자의 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신규 졸업자의 무직화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젊은이의 직업 의식의 다양화 같은 요인도 작용하여 「프리터(freeter: free+arbeiter, 자유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는 신종직업이 생겨나게 되고, 이른바 직업의 프리터화가 진행되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 또한, 고교 중퇴생이 연간 약 11만 명을 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또 하나는 그동안 학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청소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이들을 현실과 타협시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전문성을 높여가는 노력을 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일본에서의 고용시장의 변용에 따른 청소년의 취업상황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고교 중퇴생의 현황과 취업지원 정책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최근 한국에서도 일본과 같이 아르바이트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고, 경기 침체에 따른 청소년들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 및 취업 지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청소년의 취업현황

(1) 취업 및 실업현황

일본의 청소년 인구(15~29세)는 1994년에 2,752만 명, 1999년에는 2,651만 명이던 것이, 2005년에는 2,253만 명, 2010년에는 1,996만 명으

로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2년 현재 청소년 인구(15~29세)는 2,479만 명이고, 그 중 1,488만 명(60.0%)이 노동력 인구(15세 이상 인구 중에 취업자와 완전실업자를 포함시킨 것)이다.

총 노동력인구(6,689만명)에서 청소년 노동력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2.2%이다. 청소년 노동력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15~19세가 125만 명, 20~24세가 571만 명, 25~29세가 792만 명이다. 이와 같은 향후 청소년 노동인구의 대폭적인 감소는 일본 사회의 활력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청소년의 능력이나 활력을 최대한 살리는 사회의 실현이 요구되고 있다.

버블경제 붕괴 후, 고용정세의 어려움이 증가하여 일본의 전체 실업률은 1990년 2.1%, 1995년 3.2%, 1997년 3.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불가하락이 선명하게 나타난 1998년 이후부터 실업률은 1998년 4.1%, 2000년 4.7%, 2002년 5.4%로 급상승했다.

2002년 청소년 실업률은 15~19세가 12.8%, 20~24세가 9.3%, 25~29세가 7.1%이다. 2001년과 비교하면, 15~19세는 0.6포인트, 20~24세는 0.3포인트, 25~29세는 0.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최근 실업률은 가장 낮은 1990년과 비교해서 전체 실업률이 3.3% 상승한데 비해, 청소년은 15~19세가 6.2포인트, 20~24세가 5.6포인트, 24~29세가 4.4포인트로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청소년 실업자수는 125만 명이고, 연령별로 보면, 15~19세가 16만명, 20~24세가 53만 명, 25~29세가 56만 명이다.

2002년 현재 청소년 취업자수는 1,361만 명이고, 2001년도와 비교해 71만 명 감소했다. 취업자 총수(6,330만 명)에서 차지하는 청소년 취업자수의 비율은 21.5%(2001년, 22.3%)이다. 청소년 취업자수를 업종별로 보면, 자영업 23만 명, 가족 종사업 29만 명, 고용자 1,303만 명이다. 청소년이 비교적 많이 취업하고 있는 산업은 「서비스업」, 「도매·소매업·음식점」, 「제조업」으로, 이 세 분야가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 고용자수는 1,303만 명이고, 연령별로 보면

15~19세가 105만 명, 20~24세가 501만 명, 25~29세는 697만 명이다.

청소년의 고용상황을 비농림분야 기업규모별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은 1~29명 규모의 기업이 399만 명, 다음으로는 100~499명 규모의 기업이 255만 명, 30~99명 규모의 기업이 224만 명, 1,000명 이상 규모의 기업이 220만 명, 500~999명 규모의 기업이 84만 명 순이며, 관공서는 99만 명이다.

(2) 신규졸업생의 취업 및 임금현황

고등학교와 단기대학, 종합대학 등의 신규 졸업자 중, 진학자 및 진학 희망의 재수생을 제외한 무직자 비율은 2000년에 고졸은 10.0%, 단기대학졸은 23.4%, 종합대학졸은 22.5%로, 고졸, 단대졸, 대졸을 합하면 무직자의 총수는 약 30만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한편 2000년에 졸업한 고교생의 단기대학 및 대학 진학율은 45.1%로 최근 10년에 약 15%정도나 상승해 고학력화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표 V-1~3 참조).

졸업자의 취직 내정율은 고졸이 2000년 현재 90.0%, 단대졸이 76.6%, 대졸이 77.5%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신규 고졸, 단대졸, 대졸을 둘러싼 고용 환경은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표 V-1> 고교졸업자의 취직 내정율

단위 명(%)					
구분 년도	졸업자	대학·단대 진학자	전수학교등 입학자	취직자	무직자
1990년	1,766,917 (100)	539,953 (30.6)	526,717 (29.8)	607,737 (34.4)	91,415 (5.2)
2000년	1,328,902 (100)	599,747 (45.1)	354,376 (26.7)	241,703 (18.2)	132,456 (10.0)

자료 : 文部省 「學校基本調査」

<표 V-2> 단대졸업자의 취직 내정율

단위 : 명(%)

구분 년도	졸업자	대학 등 진학자	취직자	무직자	일시취업자
1990년	208,358 (100)	6,900 (3.3)	181,229 (87.0)	14,543 (7.0)	2,167 (1.0)
2000년	177,909 (100)	16,807 (9.4)	99,641 (56.0)	41,704 (23.4)	16,217 (9.1)

자료 : 文部省 「學校基本調査」

<표 V-3> 대학졸업자의 취직 내정율

단위 : 명(%)

구분 년도	졸업자	대학 등 진학자	취직자	무직자	일시취업자
1990년	400,103 (100)	27,045 (6.8)	324,220 (81.0)	22,348 (5.6)	3,645 (0.9)
2000년	538,638 (100)	57,663 (10.7)	300,687 (55.8)	121,083 (22.5)	22,633 (4.2)

자료 : 文部省 「學校基本調査」

2002년 6월분 임금은 남자가 평균 33만6,200엔, 여자가 22만3,600엔이다. 청소년임금을 보면, 남자는 18세 미만 14만4,200엔, 18~19세 16만8,300엔, 20~24세 19만9,200엔, 25~29세 24만1,000엔이며, 여자는 18세 미만 13만1,100엔, 18~19세 15만8,200엔, 20~24세 18만7,100엔, 25~29세 21만2,900엔이다.

신규졸업자의 초임을 학력별로 보면, 남자는 대학졸업자 19만8,500엔, 고등전문학교·단기대학졸업자 16만9,500엔, 고등학교졸업자 15만7,500엔, 중학교졸업자 14만1,900엔이다. 한편 여자는 대학졸업자 18만8,800엔, 고전·단대졸업자 16만4,300엔, 고등학교졸업자 14만8,800엔, 중학교졸업자 12만5,700엔이 되고 있다(표V-4).

<표 V-4> 학력별 초임 및 비율

	학력	초 임 금 액(千円)		
		2000년	2001년	2022년
남	대 졸	196.6	198.3	198.5
	(사무계)	195.6	197.5	196.2
	(기술계)	198.2	199.0	200.9
	고전·단대졸	171.6	170.3	169.5
자	고 졸	157.1	158.1	157.5
	중 졸	140.6	145.1	141.9
여	대 졸	187.4	188.6	188.8
	(사무계)	183.2	185.1	185.0
	(기술계)	197.2	196.6	198.4
	고전·단대졸	163.6	163.8	164.3
자	고 졸	147.6	148.7	148.8
	중 졸	137.5	134.0	125.7

자료 : 후생노동성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3) 이직상황

2001년 기업규모 5인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이직한 30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자는 295만5천 명(남 127만6천 명, 여 167만9천 명)이다. 30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자의 이직률을 보면, 26.1%(남20.3%, 여33.4%)로 전체노동자의 이직률 16.9%(남 13.9, 여 21.6%)보다 높다. 이직 이유를 보면, 「개인적인 이유」가 남자 78.7%, 여자 84.1%로 가장 많다. 덧붙여 「일이 자신에 맞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이직 지향도 강해지고 있어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다.

신규졸업자의 재직기간별 이직률을 보면, 취직 후 1년간 이직률은 2001년 3월 졸업자의 경우 중학교졸업자는 49.8%(남 49.8%, 여 49.5%), 고등학교졸업자는 25.7%(남 24.3%, 여 27.4%)이다. 또한 1999년 3월 졸업자의 이직상황과 관련하여 취직 후 3년간의 움직임을 보면, 중학교 졸업자의 이직률은 1년째 45.4%, 2년째 14.3%, 3년째 8.8%(합계 68.5%)이고, 고등학교졸업자는 1년째 24.0%, 2년째 14.6%, 3년째 9.6%(합계48.3%)이다. 즉, 중학교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모두 취직 후 1년째에 이직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고, 특히 중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40%를 넘고 있다. 또 취직 후 3년간 중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취직자 전체의 70% 정도가 이직하고, 고등학교 졸업자에서도 50% 가까이 이직하고 있다. 그리고 단대졸은 약 40%, 대졸은 약 33.6%가 이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7·5·3 전직」이라 부른다. 중졸자의 70%, 고졸자의 50%, 대졸자의 30%가 3년 이내에 이직을 한다는 뜻이다. 이는 졸업생 취업자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고교 중퇴생 현황과 취업지원 정책

(1) 고교 중퇴생의 현황

2000년 현재 공립·사립학교의 중퇴생수는 공립 73,253 명(중퇴율 2.5%), 사립 35,893 명(중퇴율 2.9%)으로 약 11만 명이며 평균 중퇴율은 2.6%이다. 또한 10명 이상 중퇴생이 나오고 있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01년 고교 1학년 중퇴율은 4.2%, 2학년은 2.5%, 3학년은 0.8%로, 1학년이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V-5> 고등학교 중퇴생의 추이

(단위 명)

	제적자수 (4월1일 현재)	중퇴학생수	중퇴율 (%)	중퇴율		
				1학년	2학년	3학년
1991	5,443,237	112,933	2.1	3.3	2.2	0.7
1992	5,201,859	101,194	1.9	3.2	2.0	0.7
1993	4,991,109	94,065	1.9	3.1	1.8	0.6
1994	4,850,868	96,401	2.0	3.2	2.1	0.6
1995	4,711,305	98,179	2.1	3.4	2.2	0.7
1996	4,528,492	112,150	2.5	4.0	2.6	0.8
1997	4,354,543	111,491	2.6	4.2	2.6	0.8
1998	4,242,144	111,372	2.6	4.3	2.7	0.8
1999	4,194,747	106,578	2.5	4.1	2.6	0.8
2000	4,150,642	109,146	2.6	4.3	2.6	0.8
2001	4,046,588	104,896	2.6	4.2	2.5	0.8

자료 : 文部省 編 『2002年度 文部科學白書』, <文部科學省初等中等教育局 兒童生徒課生徒指導室>

중퇴의 이유(2001년)는, 학교생활·학업부적응이 38.1%로 가장 높고 다음이 진로변경으로 36.3%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진로변경자 중, 다른 학교, 전수학교 등으로의 입학희망자는 11.1%이며, 취직희망자가 18.5%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생활에의 적응 등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취직이나 다른 학교로의 전·편입학 등 적극적인 진로변경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원과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표 V-6> 사유별 중퇴생수의 구성비 추이

		단위 %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학업부진		7.1	6.7	6.7	6.6	6.4
학교 생활 · 학업 부적응	원래 학교생활에 열의가 없음	14.7	15.8	16.2	15.8	15.7
	수업에 흥미가 나지 않음	6.2	7.0	6.7	6.8	7.0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수 없음	4.9	5.0	5.5	6.0	6.4
	학교 분위기가 맞지 않음	3.5	3.9	4.2	4.4	4.4
	그 외	4.1	4.0	4.5	4.4	4.6
소 계		33.4	35.8	37.1	37.4	38.1
진로 변경	다른 교으로 입학 희망	7.3	7.3	7.9	8.2	8.6
	전수·각종학교로 입학희망	3.8	3.3	3.1	2.8	2.5
	취직을 희망	24.1	22.0	19.7	19.6	18.5
	대입검정 치르기 희망	1.9	2.1	2.3	2.4	2.7
	그 외	3.8	3.7	3.8	3.5	4.0
소 계		40.8	38.5	36.8	26.5	36.3
병·부상·사망		3.7	3.5	3.5	3.4	3.5
경제적 이유		2.5	3.0	3.2	3.2	3.3
가정 사정		4.5	4.3	4.4	4.4	4.4
문제 행동 등		4.6	4.8	4.9	4.8	4.5
그 외 이유		3.4	3.4	3.4	3.6	3.4

자료 : 文部省 編 「2002年度 文部科學白書」, <文部科學省初等中等教育局児童生徒課生徒指導室>

(2) 중퇴자의 진로선택

2001년 고교 중퇴자의 진로선택을 보면, 「일을 하고 있다」가 55%, 「학교에 다니고 있다」가 약 18%, 「일도 하지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는다」가 약 15.4%, 「일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가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의 희망대로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약 39%의 중퇴자가 「희망했던 대로」, 약 18.5%가 「희망대로 되지 않았다」, 나머지 약 40%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답한 중퇴자 중 가장 많은 23.8%가 「통신제학교」이고, 정시제과정은 19.4%, 전일제과정은 16.3%, 전수학교는 16.9%, 「단대·대학」은 10.7%를 차지하고 있다.

고교 중퇴자 중 「일을 하고있다」고 대답한 대상자의 대부분이 「프리터」로 일하고 있다. 실제 프리터의 비율을 보면, 중학교·고교 중퇴자를 비롯한 저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편의점과 슈퍼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60%를 넘으며, 월 평균수입이 10만~14만엔인 사람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고졸 초임과 비교하여 그다지 적은 급료가 아니다. 저임금의 정사원으로 일하기보다는 프리터를 선택해 파트타임으로 적당히 일해 가며 인생을 즐기거나 정말 좋아하는 일을 탐색하는 것이다. 달라진 젊은 세대의 직업관·인생관이 낳은 특이한 사회현상이라 할 수 있다.

「슈퍼·계산대·CVS(편의점)」과 같은 소매점 형식은 1990년대에 들어와 번성하게 된 점포로 최근에는 편의점에 은행이나 공공비용 지불 창구마저 설치되어 있어 약어로 「CVS 점원」이라 불린다. 즉 중퇴생·고졸·대학생 아르바이트 없이는 편의점은 물론 슈퍼 등도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오늘날의 정보·소비사회에서는 많은 직종에서 아르바이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아르바이트 없이는 나라의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아르바이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고 할 수 있다. 슈퍼는 물론 편의점, 패스트 푸드점, 방문 배달·우편 배달조차도 아르바이트 학생에 의해 조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리터는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지 않았으므로 직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사회가 저학력자들에게 어떻게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시킬 것인가가 과제이다.

(3) 진학 및 취업지원 정책

각종 직업자격 취득에는 대부분 고졸이 전제되기 때문에 고교 중퇴생이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한정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의 학교와 지방공공단체 및 정부는 고교 중퇴생의 진로희망과 진로선택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① 진로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학교에 설치하고 있다.

② 중퇴생과 1년간 정기연락을 실시하고 있다.

③ 대입자격검정의 활용 등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다.

④ 중퇴생이 대학 등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과거에 취득한 단위를 누적 가산할 수 있는 단위제 고교를 운영하고 있다.

⑤ 지방공공단체에서 하로워크(Hello Work)와 연대한 취업상담 및 직업능력개발을 행하고 있다.

⑥ 인턴 사원으로서의 사회 참여

중퇴생들은 졸업 후 바로 취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인턴 사원으로 기업, 상점, 지역산업, 농림업의 경영자에 협력을 의뢰한다. 유상·무상 등의 조건은 경영자 측이 설정하도록 하고 적응과정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한다.

⑦ 자원봉사자(volunteer)로서의 사회 참여

중퇴생들이 무상의 자원봉사자로서 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에서 활동한다. 자신이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 그들은 자신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자립과 연결이 된다. 적응하면 조금씩 유상 자

원봉사자로 전환하여 직장에서 일하거나, 독립하여 복지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⑧ 창업에 의한 사회 참여

고교생·대학생에게 창업교육을 행하고 있다. 이것을 폭넓게 활용하여 중퇴생에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을 하고 있다.

⑨ 근로체험 프라자로서의 「나의 일관 (私のしごと館)」의 운영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에 관한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직업 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직업 종합 정보 거점으로서, 청소년의 직업 의식의 계발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개관하였다.

⑩ 「근로청소년홈」의 운영

2002년 현재 일본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근로청소년홈」은 전국에 약 530곳이며, 근로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지의 「근로청소년홈」은 청소년을 보다 적극적인 직업인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직업 생활 충실을 위한 강좌나 자원 봉사에 관한 강좌 등을 개최함과 동시에, 직업 생활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이나 지도 체제의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취업 지원체제 확립을 위한 대응 방안

청소년들이 스스로 사회적으로 자립하기에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종래와는 달리 청년기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어른에 의한 과잉 보호나 통제를 배제한 채 자유를 보장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추세이다.

(1) 학교

기초학력을 습득시키는 교육에 충실을 기함과 동시에, 자립을 위한 사회훈련의 장소로서의 위상을 부여하여, 장래 설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① 학교는 지역사회 및 기업 등과의 대화를 촉진한다.
- ② 청소년의 주체적 활동을 저해하는 지나친 교칙을 고친다.
- ③ 취직 지도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 ④ 캐리어 교육을 실시한다.
- ⑤ 인턴십에 충실을 기한다.(2001년 38.9%의 공립학교에서 인턴십을 실시하고 있다).
- ⑥ 리커렌트(recurrent) 교육을 위한 사회인 수용을 촉진한다.

(2) 기업

- ① 청소년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내 교육(특히 OJT의 충실)을 촉진시킨다.
- ②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일반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제도를 설치한다.
- ③ 청소년의 직업교육을 위해 인턴십 수용에 협력한다.
- ④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에 의한 청소년의 장기간 노동을 시정한다.
- ⑤ 청소년이 장래 직업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적절한 대우를 행한다.

(3) 지방공공단체와 정부

- ① 청소년 교육시설의 이용 규제를 완화한다
- ② 청소년이 주체로 참가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 ③ 중졸, 고교중퇴자, 단순노동시장의 청소년에게 직업에 관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취득을 지원한다 (예:기업내에서의 훈련이 공적인 직업자격으로 결부되는 제도를 검토한다).
- ④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ry college)의 검토
- ⑤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장학금을 확충한다.
- ⑥ 부모와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청소년을 위한

저가임대주택)

- ⑦ 교육정책과 고용정책을 연대시킨다.

4)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청소년들은 학교 재학중에 직업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직업이나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직업 의식이 희박해지거나 근로에 대한 가치관이 저하되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기업, 지방공공단체 등과 제휴하여 직업 의식의 계발을 통해 젊은이가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직업 의식이 희박해지는 데서 생기는 파트·아르바이트화, 프리터화, 이·전직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학시에 빠르고 체계적인 단계로 인턴제도의 도입을 촉진하고,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며, 학교에서 직업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직업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직업 지도의 충실, 직업 강좌나 세미나의 실시 등을 통해 청소년의 직업 의식을 계발하기 위한 시책을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취업지원 정책은 종합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소년의 건전육성시책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작성하고, 아울러 시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검토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교육, 복지, 노동, 사법 등과 관련하여 실천, 연구, 행정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분야를 초월해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시키는 방안에 관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성을 살리면서 긴밀하게 제휴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해 나가야 한다.

5.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지나칠 정도의 교육열은 중퇴생을 낙오자나 비행 청소년으로 취급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위해 학습하는 역할만을 부여하므로 청소년들이 취업하는 것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중퇴생 관련 정책은 주로 비행을 막고 복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취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노동을 통한 건전한 사회인의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한국에 비해 훨씬 활발한 청소년 취업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한국을 비롯한 각 국의 중퇴청소년들은 경제적인 필요에 의하여, 혹은 어른 대접을 받고 싶어서 직업을 가지려 한다. 중퇴청소년의 취업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상당히 완화해 줄 수 있으며 장래를 위한 준비과정이 되기도 한다. 한국사회가 가진 중퇴생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퇴청소년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그 지원 방법 중 취업지원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한다.

앞서 살펴 본 선진국들의 사례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취업지원을 위한 종합전략의 수립 및 추진

캐나다의 청소년고용전략(YES)이나 호주의 전환기 청소년 지원계획과 같은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퇴생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도 학력이나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원활한 취업 및 직업 유지가 어려운 형

편인데, 중퇴생의 경우는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 따라서 직업훈련이나 임시직 수행 경험을 통하여 능력을 배양해야만 한다. 한편 청소년들은 취업관련 정보를 찾는 데에도 익숙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② 맞춤 서비스의 제공

모든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전형적”인 취업지원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청소년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직업능력이나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지원책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개인의 경우에 맞는 맞춤 지원책을 활성화하려면, 유연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해야 하며 전문인력의 개별적인 도움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청소년고용기관에 대한 지원강화

한국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한다고 해서 그 기관이나 회사에 대해 특별히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기관이나 회사는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므로 상당히 이득을 본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단순 미숙련 노동력이 필요한 업종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이러한 견해가 맞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에게 고용 기회를 주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일을 가르치기도 쉽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맡길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고용업체에 대한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청소년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임금 및 교육훈련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캐나다의 Skills Link와 Summer Work Experience 프로그램도 정부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④ 노동관련인식의 제고 및 근로청소년 보호정책의 추진

청소년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하기 쉽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적절히 항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특히 중퇴생의 경우, 학교와 같이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없으므로 어려움은 가중된다. 따라서 직장에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유해환경에의 노출을 막고 과도한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치이다.

⑤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중 상당 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 제공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취업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지역사회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취업의사를 가진 청소년과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고용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수요를 가능한 늘려 나가야 한다.

⑥ 청소년들의 참가율 제고

청소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프로그램의 구상 초기부터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들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고 성취의욕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⑦ 정부부처 및 지자체간의 적절한 업무 배분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막고 청소년 지원업무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간에 합리적으로 업무를 배분해야 한다. 또한 예산 지원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경우 추진하기 어렵고 내세우기 힘든 사업은 서로 미루고, 소위 힘을 쓸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간에 서로 차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관료주의적 폐해를 조속히 극복해야만 한다.

⑧ 장기적인 안목

캐나다의 Skills Link의 경우에는 통상 6개월을 지원하나 필요시 3

년까지 그 지원 기간을 늘리고 있다. 미국도 취업 후 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 능력을 배양하도록 유도한다. 이들 국가들은 청소년 취업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여 지원기간을 가능한 한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짧은 기간만을 지원하는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

⑨ 관련 연구의 강화

청소년 취업 지원 정책을 적절히 구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치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정책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나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정부 부처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시키기보다는 부처의 이해에 따라 연구결과를 취사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빨리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유력한 수단이다.

VI. 제언 및 결론

1. 제언
2. 결론

공 백

VI. 제언 및 결론

1. 제언 :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지원 방안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지나칠 정도의 교육열과 학습만능주의로 인해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중퇴생들은 낙오자나 비행 청소년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장래를 위한 학습의 역할만을 부여하므로 청소년들이 부가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뿐더러 교칙으로 금하고 있기까지 하다. 따라서 중퇴생을 위한 사회복귀 정책은 주로 비행을 차단하고 복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취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복교에 실패한 청소년들이 심각한 문제 상황에 노출되기도 하며, 열악한 취업 현장에서 전혀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 채 사회적 병리현상 마저 초래하고 있다.

경제적인 필요에 의하여 혹은 실패한 학교교육에 대한 대안 모색을 위해 중퇴생들이 일시적으로 선택하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사회는 이들의 노동을 통한 건전한 사회인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중퇴청소년의 취업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상당히 완화해 줄 수 있으며 장래를 위한 준비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중퇴청소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그들의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1) 청소년 취업 지원체제 확립을 위한 정책 방안 수립

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욕구가 건전하게 노동환경으로 흡수되어 이들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학교, 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가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중퇴청소년의 경우 제도 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장소가 아닌, 학습을 위한 공간인 동시에 자립을 위한 사회훈련의 장소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학교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교칙으로 금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소년의 주체적 활동을 저해하는 지나친 교칙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시범으로 하여 재학 시에 체계적인 단계로 인턴제도의 도입을 촉진하고,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에서 직업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직업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체계적인 직업 지도, 직업 강좌나 세미나의 실시 등을 통해 청소년의 직업 의식을 계발하고 건전한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을 촉진한다.

한편,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의 취업지원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우리 나라의 기업도 청소년의 직업교육을 위한 인턴쉽 수용, 기업내 교육 및 장학금 제도 등 청소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이러한 기반 확립을 위해 정부는 청소년 친화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청소년 취업 지원 정책에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저학력 혹은 중퇴청소년 등 단순노동시장의 청소년들을 위한 저가임대주택 및 자격취득 지원 등 각종 취업지원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취약한 이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에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장기적 안목에서 교육정책과 고용정책을 연계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

을 위한 단계적 대안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 취업지원 정책은 교육, 노동, 복지, 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시책이 긴밀하게 연계된 종합적인 정책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각 분야의 지식과 경험의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2)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질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사회복귀에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기회와 아르바이트 직종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이 만연되고 있으며,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로 청소년 인권침해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생계 수단으로 혹은 일의 필요성으로 인해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가 높은 중퇴청소년의 경우 그 피해 정도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청소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부모동의서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은 연소자 근로 관련법 규정에 대해 70%이상이 모르고 있을 뿐더러, 실제로 부모동의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적인 청소년 고용 실태는 심각한 부당 대우로 이어진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한 부당한 대우는 임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일어나며,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부당한 대우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임금을 받기 일쑤이며, 야근을 하거나 일요일에 일하고도 특별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여자청소년의 경우 74.1%가 성희롱이나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관련법 규정상 청소년들은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는 청소년들을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심각한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주위 사람들의 힘을 빌리거나 경찰이나 노동사무소와 같은 제도적 권력에 호소하기보다는 스스로 일을 그만두거나 참고 계속 일하는 등 개인적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청소년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3)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인식의 전환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이제 어느 특정 청소년 부류에 한정된 사안이 아닌 전체 청소년의 일상생활 문화양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소비의 주체로써 일하고 싶은 욕구는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모범생과 문제학생을 가릴 것 없이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일할 자세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제도와 사회적 인식은 아직 전통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직도 우리사회엔 일하는 청소년을 불우한 학생이거나 탈선과 비행성향이 높은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는 경향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아르바이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령인 근로기준법에서도 청소년 취업을 불우한 근로청소년 취업으로 파악하고 단순히 보호하고 제한하려는 소극적이고 전 근대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을 소비 주체화하는 자본주의와 전통적인 노동구조 사이의 모순에서 나타난 산물이 현재

와 같은 청소년 근로의 왜곡된 모습을 감안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0대들의 아르바이트 성행은 교육, 노동, 여가가 경제적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 청소년기, 성·장년기, 노년기라는 삶의 단계에 따라 각기 과잉 배분되는데 따른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즉 10대들의 아르바이트는, 청소년기에 공부이외의 일하는 시간이나 노는 시간을 불필요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시간 혹은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 시간으로 여기는 사회적 풍토와 공부와 일과 여가가 세대별로 과잉 배분되어 있는 경제효율적 생활양식에서 벗어나 청소년기에 공부하고 일하고 여가를 함께 즐기며 자아 정체성을 찾아보려는 청소년들의 “뜰깨기적” 시도와의 충돌로 이해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불우청소년이나 탈선학생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은 바뀌어야 하며, 학습과 일이 분리되지 않고 평생교육이 요구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청소년기는 공부만이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라는 논리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일하는 청소년은 불우한 근로청소년 혹은 탈선한 비행청소년이 아니라 일과 여가와 학습을 통해 당당히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사회적 주체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단순히 보호하고 제한하는 소극적인 청소년 근로개념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여 건전한 청소년 노동시장을 육성하려는 방향으로 시각을 전환하여야 한다.

2) 구체적 정책 대안

(1) 청소년 고용 관련 법령 제정 및 정비

청소년의 불리한 노동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 고용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청소년 파트타임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현행의 근로기준법을 현실화한다.

청소년 취업의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인적자원개발의 차원에서 아르바이트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 청소년 파트타임 관련법령은 학생에게 제공되는 일거리는 부가적(additional)이고, 임시적(temporary)이며, 기존하는 일자리를 해고하거나 대체하지 말 것, 학생과 지역사회에 모두 유익한 일거리이어야 하며, 반면에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 일이나, 개인자산을 증식하는 일, 사적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일거리는 학생들에게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행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련된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에서 청소년 고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제5장 여자와 소년(제62조-제75조)’에서의 연소자로서의 고용보호에 관한 내용과 제21조와 제25조에서의 ‘단시간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실적으로 휴일노동과 중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허가를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만들기보다는 휴일의 노동시간을 정하고, 일시적으로 중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들도 부모의 동의하에 ‘경노동’에 해당하는 업종에 제한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근로 관련법과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15세 미만인 자의 근로가 금지되거나, 18세 미만인 자는 부모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은 청소년들의 근로를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청소년 노동시장을 협소화시켜 청소년의 불법적 취업을 초래하고 있다. 그에 따라 편법적인 청소년 노동력 착취와 위법적인 청소년 인권침해 및 탈법적 청소년 고용이 성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부모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청소년 노동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며, 비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정상적 근로형태인

“시간제 취업”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2) 청소년 불법 고용에 관한 법률적 규제 강화

청소년의 인권과 권익보호 차원에서 청소년 불법고용에 관한 법률적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며, 이와 아울러 청소년과 고용주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법교육을 실시한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과 권익보호 차원에서 청소년 불법 고용에 대한 법률적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형식적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관리 감독 기능을 대폭 수정하여, 최저임금 보장과 부당대우 근절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유흥업소에서의 청소년 불법고용에 대한 법률적 처벌의 강도를 한층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가출 후 중퇴로 이어지는 중퇴 청소년의 경우에 아르바이트는 ‘생활비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노동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가출과 중퇴라는 낙인으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더욱 어렵고, 악덕 업주는 이를 이용해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한다. 또한 숙식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르바이트는 대개 ‘성매매’와 ‘노동력 착취’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출 및 중퇴청소년들은 하룻밤의 잘 곳과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률적 처벌 기능의 강화와 병행하여, 청소년과 고용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권익보호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과 고용주 모두 노동자로서의 청소년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지금까지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청소년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계약에 관한 법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파트타임 관련 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전국 혹은 지역사회

단위 내에 있는 사업장 전반에 걸쳐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3) 다양한 아르바이트 직종 개발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르바이트를 제한하며, 특히 중퇴청소년을 위해 단기고용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학교교육을 대체할 만한 고용 프로그램 및 직종 개발에 주력한다.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기회와 아르바이트 직종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인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음성화를 조장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은 전단지돌리기, 음식점 서빙, 신문배달이나 주유소 등 단순 잡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소비를 위한 용돈벌이의 수단에 불과한 아르바이트 직종에서 장래 직업의 탐색이라는 교육적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청소년 스스로도 아르바이트를 저임금, 긴 노동시간,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 없는 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미래 직업과 관련된 진로 탐색과는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원하는 청소년을 위한 단기고용 프로그램이나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기관이나 단체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도제제도를 운영하거나 단기체험 프로그램을 공식화하고 정례화하는 것도 일하면서 배우는 직업체험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단기고용 프로그램이나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학교교육을 대체할 만한 대안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므로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4) 여자청소년을 위한 업종 개발

남자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자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업종을 개발하여 불건전한 노동환경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위기상황에의 노출을 사전에 예방한다.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 열악한 아르바이트 업종의 문제가 여자청소년들에게는 더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열악한 아르바이트 직종가운데, 그나마 신문배달, 음식점 오토바이배달, 건설현장일 등은 남자청소년의 전유직종으로 되어있고, 여자청소년의 경우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서빙, 상점 판매보조, 이벤트행사장 도우미 등에서 남자청소년보다 우위를 나타낼 뿐 전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남자청소년에 비해 훨씬 제한적이다. 아르바이트 시장의 경쟁력에서 남자청소년에게 뒤지는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아르바이트 구직에 어려움을 갖게 되고, 따라서 더욱 '유흥업소 서빙·접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조건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여자청소년의 불건전한 향락산업으로의 유입을 부추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여자청소년들을 위한 특화된 직종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여자청소년의 파트타임을 확대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보육훈련을 통한 청소년 베이비시터 조합이나 노인 돌보기 아르바이트 등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해 보는 기회도 함께 갖게 될 것이다

(5)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보호센터 설립

건전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위한 사회안전망 형성의 일환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보호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불합리한 피해사례로부터 보호한다.

조사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경험하는 피해사례는 매우 다양하며 특히 중퇴한 청소년의 경우 그 피해는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학교교육을 대체하여 자립의 기반을 형성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면에서 아르바이트 혹은 취업에의 참여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노동현장에서 겪을 불합리한 피해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건전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위한 사회안전망 형성의 일환으로 시립 혹은 구립 청소년시설에 아르바이트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지원, 보호사업을 할 수 있는 센터의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자신의 진로와 직업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부정하고, 일의 대가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시간제 취업의 경험이 단지 돈을 벌어 쓰고 싶은데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돈을 벌어보는 보람', '돈벌기 어려운 현실의 체험 및 금전의 중요성', '장래 진로탐색과 직업준비의 과정' 등을 느낄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건전한 직업의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센터에서는 청소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에 대한 고발상담 접수 및 처리 기능을 함께 수행하여 청소년들의 피해 사례를 줄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당하는 부당행위가 구제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부가적으로 동 센터의 존재 및 활용방법을 학교나 청소년들이 잘 가는 장소를 통해 홍보하여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6) 공공 아르바이트 알선 기관 개설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공공통로를 통해 일자리를 중개해 줄 수 있는 공공 아르바이트 알선 기관을 개설하여 비공식적 구직 통로를 통한 유해한 아르바이트 직종에의 노출을 사전에 차단한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청소년들에게 공식적으로 중개해줄 수 있는 공공성을 갖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비공식적인 구직 통로인 친구소개 혹은 베틀시장이거나 교차로 등의 광고지를 이용하고, 공식적인 아르바이트 정보제공 센터를 통해 구직을 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이러한 상황과 기회만 주어지면 일하겠다는 의지는 위험하거나 유해한 아르바이트 직종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 친구나 광고지 등 비공식적 구직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시설 내에 진로상담실 혹은 취업정보실을 마련하여 구인구직의 공식화된 창구를 개설한다면, 청소년들에게 일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적성을 고려한 업종의 선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청소년 불법 고용으로부터의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7) 10대 아르바이트 지침서 개발 및 보급

청소년의 취업과정과 절차, 노동 대가에 대한 권리 및 부당대우에 대한 대처 등 법률적인 지식과 이해를 돕기위해 10대 아르바이트에 관한 중요한 지침을 수록한 매뉴얼 북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청소년의 취업 과정과 절차, 노동 대가에 대한 권리 및 부당대우에 대한 대처 등 법률적인 지식과 이해를 돕기 위해 10대 아르바이트에 관한 중요한 지침을 수록한 매뉴얼 북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청소년 관련 시설 및 학교 등에 보급하고 인터넷 상에 유포함으로써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착취 및 인권침해 등 각종 피해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하기 쉽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적절히 항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특히 중퇴생의 경우, 학교와 같이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없으므로 어려움은 가중된다. 청소년들은 노동과 근로 관련법이나 파트타임 현장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낮기 때문에 부당대우, 임금체불, 초과수당 미지급과 같은 피해를 받게되며, 그들의 당연한 권리행사를 고용주가 악용함으로써 그 피해마저도 청소년에게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청소년의 유흥업소 취업 불가 등 자신들의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반면, 부모동의서 제출, 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지불, 부당요구에 대한 대처법 등 자신의 권리사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지하며, 심지어 근로계약 체결이나 부모동의서 제출 사항이 자신의 권리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취업 과정과 절차, 노동 대가에 대한 권리 및 부당대우에 대한 대처 등 법률적인 지식과 이해를 돕기 위해 10대 아르바이트에 관한 중요한 지침을 수록한 매뉴얼 북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청소년 관련 시설 및 학교 등에 보급하고 인터넷 상에 유포함으로써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 등 각종 피해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8) 중퇴청소년의 취업지원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

중퇴청소년의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지원 프로그램 및 거주지 제공 등 이들을 위한 재활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중퇴청소년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도 학력이나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원활한 취업 및 직업 유지가 어려운 형편인데, 중퇴생의 경우는 그 정도가 훨

쥔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직업훈련이나 임시직 수행 경험을 통하여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또한 정형화된 취업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공통적으로 “전형적”인 취업지원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청소년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직업능력이나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지원책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개인의 경우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활성화하려면, 유연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해야 하며 전문인력의 개별적인 도움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중퇴청소년의 경우 그들의 재활 기회와 사회 복귀 시스템을 갖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원활한 가족 복귀를 위해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가족 복귀가 불가능한 청소년들에게는 거주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대부분의 중퇴 청소년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또 한번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건전한 아르바이트 알선하고, 직업교육과 생활기술 훈련 등을 통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 복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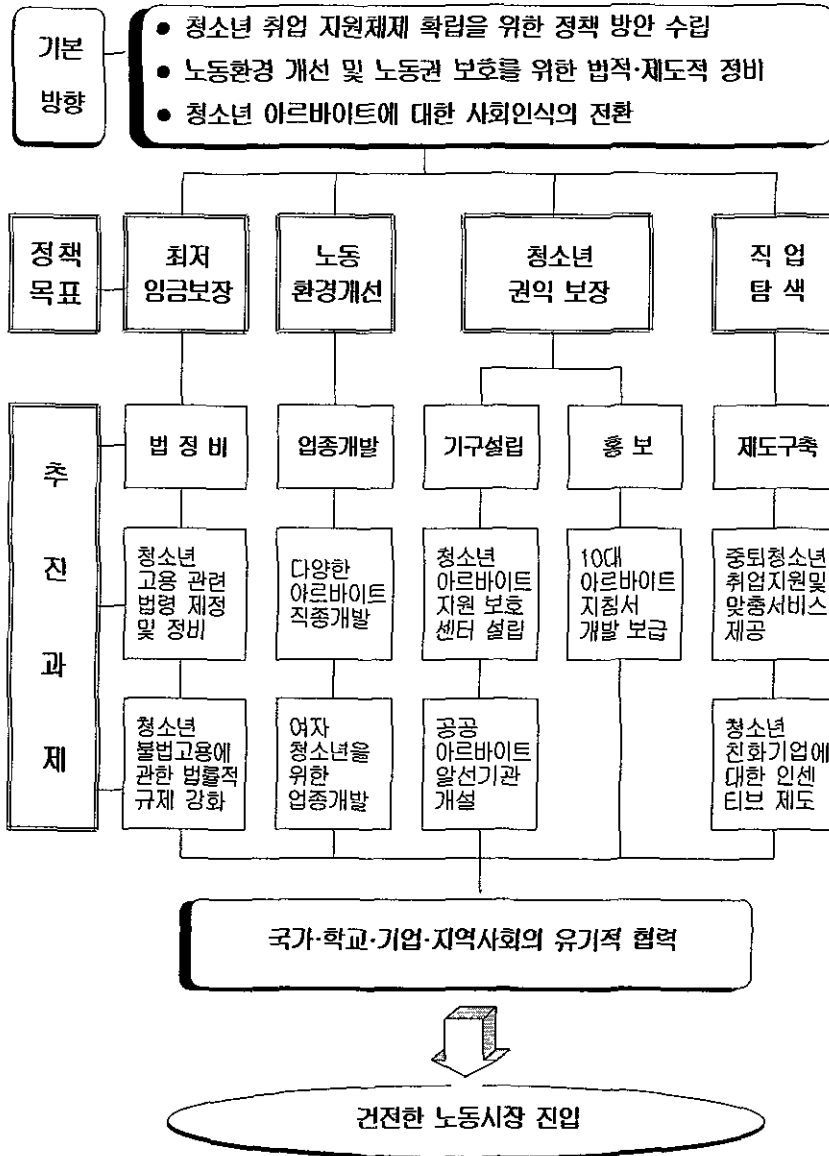
(9) 청소년 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청소년을 위한 아르바이트 제공 및 직업체험의 기회제공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수상제도 혹은 보조금 혜택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통해 청소년의 취업지원 정책에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와 취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청소년을 위한 아르바이트 제공 및 직업체험의 기회 제공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수상제도를 마련하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청소년 친화기업 수상제도는 정부가 사업주체가 되어, 소비자가 주로 청소년

인 기업을 대상으로 청소년 친화기업 수상제도에 대한 취지를 홍보하고, 이를 기업이 청소년을 위한 공익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사부문(Private Sector)은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수상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홍보나 세금혜택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 친화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안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한다고 해서 그 기관이나 회사에 대해 특별히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기관이나 회사는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므로 상당히 이득을 본다는 시각마저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에게 고용 기회를 주는 것은 쉽지 않다. 일을 가르치기도 쉽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맡길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고용업체에 대한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청소년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임금 및 교육훈련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캐나다의 Skills Link와 Summer Work Experience 프로그램도 정부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림 IV-1]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 모형

2. 결론

지금까지 중퇴청소년과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각종 현황과 실태분석, 선진외국의 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 사례조사, 중퇴생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중퇴청소년의 취업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퇴 청소년의 건전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과 그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 및 제도의 방향을 수립하고, 실현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정책을 수행해 나갈 집행자와 실질적인 운영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고, 정책수혜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해마다 수 만명에 달하는 청소년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있지만 학력을 중시하는 우리 나라의 특성 상 중퇴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은 취업지원 보다는 복지지원에 더 중점을 두었고, 중퇴 청소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소홀히 다루어진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의 높은 아르바이트 욕구와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현장 운영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기반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청소년기에는 공부에만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시각이 팽배해 있으므로 건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의 의지와는 달리 아르바이트를 학교교칙으로 금하고 있거나 제한하여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중퇴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실제적으로 학교교육을 대체할 만한 취업지원이 더 필요하고, 직업을 통해 이들이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자립을 이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사회 안에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있고, 학생

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에 국가, 기업,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는 선진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 시각은 변화되어야 하며, 10대 청소년들의 생활문화는 급변하고 있음에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성 없는 정책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근로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보호하고 규제하려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의 일할 권리와 직업체험의 의미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노동권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시각과 정책의 방향은 이제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와 청소년의 사회경험 확대라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사회적 안전망 확보 필요성과 학습권과 노동권의 결합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직업체험 혹은 일의 학습을 청소년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면서 청소년 직업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 일의 학습 및 직업체험의 교육적 효과야말로 21세기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임을 인식할 때이며, 시대적 변화에 걸 맞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때이다.

사회·경제 및 교육적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10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청소년기에 불필요한 과업, 더 나아가 불건전한 것으로 치부하여 형성된 열악한 청소년 노동환경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체제를 구축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탐색하는 자아실현 과정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이제 결정해야 할 때이다. 청소년기에 학생은 공부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사회 인식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은 변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공부와 일과 여가를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자신 특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사회적 주체라는 인식

을 새롭게 할 때이다.

이러한 거시적인 인식의 전환 틀 속에서 위에 제시된 구체적 대안들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해질 것이며, 이러한 대안들은 국가와 기업, 학교, 민간단체 및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안들은 청소년들의 생활문화를 이해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려는 사회복지적 접근 방법이 고려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도 학업 이외에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으며, 청년기의 노동 경험은 미래 직업세계를 탐색하고 준비하는데 긍정적이고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청소년들의 일할 권리와 일하는 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고, “맥도날드” 임직원의 파반수 이상이 매장 아르바이트 출신이라는 신화적인 외국의 사례도 우리에게 실현 가능한 일로 다가올 것이다.

아울러, 중퇴생을 위한 아르바이트 지원정책에는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학생’의 경우는 ‘학생’이라는 설정 자체만으로도 보호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지만, 중퇴·가출한 청소년들의 경우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문제아’로 보는 시선이 강하며,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더 많은 부당 행위와 피해의 사례로 등장한다. 학교교육에 실패한 이들에게 학교교육을 대체할 만한 재할 기회를 제공하고 원만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정책이 한층 강화되어야 하며, 이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을 비롯하여 보다 종합적인 지원 대책 수립과 시스템 구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종합적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선입견이나 부정적인 시각을 배제하고,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들의 생활에 제공하는 유용성을 더욱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중퇴청소년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은 이들이 처한 위기상황으로부터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공 백

참고문헌

<국내문헌>

- 구자경 외(2001). 청소년의 자퇴욕구실태와 관련특성 연구. 서울특별시 청소년종합상담실.
- 권혜자(1996). 경제위기 후 청년고용의 변화와 노동조합 정책과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김경식(1997). 「중·고교 중퇴생 문제의 고찰」. 교육사회학 연구 7
- 김동춘(2001). 독립된 지성은 존재하는가. 삼인.
- 김부태(1997). 한국학력사회론. 내일을 여는 책.
- 김정아(2002).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기민(1992) 노작교육의 교육적 가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유선(1999). 단시간근로자 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홍근(1998). 파트타임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화관광부(2002). 청소년백서
- 박성정(1986). 산업사회에서의 노동의 교육적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창남(2000). 일하는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와 인권증진방안. 일하는 청소년의 실태와 지원방안 모색. 이천 YMCA 2000.
- 박창남 외(2001).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백성준·채창균 외(2001).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2000) 십대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연구.

서울특별시.

서울YMCA(2000).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서울YMCA진로진학상담실.

송광성 외(1992). 정학·퇴학청소년 선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송복 외(1996). 학업중퇴자 연구·실태와 대책.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오문환(1997). 단시간 근로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유성경·이소래(1998).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II.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개입체계 개발연구. 청소년대화
의광장.

윤성한(1995). 「실업계 고교생 아르바이트가 늘고 있다」. 우리교육(중
등용). 1995. 10.

윤여각(2002). 학업중단 청소년 정책 및 실태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이광호 외(20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실태 및 정책방안 모색 연구.
문화관광부.

이광호(2001). 「청소년 아르바이트(일)의 사회적 의미 이해에 관한 연
구」. 청소년 복지연구 제 3권 제2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이돈희(1998).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교육의 역할. 교육이 변해야 미래
가 보인다. 서울: 현대문학.

이병록(1997). 한국청소년 노동시장 현황과 그 문제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이숙영·남상인(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서울:청소년대화의 광장.

이철위·박창남·정혜영(2000).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실태와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이혜정(2000).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보고. 일하는 청소년 권익보
호및 지원을 위한 1차 공개토론회. 「청소년 아르바이트 소비

- 육구의 분출인가? 일할 권리의 실현인가!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지원방안 모색」. 서울 YMCA.
- 인권운동사랑방(2002). 청소년 노동실태 보고서. 가톨릭대학생연합회 현장실천위원회.
- 임희섭(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나남출판.
- 장석민(1988). 중퇴 및 비진학 청소년의 진로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 장원섭 외(199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00). 청소년 시간제 취업의 진단과 대책. 일하는 청소년 권익익호 및 지원을 위한 1차 공개토론회. 「청소년 아르바이트 소비육구의 분출인가? 일할 권리의 실현인가!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지원방안 모색」. 서울 YMCA.
- (2001). 직업체험의 교육적 의미: 청소년 시간제 취업을 중심으로. 나는 일도 하고싶다. 한국청소년개발원·서울YMCA 공동 세미나 발표집.
- 전경숙(1999). 가출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외(2001). 소외청소년의 복지육구 조사연구(III). 한국청소년개발원.
- 외(2002). 범죄청소년의 사후정착을 위한 중간처우시설 운영모델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조영승 외(2001). 경기도 지역 중퇴생 선도·보호방안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경기도.
- 조한혜정(1996).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서울:또 하나의 문화.
- 조홍식·김경준·김경호(1999).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진미석(1999). 일과 학습의 연계를 위한 진로지도 체제 강화. 새교육

공동체위원회

- 참여연대 사회인권팀(2002). 청소년노동의 실태와 문제. 참여연대 알바 권리찾기캠페인. 제1차 정책토론회.
- 채창균(2001).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직업능력개발연구. 제4권 제2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경수(1997) 단시간 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표갑수(1995). 아동·청소년복지론. 청주대학교출판부.
- 한경혜(2000).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그 과정과 의미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 11권 2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2). 「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방안」. KRIVET 정책토론회.

<국외문헌>

- 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ACER) (1999). *The Effects of Part-time Work on School Students*. (Longitudinal Surveys of Australian Youth Research Report No. 9) 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 Bill, D. B, L. B. Helms and M. Ozcan(1995). The impact of student employment on teacher's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working students, *Youth and Society* 27, p. 169-193.
- Bowlby, Jeffrey W. and Kathryn McMullen(2002). *At a Crossroads. First Results for the 18 to 20-year-old Cohort of the Youth in Transition Surve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and Statistics Canada.
- Carr, R. V, J. D. Wright and C. J. Brody(1996). Effects of high school work experience a decade later : evidence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Sociology of Education* 69,

- p. 66-81.
- Diane, C. K., and Forrest, A. D (1995). Households, local labor markets, and Youth labor force Participation. *Youth and Society* 26, p. 463-492.
- ESCAP(1988). *Jakarta Plan of Action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ESCAP Region*. Bangkok:ESCAP.
- Green, D. L. (1990). High school student employment in social context :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 role of part-time work, *Adolescence* 25, p. 425-434.
- Greenberger E & Steinberg L. D. (1986). *When teenage work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costs of adolescent employment*. NY Basic Books.
- Hansen & Jarvis(2000). Adolescent employment and psychosocial outcomes. A comparison of two employment contexts. *Youth and Society* Vo. 31 No 4. pp. 417-437.
- Horan, P., & Hargis, P. (1991). Children's work and schooling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family econom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p. 583-596.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2002). *Knowledge Matters' Skills and Learning for Canadians*. Ottaw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Applied Research Branch(2000). *Youth in Transition Survey: Project Overview*. Ottaw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 Jobs for the Future and John J. Heldrich Center for Workforce Development(2002). *Evaluation of the Transition to Comprehensive Youth Services Under the Workforce*

- Investment Act*. Prepared for the U.S. Department of Labor/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Office of Youth Opportunities Under Task Order #K-6826-8-00-80-30.
- Kaufman, Phillip and Christopher D Chapman(2000). *Dropout Rates in the United States: 2000*.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NCES 2002-114.
- Lavoie, Claude and A. Béjaoui(1998). *Youth Employment Situation in Canada: Explanations and Future Outlook*. Ottaw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Strategic Policy, Applied Research Branch.
- Markus et al(1990). The role of the self-system in competence. In: Steinberg R. J. & J. Kolligan (eds). *Competence considered* pp. 205-226.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McNeal, Ralph B.(1997). "Are Students Being Pulled out of High School? The Effect of Adolescent Employment on Dropping out." *Sociology of Education* 70: 206-220.
- Mortimer et al(1986). The effect of part-time work on self-concept and achievement. In: Borman K & Reisman J (eds). *Becoming a worker*. pp. 66-89 Norwood NJ Albex.
- Parent, Daniel(2002). "The Causal Effect of High School Employment on Educational Attainment in Canada." McGill University and CIRANO.
- Quirk, Kimberly J., Timothy Z. Keith and Jeffrey T. Quirk(2001).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and Student Achievement: Longitudinal Analysis of National Dat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5: 1-9.

- Schoenhals, Mark, M. Tienda, and B. Schneider(19980. "The Educational and Personal Consequences of Adolescent Employment." *Social Forces* 77: 723-761.
- Sum, Andrew, Ishwar Khatiwada, Nathan Pond, Mykhaylo Trubskyy, Neeta Fogg and Sheila Palma(2002). *Left Behind in the Labor Market: Labor Market Problems of the Nations Out-of-School, Young Adult Populations*. Illinois, Chicago: Alternative Schools Network.
- UN/ESCAP(1997). *Review of the Youth Situation, policies and Programmes in Asia and the Pacific*. UN.
- UNDP(1990). *Human Development Report 1990*. UN Development Program.
- Unesco(1997). *Turning in to Youth : How to involve it in Unesco's Ideals*. 151 EX/17, Paris:Unesco.
-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2000). *Multiple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s*. (Report to the Chairman, Committee on Budget,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01-71.

- 大久保幸夫(2002)『なぜ 彼らは就職しないのか』東洋経済新報社。
- 学研(2001)『フリーターなぜ?どうする? フリーター200万人時代がやってきた』。
- 小杉礼子(2001)「フリーターの現状と課題『労働時報』2001年3月号。
- 総務庁 (1997)『就業行動基本調査』。
- _____ (2000)『労働力調査特別調査』。
- 竹内常一・高生研編(2002)『揺らぐ学校から仕事へ>労働市場変容と10代』青木書店。
- 日本労働研究機構編(2001)『大都市の若者の就業行動と意識 広がるフリー

ター経験と共感』日本労働研究機構。

_____ (2000) 『進路決定をめぐる高校生の意識と行動 高卒「フリーター」
増加の実体と背景』日本労働研究機構。

_____ (2000) 『フリーターの意識と実態 97人へのヒアリング結果より』日本
労働研究機構。

内閣府 編(2003) 『青少年白書』。

古郡鞆子(1997) 『非正規労働の経済分析』東洋経済新報社。

文部科学省 編(2002) 『文部科学白書』。

文部省(各年) 『学校基本調査』

<신문기사 및 인터넷 사이트>

경향신문(2002년 12월 25일자). 임금체불·폭행·성희롱 등 부당노동
행위 무방비...제몫 못 받는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한매일(2003년 2월 10일자). 사회면 기획·연재, 향락산업 퇴폐로 달
리는 사회3. 10대부터 아줌마까지 섹스산업으로.

동아일보(2003년 3월 3일자). PC방서 유희거래 기승...유희가 룸살롱
주변선 '접대부 대기실'전락.

동아일보(2003년 6월 10일자). 특집기획연재, 건강한 인터넷 : 화상채팅
'잠깐 방심'이 '덧'으로...

문화일보(2001년 11월 29일자) 오피니언: 여론마당, 부모 허락 없는
초등생 아르바이트는 탈선 위험'

문화일보(2003년 3월 12일자). 사회면, 원조교제 연령 낮아졌다.

문화일보(2003년 5월 10일자). 여론마당, 생활정보지 불법광고 지나쳐.

조선일보(2003년 5월 30일자). 진단과 기획:10대 게임중독 '위험수위'-
"중학생 27%가 中毒"...직장인까지 확산.

조선일보(2002년 12월 25일자). 사회면(통계), 아르바이트 중·고교생
성희롱 당하고 체임도.

조선일보(2003년 6월 16일자). 사이버머니 장사꾼 PC 110대로 모은뒤

7000만원 받고 팔아.

한국일보(2002년 11월 22일자). 특집 기획연재, 이슈와 현장·방·알바
먼저 구해놓고 가출하죠.

한국일보(2003년 6월 18일자). 아침을 열며 : 性매매 여성 보호를.

<http://uniweb.unitel.co.kr:8083/class/counsel/career/acad/acadhelp/bong03.htm>). <http://jahwal.or.kr/young/young.htm>

공 백

부 록

1. 설문지
2. 심층면접 사례

공 백

<부록 1> 설문지

--	--	--	--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관련 각종 연구·조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올해 본원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었던 문제점은 무엇인지, 보다 안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청소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바람이나 욕구는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려고 합니다. 본 조사는 불리한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으로부터 청소년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조사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응답에 따른 비밀이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또한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연락처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연구책임자 전정숙 (TEL 02-2188-8836, FAX: 02-2188-8829)

다음은 여러분의 용돈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보기에 V 표해 주십시오.

1. 당신은 한달 평균 얼마 정도의 용돈을 쓰나요?

- ☐ ① 5만원 이하 ☐ ② 6만 - 10만원
☐ ③ 11만원 - 15만원 ☐ ④ 16만원 - 20만원
☐ ⑤ 21만원 이상

2. 현재의 용돈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 ☐ ① 매우 많다 ☐ ② 약간 많다 ☐ ③ 적당하다
☐ ④ 약간 적다 ☐ ⑤ 매우 적다

3. 용돈은 주로 어떻게 마련하나요?

- ☐ ①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받는다
☐ ②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타서 쓴다
☐ ③ 아르바이트로 벌어서 마련한다
☐ ④ 친구에게 빌리거나 의존한다

4. 용돈은 주로 어디에 쓰나요? 많이 쓰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고르세요

- ☐ ① 이동통신(핸드폰 등) 구입 및 이용료
☐ ② 영화, 연극 등 공연관람 및 음반구입
☐ ③ 옷, 신발, 화장품, 악세사리 구입비용
☐ ④ PC방, 오락실, 노래방 등 이용비
☐ ⑤ 간식, 군것질 등 식비
☐ ⑥ 참고서, 학용품 구입
☐ ⑦ 저축

5. 용돈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어떻게 충당하나요?

- ☐ ① 부모님에게 더 받는다 ☐ ②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다
☐ ③ 아르바이트를 한다 ☐ ④ 친구에게 의존한다
☐ ⑤ 돈을 훔치거나 빼앗는다

다음은 여러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해 주십시오.

11. 당신이 가장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 ___ ① 13세 미만 ___ ② 13-15세
___ ③ 15-18세 ___ ④ 18세 이상

12. 지금까지 해 보았던 아르바이트는 무엇인가요? (모두 선택해 주세요)

- ___ ①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 ___ ② 패스트푸드점(서빙·카운터)
___ ③ 24시간 편의점(점원) ___ ④ 상점 판매보조
___ ⑤ 신문·우유배달 ___ ⑥ 주유소
___ ⑦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___ ⑧ 건설현장, 이삿짐 센터 등 막노동
___ ⑨ 유흥업소 서빙·접대 ___ ⑩ 음식점(피자, 치킨, 분식집 등)에서 서빙
___ ⑪ 유흥업소 호객(빼끼) 담당 ___ ⑫ 음식점(피자, 치킨, 중국집 등)에서 배달
___ ⑬ 기타 : _____

13. 가장 최근에 해보았던, 혹은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는 무엇인가요?

- ___ ①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 ___ ② 패스트푸드점(서빙·카운터)
___ ③ 24시간 편의점(점원) ___ ④ 상점 판매보조
___ ⑤ 신문·우유배달 ___ ⑥ 주유소
___ ⑦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___ ⑧ 건설현장, 이삿짐 센터 등 막노동
___ ⑨ 유흥업소 서빙·접대 ___ ⑩ 음식점(피자, 치킨, 분식집 등)에서 서빙
___ ⑪ 유흥업소 호객(빼끼) 담당 ___ ⑫ 음식점(피자, 치킨, 중국집 등)에서 배달
___ ⑬ 기타 : _____

14. 그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 ___ ① 보수 ___ ② 시간적 여유 ___ ③ 나의 적성
___ ④ 일하는 근무환경 ___ ⑤ 숙식제공
___ ⑥ 오랫동안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가의 여부
___ ⑦ 무조건 구해지는 대로 함

15. 그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구하였나요?

- ___ ① 친구소개로 ___ ②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로
___ ③ 상점이나 길가에 붙은 광고전단을 보고
___ ④ 직업소개소 소개로 ___ ⑤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___ ⑥ 벼룩시장, 교차로 등을 보고 ___ ⑦ 아르바이트 정보제공 센터 소개로

16.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서 번 돈은 얼마였나요?

16-1 시간당 보수는? (일당일 경우 ---> 16-2번 질문으로)

- ___① 1,500원 미만 ___② 1,500 - 2,000원
___③ 2,000 - 2,500원 ___④ 2,500 - 3,000원
___⑤ 3,000원 이상

16-2. 일당일 경우 하루 당 보수는? (원)

17.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날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일 했나요?

- ___① 1-2시간 ___② 3-4시간
___③ 5-6시간 ___④ 6-7시간
___⑤ 8-9시간 ___⑥ 10-11시간
___⑦ 11시간 이상

18.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일주일에 보통 몇 일 정도 일하였나요?

- ___① 매일 ___② 1-2일 ___③ 3-4일
___④ 5-6일 ___⑤ 정해져 있지 않다

19. 그 아르바이트를 얼마 동안 계속했나요?

- ___① 약 1-15일 ___② 약 15-30일 ___③ 약 2개월
___④ 약 3개월 ___⑤ 약 4개월 ___⑥ 약 5개월
___⑦ 약 6개월 이상

20.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나요?

- ___① 작성했다 ___② 작성하지 않았다

21.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서'를 회사나 고용주(사장)에게 제출하였나요?

- ___① 제출했다 ___② 제출하지 않았다

22. 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___① 평소 용돈이 부족해서 ___② 무엇인가를 꼭 사거나 쓸 곳이 생겨서
___③ 친구들의 권유로 ___④ 여가시간을 활용하려고
___⑤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___⑥ 가정경제(생활비, 학비)에 도움이 되기 위해

23. 그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가장 많이 쓴 곳 두 가지만 고르세요.

- ☐ ① 이동통신(핸드폰 등) 구입 및 이용료
☐ ② 영화, 연극 등 공연관람 및 음반구입
☐ ③ 옷, 신발, 화장품, 악세사리 구입비용
☐ ④ PC방, 오락실, 노래방 등 이용비
☐ ⑤ 간식, 군것질 등 식비
☐ ⑥ 참고서, 학용품 구입
☐ ⑦ 저축
☐ ⑧ 수업료, 학원비
☐ ⑨ 집안 생활비로 드림

다음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은 어려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해 주십시오.

24.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한 부당한 대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있다	없다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①	②
2) 야근을 하거나 일요일에 일하고 특별수당을 받지 못했다	①	②
3)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①	②
4)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①	②
5)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①	②
6)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①	②
7) 일하면서 폭언이나 구타 등 인격적 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8) 일하면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9) 기타 (구체적으로 ')		

25 위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나요?

- ☐ ① 고발하고 싶었으나 어떤 기관을 찾아가야 할지 몰라서 못하였다
☐ ② 그냥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참고 일하였다
☐ ③ 주인이나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항의했다
☐ ④ 친구나 가족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 ⑤ 경찰이나 노동사무소에 신고했다
☐ ⑥ 스스로 일을 중단하였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난 후의 생각과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해 주십시오.

26. 아르바이트를 한 것에 만족하십니까?

___ ① 매우 만족

___ ② 만족

___ ③ 조금 불만족

___ ④ 매우 불만족

27.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___ ① 낮은 임금수준

___ ② 임금체불

___ ③ 사업주나 직원의 인격모독

___ ④ 구타나 폭행

___ ⑤ 위험한 주변환경

___ ⑥ 기타 _____

28. 아르바이트가 경제적으로 당신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___ ①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___ ② 약간 도움이 되었다

___ ③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___ ④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29.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후 소비생활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___ ① 지출이 많이 늘었다

___ ② 지출이 조금 늘었다

___ ③ 변화가 없다

___ ④ 지출이 조금 줄었다

___ ⑤ 지출이 많이 줄었다

30.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이 가장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는 무엇인가요?

___ ①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

___ ② 패스트푸드점(서빙·카운터)

___ ③ 24시간 편의점(점원)

___ ④ 상점 판매보조

___ ⑤ 신문·우유배달

___ ⑥ 주유소

___ ⑦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___ ⑧ 건설현장, 이삿짐 센터 등 막노동

___ ⑨ 유흥업소 서빙·접대

___ ⑩ 음식점(피자, 치킨, 분식집 등)에서 서빙

___ ⑪ 유흥업소 호객(빼끼) 담당

___ ⑫ 음식점(피자, 치킨, 중국집 등)에서 배달

___ ⑬ 기타 : _____

31. 다음은 아르바이트의 긍정적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일치하는 곳에 V표 하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르바이트로 인해 경제적 독립심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돈의 귀중함을 알게되어 돈을 좀더 계획적으로 사용	①	②	③	④	⑤
3)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었고 사회생활 경험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앞으로의 진로 결정과 나의 적성 판단에 도움을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5) 아르바이트하면서 일의 보람과 직업의 중요성을 알게 됨	①	②	③	④	⑤
6) 아르바이트 후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32. 다음은 아르바이트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일치하는 곳에 V표 하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르바이트 후 수업이나 학과 공부에 흥미가 감소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아르바이트 이후 잔병치레가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3)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횟수가 늘어났고,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4)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료들과 싸우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패싸움을 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①	②	③	④	⑤
5) 아르바이트 이후 외박이나 가출이 늘어났다	①	②	③	④	⑤
5) 아르바이트 이후 성경험을 하게 되었거나 성경험이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6) 아르바이트 이후 나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소비 욕구가 늘어나서 물건 구입이나 씹씀이가 늘어났다	①	②	③	④	⑤

33. 아르바이트가 당신이 앞으로 갖게 될 직업과 얼마나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____ ① 많이 연결된다

____ ② 약간 연결된다

____ ③ 별로 연결되지 않는다

____ ④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34.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나 사회가 지원해야 할 중요한 것으로 두 가지만 고르세요.

☐ ① 취업알선(일자리 소개) ☐ ② 청소년 노동권 보호(고발센터운영)
☐ ③ 많은 일자리 마련 ☐ ④ 사회의 인식변화(문제아로 보지 않기)
☐ ⑤ 임금인상 ☐ ⑥ 위험한 근로환경 개선

35. 다음의 사항들은 현재 여러분들 개인에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1)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도움	①	②	③	④	⑤
2) 복교 및 진학에 대한 정보	①	②	③	④	⑤
3)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취업정보센터	①	②	③	④	⑤
4) 취업준비와 관련한 직업훈련 교육	①	②	③	④	⑤
5) 경제적인 도움이나 후원자 연결	①	②	③	④	⑤
6) 충분한 여가시간과 취미활동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보기에 V 표해 주십시오.

36. 당신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 ① 남자 ☐ ② 여자

37. 당신의 현재 나이는?

☐ ① 13세 미만 ☐ ② 14세 - 15세
☐ ③ 16세 - 17세 ☐ ④ 18세 이상

38. 현재의 학교나 시설에 오기 전,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나요(언제 중퇴하였나요)?

☐ ① 초등학교(1-3학년) ☐ ② 초등학교(4-6학년)
☐ ③ 중학교 1학년 ☐ ④ 중학교 2학년 ☐ ⑤ 중학교 3학년
☐ ⑥ 실업고 1학년 ☐ ⑦ 실업고 2학년 ☐ ⑧ 실업고 3학년
☐ ⑨ 인문고 1학년 ☐ ⑩ 인문고 2학년 ☐ ⑪ 인문고 3학년

<부록 2> 심층면접 사례

<사례 1>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사항	성별(연령)	여(17세)	중 퇴경험 / 학력	중1퇴, 고입 검정고시 준비중
	가족관계			
	부모이혼, 할머니랑 살다가 가출함			
	친구관계		텀터·아르바이트 친구들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까지 경험한 직종			
	전단지, 식당, 미용보조원 등			
	주로 경험한 직종		미용보조원	
	임금/조건		50만원/11~8시까지	
	구직이유		생활비 마련, 향후 희망하는 관련 직종이라서	
	소비내용		주로 생활비와 미용도구 마련	
	만족도/느낀점 (긍정·부정적 측면)		돈 벌면서 공부하기 너무 어려움 남들처럼 공부만 하고 싶음	
부당대우 경험	부당대우 경험내용			
	욕설 정도			
	특별한 부당대우		별다른 부당 대우는 없었음	
	대처방식		×	
권리 및 보호 관련규정인지도	아르바이트권리보호법			×
	부모동의서 제출			○
	근로계약서 작성			×
	상해시치료비·보상청구			×
	초과근무시 특별수당 지급			○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향	문제점		성인과 동일한 임금이었으면 함	
	개선점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음	
	다른구직여부		×	
	향후희망직업		헤어 디자이너	

<사례2>

구분	내용		주요사항	
	성별(연령)	여(17세)	중퇴경험/학력	중1가출, 중2중퇴, 고입검정고시 준비중 워드, 웹자격증 등 소지
개인사항	가족관계			
	부모이혼, 엄마 언니 가출, 본인은 현재 자취생활			
	친구관계		대부분 쉼터와 아르바이트 친구들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까지 경험한 직종			
	분식집, 커피숍, 빵집, 전화방 등			
	주로 경험한 직종		분식집	
	임금/조건		오전10-7시(월70-80만원)	
	구직이유		생활곤란, 언니 법정문제 준비금 마련	
	소비내용		식비, 저축, 가족문제 해결	
	만족도/느낌점 (긍정·부정적 측면)		남들처럼 공부하고 싶은 꿈과 마음이 모두 힘들	
부당대우 경험	부당대우 경험내용			
	-임금체불, 작업장 욕설, 성희롱 등, -낮에는 커피숍, 밤에는 단란주점으로 변화, 윤락을 강요함			
	특별한 부당대우		빵집 임금체불, 욕설	
	대처방식		언니가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협박, 이후 체불된 임금 받아냄	
권리 및 보호 관련규정인지도	아르바이트권리보호법		×	
	부모동의서 제출		×(부모부재)	
	근로계약서 작성		×	
	상해시치료비·보상청구		×	
	초과근무시 특별수당 지급		×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향	문제점		집안사정상 학교 다닐 수 없는 환경	
	개선점		임금체불 해결, 꾸준한 일자리 필요	
	다른구직여부		가족의 생계곤란으로 필요	
	향후희망직업		간호사, 피아노 교사	

<사례3>

구분	내용		주요사항	
	성별(연령)	여(18세)	중퇴경험/학력	중2퇴, 고교 검정고시 준비중
개인사항	가족관계			
	부모이혼, 할머니랑 생활하다 가출함			
	친구관계		텀터, 아르바이트 친구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까지 경험한 직종			
	신문배달, 전단지, 주유소,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식당 등			
	주로 경험한 직종		주유소 주유원	
	임금/조건		9-6시, 시급 2,300원	
	구직이유		이전에는 용돈을 주지 않아서, 현재는 생활비 마련	
	소비내용		생활비와 학원비 등	
	만족도/느낀점 (긍정·부정적 측면)		일하는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이는 것이 싫었고, 창피했음	
부당대우 경험	부당대우 경험내용			
	지각 등으로 임금삭감, 임금체불 등			
	특별한 부당대우		임금체불	
	대처방식		친구랑 신고한다고 해 받아냄	
권리 및 보호 관련규정인지도	아르바이트권리보호법		×	
	부모동의서 제출		○	
	근로계약서 작성		×	
	상해시치료비·보상청구		×	
	초과근무시 특별수당 지급		×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향	문제점		한달을 채우지 않으면 임금받지 못함 청소년이 일하는 것에 대한 안좋은 시선	
	개선점		성인과의 임금격차가 너무 큼 아르바이트라도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음	
	다른구직여부		미용실 아르바이트	
	향후희망직업		헤어 디자이너, 마사지 등 미용관련업무	

<사례4>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사항	성별(연령)	여(19세)	중 퇴 경 험 / 학 력	중2퇴, 가솔 고입검정고시준비중
	가족관계			
	부모이혼, 가족해체, 현재 쉼터생활			
	친구관계		쉼터, 아르바이트 친구들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까지 경험한 직종			
	동대문 분식배달(현재), 주방일, 전단지, 신문배달 등			
	주로 경험한 직종		분식점 배달과 주방일	
	임금/조건		숙식제공+한달 30만원(한나절)	
	구직이유		가솔 후 숙식이 필요함	
	소비내용		생활비	
	만족도/느낀점 (긍정·부정적 측면)		힘들었고 일반 친구들 부러움 특히 방학 때가 제일 쓸쓸함	
부당대우 경험	부당대우 경험내용			
	욕설, 식당주인의 성희롱 등			
	특별한 부당대우		성희롱	
	대처방식		그냥 참음	
권리 및 보호 관련규정인지도	아르바이트권리보호법			×
	부모동의서 제출			○
	근로계약서 작성			×
	상해시치료비·보상청구			×
	초과근무시 특별수당 지급			○(분위기상 청구곤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향	문제점		똑같이 일해도 성인과의 임금차이가 큼	
	개선점		임금차이해결, 일하고 싶은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결기능이 필요함	
	다른구직여부		관련된 직종에서 경험을 쌓고 싶음	
	향후희망직업		피부관리사, 헤어디자이너	

<사례5>

구분	내용		주요사항	
			성별(연령)	여(17세)
개인사항	중 퇴 경험 / 학력		중3퇴 고입검정고시 준비중	
	가족관계		모 가출, 부 재혼, 친여동생과 함께 가출	
	친구관계		테니스부 친구, 가출한 친구들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까지 경험한 직종		신문배달, 노래방(보도), 테니스강사, 한식집, 업소 전화방 등	
	주로 경험한 직종		한식집 써빙	
	임금/조건		하루 5시간, 월급 30만원	
	구직이유		테니스 선수생활시도 비용 필요함 가출시 생활비 마련	
	소비내용		생활비, 교통비, 숙식비 등	
	만족도/느낀점 (긍정·부정적 측면)		한식집들은 너무 힘들 일하기 힘들지만 집에는 가기 싫었음	
부당대우 경험	부당대우 경험내용			
	심한 욕설과 업소들의 경우 2차 강요			
	특별한 부당대우		2차 강요와 협박	
	대처방식		고소	
권리 및 보호 관련규정인지도	아르바이트권리보호법		×	
	부모동의서 제출		×	
	근로계약서 작성		×	
	상해시치료비·보상청구		○(이후에 알게 됨)	
	초과근무시 특별수당 지급		×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향	문제점		가출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음 청소년들이 할만한 일이 많았으면 함	
	개선점		건전한 구직 창구가 많았으면 함	
	다른구직여부		헤어와 관련된 직종에서 일하고 싶음 집안사정도 좋지 않고, 일해야만 함	
	향후희망직업		헤어 디자이너	

<사례6>

구분	내용		주요사항	
	성별(연령)	여(17세)	중퇴경험/학력	중2 퇴학, 가출 고입검정고시 준비중
개인사항	가족관계			
	부모별거상태(부 중풍, 모 가출), 가족해체, 언니 업소			
	친구관계		함께 가출한 친구들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까지 경험한 직종			
	한식집, 티켓다방, 전화방을 통한 원조교제 등			
	주로 경험한 직종		중학교 재학중 티켓다방, 단란주점	
	임금/조건		주간 낮1-7시, 야간 7-새벽3시 한달 150만원 정도+a	
	구직이유		부모님 관심 없었고, 용돈도 없었음	
	소비내용		생활비, 유흥비, 옷값 등	
	만족도/느낌점 (긍정·부정적 측면)		손쉽게 돈벌 수 있다는 생각 부모님의 간섭없이 혼자 벌어서 살 수 있다는 점이 좋았음	
부당대우 경험	부당대우 경험내용			
	2차 강요, 단란주점에서는 빚을 지게 됨 등			
	특별한 부당대우		단란주점의 경우, 지속적인 2차 강요	
	대처방식		위협해서 저항하기 힘들었음	
권리 및 보호 관련규정인지도	아르바이트권리보호법		×	
	부모동의서 제출		○(근래에 알게 됨)	
	근로계약서 작성		×	
	상해치료비·보상청구		×	
	초과근무시 특별수당 지급		×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향	문제점		가출상태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	
	개선점		건전한 일자리 취업이 가능했으면 함	
	다른구직여부		컴퓨터 관련 직종	
	향후희망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 피부미용관련 직종에 일하고 싶음	

<사례7>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사항	성별(연령)	여(16세)	중 퇴 경험 / 학력	중1퇴, 퇴학처리당함 가퇴원상태(6호처분)
	가족관계			
	부모연락두절, 할머니와 생활하다, 돈문제로 싸운 후 가출			
	친구관계		아르바이트 친구들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까지 경험한 직종			
	노래방도우미, 단란주점, 전화방, 주유소 등			
	주로 경험한 직종		노래방 도우미	
	임금/조건		10만원 내외(2차의 경우+a)	
	구직이유		자신과 할머니의 생활비 필요	
	소비내용		30-35만원 저축, 할머니용돈 5만원 나머지 생활비(교통비 등)와 학원비	
	만족도/느낀점 (긍정·부정적 측면)		벅찬 시간이 빨리 간다는 점이 좋음 할머니생활비 도움가능하다는 자부심 일다가 일반 학생들이 부러움	
부당대우 경험	부당대우 경험내용			
	노래방도우미·단란주점의 경우 2차강요 경험 많음 주유소는 막내이기 때문에 잘 해 줌			
	특별한 부당대우		2차 요구, 거절하다 욕설 들음 주유소 손님들에게 들은 욕설	
	대처방식		주점이동을 통해 해결 주유소의 경우는 참음	
권리 및 보호 관련규정인지도	아르바이트권리보호법			×
	부모동의서 제출			쉼터에서 대신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
	상해시치료비·보상청구			×
	초과근무시 특별수당 지급			○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향	문제점		미성년자는 임금, 구직 모든 조건이 취약	
	개선점		이용가능한 구직활성화대책이 필요	
	다른구직여부		검정고사까지 주유소에서 지속할 계획	
	향후희망직업		애견미용사, 가수 등	

<사례8>

구분 \ 내용	주요사항		
개인사항	성별(연령)	여(18세)	중퇴경험 / 중1퇴, 가출 고졸검정고시 준비중
	가족관계		
	모 가출, 부. 알콜중독 재혼, 오빠 연락 두절, 현재 쉼터생활		
	친구관계	쉼터의 친구들이 전부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까지 경험한 직종		
	티켓다방, 술집, 갈비집(현재) 등		
	주로 경험한 직종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속인 후, 직업소개소(소개비 70만원) 통해, 티켓다방에 2년 동안 종사	
	임금/조건	월급150만원+숙식제공+a(배달장부)	
	구직이유	가출 이후 생활비 마련 다방의 경우, 직업소개서를 통해 구직	
	소비내용	술, 화장품, 옷 등 생활비 마련	
	만족도/느낀점 (긍정·부정적 측면)	알콜중독과 아빠가 싫어서 가출 가출 후 생활비 마련이 급선무 다방은 안좋은 기억을 많이 남김	
부당대우 경험	부당대우 경험내용		
	접대하는 손님의 욕설과 여러 가지 요구에 시달림		
	특별한 부당대우	욕설 정도	
	대처방식	그냥 참았음	
권리 및 보호 관련규정인지도	아르바이트권리보호법	x	
	부모동의서 제출	o(쉼터에서 작성해줌)	
	근로계약서 작성	x	
	상해시치료비·보상청구	o	
	초과근무시 특별수당 지급	o(비현실적 조항)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향	문제점	구직시, 나쁜 곳 소개가 근절되어야 함 미성년자도 일할 수 있어야 함	
	개선점	직업소개서 생활신문 개선이 필요	
	다른구직여부	학원비, 생활비 등을 위해 필요	
	향후희망직업	미정, 노래를 좋아함, 전문대학 가고 싶음	

<사례9>

구분	내용		주요사항	
	성별(연령)	여(19살)	중퇴경험/학력	중1퇴(가출), 고졸검정고시 준비중
개인사항	가족관계			
	부모이혼, 모는 연락두절, 부는 현재 재혼상태			
	친구관계		싱더, 학원 친구들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까지 경험한 직종			
	커피숍, 레스토랑, 유흥업소(단란주점, 다방, 색시촌 등) 등			
	주로 경험한 직종		유흥업소(1년 정도)	
	임금/조건		한달 3-4백만원 (현재, 커피숍 월급 70-80만 원)	
	구직이유		이전의 새엄마에 의해 선불사기수법으로 유흥업소로 팔림(일명 '탕치기')	
	소비내용		새엄마가 갈취해감, 생활비와 유흥비	
	만족도/느낌점 (긍정·부정적 측면)		되돌릴 수 없는 끔찍한 시간임 세상이 너무 어이없다는 생각이 듦 한편으론 돈벌기가 너무 쉬웠음	
부당대우 경험	부당대우 경험내용			
	협박은 없었지만 선금 받은 이후로 늘 눈치를 봄			
	특별한 부당대우		마성년자 경찰단속 대비 문단속 당함	
	대처방식		도망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참음	
권리 및 보호 관련규정인지도	아르바이트권리보호법		×	
	부모동의서 제출		○	
	근로계약서 작성		×	
	상해시치료비·보상청구		×	
	초과근무시 특별수당 지급		×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향	문제점		아르바이트로 나쁜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함	
	개선점		마성년자도 알할 수 있어야 함	
	다른구직여부		×(현재는 공부가 제일 중요함)	
	향후희망직업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고 싶음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싶음	

<사례 10>

구분	내용		주요사항	
	성별(연령)	여(17세)	중퇴경험/학력	중1퇴 고입검정고시준비중
개인사항	가족관계			
	부모별거, 언니가출, 현재 혼자 고시원서 생활			
	친구관계		섬터친구, 아르바이트 친구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까지 경험한 직종			
	주유소, 전단지, 식당써빙, 주방일, PC방 등			
	주로 경험한 직종		PC방 카운터	
	임금/조건		시간 9-4시까지, 58만원/한달	
	구직이유		생활비·학원비 마련	
	소비내용		생활비	
	만족도/느낀점 (긍정·부정적 측면)		공부만 하고 싶음 교복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움	
부당대우 경험	부당대우 경험내용			
	간단한 욕설, 가출상태 비하발언 등			
	특별한 부당대우		식당주방일하다 간단한 화상	
	대처방식		병원도 못가고 집에서 그냥 씬	
권리 및 보호 관련규정인지도	아르바이트권리보호법		×	
	부모동의서 제출		×	
	근로계약서 작성		×	
	상해시치료비·보상청구		○(알지만 청구할 수 없었음)	
	초과근무시 특별수당 지급		×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향	문제점		성인과 청소년 사이의 대우차이가 큼 똑같이 일해도 월급차이도 심각함	
	개선점		동일한 월급과 대우가 필요함	
	다른구직여부		서점에서 일하고 싶지만 청소년은 불가능	
	향후희망직업		가정주부, 사회복지사	

<사례 11>

구분	내 용		주 요 사 항	
	성별(연령)	남(19세)	중 퇴 경 험 / 학 력	중1퇴 이후 반복가출함 현재 고3 재학중
개인사항	가족관계			
	부모이혼, 부재혼, 엄마, 형과 같이 생활함			
	친구관계		가출 아르바이트 친구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까지 경험한 직종			
	각종 배달, 주유소, 커피숍, 웨이터, 주방일, 기계제작공장 등			
	주로 경험한 직종		기계제작공장	
	임금/조건		일급 2,000원/월급 60~70만원	
	구직이유		생활비 마련이 시급했음 친구 아는 분의 소개로 일함	
	소비내용		주로 생활비와 오토바이로 지출	
	만족도/느낀점 (긍정·부정적 측면)		돈버는 일은 다 힘들었음 오토바이를 타서 하는 일이 좋았음 기계제작 등은 도움이 많이 됨	
부당대우 경험	부당대우 경험내용			
	욕설, 실수할 때 약간의 구타 등			
	특별한 부당대우		배달사고 시 기쁜 나쁜 정도의 욕설	
	대처방식		×(대개는 그냥 참음)	
권리 및 보호 관련규정인지도	아르바이트권리보호법		×	
	부모동의서 제출		○(거의 대부분 제출함)	
	근로계약서 작성		×	
	상해시치료비·보상청구		×	
	초과근무시 특별수당 지급		○(알지만 요구한 적 없음)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향	문제점		일하는 청소년의 인격은 곧잘 무시됨 쉬는 날이 전혀 없음	
	개선점		성인과 똑같이 일해도 적은 임금, 임금수준 개선이 제일 필요함	
	다른구직여부		소년원 퇴사 이후 필요함	
	향후희망직업		기계관련 직종 및 창업자격증 획득 대학을 통해 엔지니어가 되고 싶음	

<사례 12>

구분	내용		주요사항	
	성별(연령)	남(18세)	중퇴경험/학력	중1퇴, 고등학교 재학중
개인사항	가족관계			
	부 당노병, 엄마 치킨집 운영, 동생 연락 두절			
	친구관계		가출 아르바이트 친구들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까지 경험한 직종			
	각종 음식 신문배달, 자동차부품 조립공장 등			
	주로 경험한 직종		각종 배달	
	임금/조건		150만원/월급, 9시간 정도 근무 오토바이 면허 취득 후 수월해짐	
	구직이유		생활비, 용돈마련 학교도 재미 없었음	
	소비내용		주로 생활비, 방세, 오토바이 등	
	만족도/느낀점 (긍정·부정적 측면)		일하기는 어렵지만 쓰기는 쉬웠음 돈을 버는 만큼 모이지 않았음	
부당대우 경험	부당대우 경험내용			
	욕설, 오토바이 사고, 임금체불, 약간의 구타 등			
	특별한 부당대우		오토바이 배달 사고 보상 못받음	
	대처방식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냥 참음	
권리 및 보호 관련규정인지도	아르바이트권리보호법		×	
	부모동의서 제출		×	
	근로계약서 작성		×	
	상해치료비·보상청구		○(실제 요구 못함)	
	초과근무시 특별수당 지급		○(여름방학 수당 받음)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향	문제점		청소년이라서 부당대우가 많음 잘못에 비해 심한 욕설과 구타	
	개선점		휴가가 있었으면 함	
	다른구직여부		퇴원 이후 관련직종에 구직할 예정	
	향후희망직업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음 컴퓨터 관련 직종이 좋을 것 같음	

<사례 13>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사항	성별(연령)	남(19세)	중퇴경험/학력	중1퇴 이후, 수능 예정 중임
	가족관계			
	부 사망, 모 유흥업소, 동생 가출			
	친구관계		가출·아르바이트 친구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까지 경험한 직종			
	주유소, 배달, 써빙, 안마시술소 등			
	주로 경험한 직종		안마시술소에서 안마	
	임금/조건		24시간, 200만원(숙식제공)	
	구직이유		가출 이후 생활비와 용돈 마련	
	소비내용		생활비와 오토바이 등	
	만족도/느낀점 (긍정·부정적 측면)		공부하는 것보다 쉬웠음 돈벌기·모으기 모두 쉽지만은 않았음	
부당대우 경험	부당대우 경험내용			
	욕설 정도			
	특별한 부당대우		특별한 부당 대우 없었음	
	대처방식		x	
권리 및 보호 관련규정인지도	아르바이트권리보호법			x
	부모동의서 제출			○(대개는 제출함)
	근로계약서 작성			x
	상해시치료비·보상청구			○
	초과근무시 특별수당 지급			○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향	문제점		일자리가 구하기 너무 어려움	
	개선점		성인과 같은 대우조건을 원함	
	다른구직여부		퇴원 이후 구직할 예정임 집안 생활비 마련이 시급함	
	향후희망직업		컴퓨터 관련 직종 희망 대학 이후 일반 샐러리맨이 되고 싶음	

<사례 14>

구분	내 용		주 요 사 항	
	성별(연령)	남(18세)	중 퇴 경 험 / 학 력	중1퇴 가출, 고3 재학중임
개인사항	가족관계			
	모사망, 부재혼, 현재 소식 두절, 할머니와 생활하다 가출			
	친구관계		가출 아르바이트 친구들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까지 경험한 직종			
	각종배달(음식, 신문), 전단지 PR일, 주유소 등			
	주로 경험한 직종		주로 배달	
	임금/조건		120만원/한달 + 월세 30만원 방제공	
	구직이유		가출 이후 생활비 마련	
	소비내용		생활비, 유종비, 오토바이 등에 지출	
	만족도/느낀점 (긍정·부정적 측면)		일하기는 어려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자신감 획득	
부당대우 경험	부당대우 경험내용			
	폭언, 욕설, 약간의 구타, 오토바이 사고(병원비 받음) 등			
	특별한 부당대우		배달할 때 음식값 분실 이후 구타	
	대처방식		일당만 받고 그만둠	
권리 및 보호 관련규정인지도	아르바이트권리보호법		×	
	부모동의서 제출		○	
	근로계약서 작성		×	
	상해시치료비·보상청구		×	
	초과근무시 특별수당 지급		×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향	문제점		가출 이후 마땅한 일자리 구직이 어려움	
	개선점		청소년도 쉽게 구할 수 있었으면 함	
	다른구직여부		퇴원 이후 구직할 예정임	
	향후희망직업		대학 이후 평범한 샐러리맨이 되고 싶음 컴퓨터 관련 직종을 희망함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음	

<사례 15>

구분	내용		주요 사항	
	성별(연령)	남(17세)	중 퇴 경험 / 학력	중3퇴 고입검정고시 준비중
개인사항	가족관계			
	부모이혼, 부 재혼, 고모식구랑 같이 살다 가출			
	친구관계		아르바이트 친구들, 쉼터 친구들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까지 경험한 직종			
	전단지, 신문배달, 온라인게임 무기판매, 식당 주방일 등			
	주로 경험한 직종		식당주방일	
	임금/조건		60-70만원/한달	
	구직이유		학교는 재마가 없어서, 일 시작함 부모님 부재, 용돈 없음 생활비도 필요함	
	소비내용		주로 생활비와 게임비용	
	만족도/느낀점 (긍정·부정적 측면)		힘든 일에 비해 돈을 주지 않음 일하는 청소년을 문제아 취급함	
부당대우 경험	부당대우 경험내용			
	욕설, 오토바이 부상 등			
	특별한 부당대우		오토바이 부상에 대한 보상 없음	
	대처방식		보상없이 2-3일간 쉼	
권리 및 보호 관련규정인지도	아르바이트권리보호법		×	
	부모동의서 제출		○	
	근로계약서 작성		×	
	상해시치료비·보상청구		○(알고 있지만, 실제 청구는 곤란했음)	
	초과근무시 특별수당 지급		×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향	문제점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너무 힘들	
	개선점		성인과 똑같이 일해도, 일한 것보다 낮은 임금	
	다른구직여부		쉼터 이후 아르바이트 자리 필요함	
	향후희망직업		아직 모름	

<사례 16>

구분	내용		주요사항	
	성별(연령)	남(16세)	중퇴경험/학력	중2퇴 고입검정고시 준비중
개인사항	가족관계			
	부모이혼, 친척과 함께 살다 가출			
	친구관계		아르바이트와 가출친구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까지 경험한 직종			
	주로 전단지, 신문배달 등			
	주로 경험한 직종		전단지 돌리기	
	임금/조건		100장/2,500원 주택 25원, 아파트 15원	
	구직이유		부모가 없어서 용돈도 없었음 여러 가지 사야할 물건들이 많았음	
	소비내용		친구들과 주로 PC방에 감	
	만족도/느낌점 (긍정·부정적 측면)		전단지는 일이 너무 힘들 돈이 너무 적어서 힘들었음	
부당대우 경험	부당대우 경험내용			
	전단지 버리다 주인에게 들켜 맞음			
	특별한 부당대우		돌린 전단지 값도 받지 못함	
	대처방식		어쩔 수 없이 도망쳤음	
권리 및 보호 관련규정인지도	아르바이트권리보호법		×	
	부모동의서 제출		×	
	근로계약서 작성		×	
	상해시치료비·보상청구		×	
	초과근무시 특별수당 지급		×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향	문제점		용돈이 없을 때 할만한 일이 필요	
	개선점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으면 함	
	다른구직여부		쉽터 나갈 때 구할 생각임	
	향후희망직업		아직 계획 없음 그냥 돈 많이 버는 직업	

<사례17>

구분 \ 내용	주요 사항			
개인사항	성별(연령)	남(17세)	중 퇴 경험 / 학력	중2퇴, 고입 검정고시 준비중
	가족관계			
	부모이혼, 가족해체, 할머니와 생활하다 가출			
	친구관계		아르바이트 가출 친구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까지 경험한 직종			
	주유소, PC방, 편의점, 음식 배달, 음식점 주방일 등			
	주로 경험한 직종		음식점 배달과 주방일	
	임금/조건		150만원 내외	
	구직이유		공부에 관심 없고, 용돈부족과 물건 구입하고 싶어서 .	
	소비내용		용돈과 오토바이 구입	
	만족도/느낀점 (긍정·부정적 측면)		돈을 벌어서 쓸 수 있어서 좋음 세상일에 대한 자신감이 생김	
부당대우 경험	부당대우 경험내용			
	욕설, 오토바이 사고, 주방일 작은 부상 등			
	특별한 부당대우		배달하다 오토바이 사고	
	대처방식		큰 사고가 아니라 그냥 씹	
권리 및 보호 관련규정인지도	아르바이트권리보호법			×
	부모동의서 제출			×
	근로계약서 작성			×(작성할 분위기가 아님)
	상해시치료비·보상청구			×
	초과근무시 특별수당 지급			×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향	문제점		아르바이트는 휴가가 없어서 문제임	
	개선점		쉬다가 다시 일할 때 구직하기 어려움	
	다른구직여부		쉼터 이후 생활 때 구할 예정임 이전에 했던 주방일을 할 생각임	
	향후희망직업		요리사 등 주방과 관련된 일들	

<사례 18>

구분 \ 내용	주요사항			
개인사항	성별(연령)	남(17세)	중퇴경험 / 학력	중2퇴, 고입경정고시 준비중
	가족관계			
	가족해체, 할머니랑 생활하다 가출함			
	친구관계		가출·아르바이트 친구들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까지 경험한 직종			
	전단지, 철거작업, 신문배달, 일반 공장 등			
	주로 경험한 직종		공장	
	임금/조건		70만원(8시30분-7시30분)	
	구직이유		용돈을 줄 사람이 없어서.. 중학교 중퇴 이후, 생활비 마련	
	소비내용		생활비와 용돈	
	만족도/느낀점 (긍정·부정적 측면)		학교가는 친구들이 부러움 일이 너무 힘들	
부당대우 경험	부당대우 경험내용			
	욕설,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무시와 폭력 등			
	특별한 부당대우		공장에서 작업반장의 폭력	
	대처방식		그냥 맞음	
권리 및 보호 관련규정인지도	아르바이트권리보호법			×
	부모동의서 제출			○
	근로계약서 작성			×
	상해시치료비·보상청구			×
	초과근무시 특별수당 지급			○(공장에서는 수당 받음)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향	문제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음	
	개선점		성인과 같은 임금적용이 필요	
	다른구직여부		쉼터 이후에는 아르바이트 절실함	
	향후희망직업		아직 불투명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음	

<사례 19>

구분	내 용		주 요 사 항	
	성별(연령)	남(18세)	중 퇴 경 험 / 학 력	중2퇴 고입 경쟁고시 준비중
개인사항	가족관계			
	부모이혼, 친척들과 생활하다 가출함			
	친구관계		가출 아르바이트 친구들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까지 경험한 직종			
	전단지, 주유소, 카페 써빙, 티켓다방 보도, 호스트바 등			
	주로 경험한 직종		호스트바	
	임금/조건		일당 10만원+a	
	구직이유		용돈과 생활비 필요	
	소비내용		유흥비, 오토바이 구입 등	
	만족도/느낀점 (긍정·부정적 측면)		돈 버는 일이 너무 쉬웠음 세상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부당대우 경험	부당대우 경험내용			
	욕설, 무시하는 말투와 태도 등			
	특별한 부당대우		2차 요구	
	대처방식		별다른 대처 안함	
권리 및 보호 관련규정인지도	아르바이트권리보호법		×	
	부모동의서 제출		×	
	근로계약서 작성		×	
	상해시치료비·보상청구		×	
	초과근무시 특별수당 지급		○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향	문제점		일반 아르바이트는 너무 힘들었음	
	개선점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으면 함	
	다른구직여부		쉼터 이후 일자리 필요함	
	향후희망직업		가수가 되고 싶음, 대학도 가고 싶음	

<사례20>

구분 \ 내용	주요사항			
개인사항	성별(연령)	남(18세)	종 퇴 경 험 / 학 력	중1퇴, 고입검정고시 준비중
	가족관계			
	부모이혼, 가족해체, 연락두절, 가출 이후 친구들과 생활함			
	친구관계		가출 아르바이트 친구들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까지 경험한 직종			
	커피숍 써빙, 나이트 뺨끼, 웨이터 등			
	주로 경험한 직종		나이트 웨이터	
	임금/조건		기본 120만원+팁+보너스= 200-250만원/저녁 7시-새벽 3시까지	
	구직이유		생활비와 용돈 마련 유형비도 필요함	
	소비내용		주로 생활비와 숙소 월세	
	만족도/느낀점 (긍정·부정적 측면)		돈 버는 일이 쉬웠음 그러나 돈이 모아지도 않았음	
부당대우 경험	부당대우 경험내용			
	욕설, 일을 배우다 선배들에게 맞음			
	특별한 부당대우		x(심한 구타는 아니었음)	
	대처방식		그냥 참음	
권리 및 보호 관련규정인지도	아르바이트권리보호법			x
	부모동의서 제출			o(성인이라고 속임)
	근로계약서 작성			x
	상해사치료비·보상청구			x
	초과근무시 특별수당 지급			o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향	문제점		일반일과 업소일의 임금차이가 큼	
	개선점		일반 일자리 구하기 쉬웠으면 함	
	다른구직여부		컴퓨터 관련 일자리를 구하고 싶음	
	향후희망직업		컴퓨터 관련 직종 대학도 가고 싶음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연구집필진 ◇

김태영 강릉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연구자문진 ◇

박창남 동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종국 서울소년원-고봉정보통신학교 인성검사개발팀장

◇ 연구협력진 ◇

공미진 원경고등학교 교사

김석환 두레자연고 교사

김성현 중간처우시설 '딸부자집' 소장

김영찬 서울 성지 중·고등학교 교감

김지수 서울소년원-고봉정보통신학교 교사

김현정 안양소년원-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교사

박정연 해바라기 쉼자리 소장

송기웅 영산성지고등학교 교사

송연순 마자렐로 센터 총책임자

신호정 양업고등학교 교사

이정미 선도보호시설 '한국여성의집' 총무

조정혜 로템의 집 원장

최덕경 돈보스꼬 직업훈련원 책임자

◇ 연구보조 ◇

김은혜 정신문화연구원 사회학과 대학원 졸업

성연수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졸업

정은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졸업

공 백

2003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03-R01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

-청소년 의복문화와 소비-(맹영임 · 구정화)

03-R02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

-청소년 음식문화와 소비-(조혜영 · 김선아)

03-R03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I

-청소년 소비생활 문제와 대책-(윤철경 · 조아미 ·
백지숙 · 유혜림)

03-R04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 -정책제안 요약집-(임지연)

03-R05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실태연구(이종원 · 유승호)

03-R06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김정주 · 김용대 · 성기원)

03-R07 청소년의 사이버커뮤니티 참여 및 이용실태 연구
(황진구 · 권태희)

03-R08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최원기 · 전명기 · 이주연)

03-R09 중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전경숙 · 노재봉)

03-R1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폭력 대책 연구
(이민희 · 임영식 · 이진숙)

03-R11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길은배 · 문성호)

03-R12 청소년 리더십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우정자 · 김은경 · 김형주)

03-R1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김영지 · 이용교 · 김형주)

- 03-R14 청소년 정보소의 실태 조사 연구(김경준·최선희)
- 03-R15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조사개요보고서
(이경상·김진호·오혜섭·김희진)
- 03-R16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과 함양방안 연구(김선미·
남경희)
- 03-R17 가족복귀 가출청소년들의 귀가요인 분석 및 가출청소년지도 방안 모색(방은령)
- 03-R18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정책적 함의(문성호)
- 03-R19 지방정부의 청소년예산결정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김영호)
- 03-R20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유형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통제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김희화)
- 03-R21 청소년 진로개발을 위한 방향성 탐구(최동선)
- 03-R22 청소년의 사이버일탈의 원인에 관한 경험연구(이성식)
- 03-R23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노혁)
- 03-R24 거주지역환경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전신현)
- 03-R25 폭주청소년의 위험행동과 예방에 관한 연구(김문섭)
- 03-R26 자살사이트의 생성 및 이용, 그리고 운영·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문성원)
- 03-R27 부모를 위한 청소년지도 가이드(신인순 외)
- 03-R28 한·중·일 청소년 정책비교 연구(이종원)
- 03-R29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과 진로선택 경향
연구(김선미)
- 03-R30 2003전국청소년 자원봉사 주관사업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1 2003 대한민국 청소년봉사상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2 자원봉사 선진지 연수보고서(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3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매뉴얼(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4 일본자원봉사 지원센터 활동사례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5 한중정책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6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수립 공청회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7 청소년 삶의 질 향상 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8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김영한 · 서정아)
- 03-R39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재분 · 박효정 · 현주)
- 03-R40 일탈 · 범죄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김은경 · 이동원)
- 03-R41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손유미 · 김상호 · 조정아)
- 03-R42 귀국 및 탈북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조한범 · 이금순 · 이우영 · 전효관)
- 03-R4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춘화 · 윤옥경)
- 03-R44 서현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 비용산정에 관한 연구
(김영한 · 김진호 · 김갑성)
- 03-R4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연구(길은배 · 한만길 · 최영표 · 강영혜 · 오해섭 · 김학성)
- 03-R46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분석 및 취업지원 방안
(이경상 · 조혜영 · 박창남)
- 03-R47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교육시설 특성화방안
(김정주 · 김진호 · 소병조)
- 03-R48 월드컵현상을 통해 본 신세대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청소년정책의 과제(이종원 · 이경상 · 김종길)

- 03-R49 청소년 책임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이춘화·서정아·김상현)
- 03-R50 선진국형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김영지·전경숙·김민)
- 03-R51 청소년정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9회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수상집 모음집-
(황진구·강명숙·임지수)
- 03-R52 2003특성화 수련거리개발 [3]-청소년마을체험
(윤철경·이은경)
- 03-R53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6]-국제언어캠프
(김선미·김호숙)
- 03-R54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7]-환경음식만들기
(서정아·최경학)
- 03-R55 청소년 단체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맹영임·
이광호·김민·임연희)
- 03-R56 연령대별 외국청소년 정책비교 및 정책 대안(윤철경·서수경)
- 03-R57 청소년 개발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김진호·송병국·
임영식·김진화·오해섭·윤명희·정효진)
- 03-R58 선진 각 국의 청소년 보호체계 사례조사(우정자·
김문섭·최종혁)
- 03-R59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함병수·임지연·김종두)
- 03-R60 청소년 국제교류 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조혜영·최원기·임지연)
- 03-R61 청소년수련시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황진구·김경준·이춘화·최창욱)
- 03-R62 인천시 청소년수련관 운영방식 연구(김경준·함병수·
김영한·최창욱)

연구보고 03-R 09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인 쇄 2003년 12월 10일

발 행 2003년 12월 15일

발 행 처 .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 행 인 : 권 이 중

등 록 : 1993. 10. 23 제21-500호

인 쇄 처 : 문영사 전화 (02) 2263-508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02-2188-8844(사무국)

ISBN 89-7816-454-4(93330)

공 백

연구보고 03-R 09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연구책임자 : 전경숙(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객원연구원 : 노재봉(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개발원

공 백

【 연구요약 】

1. 연구개요

본 연구는 중퇴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들의 아르바이트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적·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불리한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수립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편법적인 노동력 착취와 인권침해, 탈법적인 취업으로부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다루었다.

먼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현재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 취업의 개념적 정의를 비롯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유형, 시간제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현황과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중퇴 청소년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중퇴청소년의 양적인 증가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정부 및 민간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아르바이트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중퇴청소년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위해 대안학교와 소년원, 청소년쉼터 및 직업훈련원에 있는 중퇴청소년 중 과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00명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하기 어려운 내

용은 심화된 면접지를 활용하여 심층면접조사로 보완하였다. 면접대상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퇴생 20명으로 아르바이트 업종별로 4-5명 정도를 추출하였다.

한편, 캐나다,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외국의 청소년 취업 전략 및 중퇴청소년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취업지원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특히, 효율적인 청소년 취업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캐나다 현지를 방문하여 전문가 인터뷰, 현장견학, 최근 자료수집 등을 통해 시사점 도출의 효과를 최대화하였다.

끝으로, 중퇴청소년과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각종 현황과 이론적 고찰, 현장조사(설문 및 면접조사)를 통한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 분석, 청소년 취업지원을 위한 국내외 정책 사례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중퇴 청소년의 건전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의 불합리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지원체계를 제안하였다.

2. 연구결과

1) 중퇴청소년과 아르바이트 지원정책의 필요성 고찰

최근 들어 중퇴청소년 문제는 그 증가추세와 심각성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최근 3년간 중퇴원인별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면, 실업계 고등학생의 중퇴생 비율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재학생 대 중퇴생 비율이 1%내외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3년 동안의 가감율도 작은 폭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업고생의 경우는 1999년에 3.8%에서 2000년도에는 4.2%로 증가하다가 2001년도에는 5.0%를 기록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퇴 원인별 분석에서도 실업고생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사정이나 품행, 학교생활 부적응 등 도피형 혹은 불가피형 중퇴로 유형화되어 주요 정책대상이 되는 집단의 비율이 실업고생에게 있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도피형 혹은 불가피형 중퇴가 중학생(76.2%→69.0%→62.7%)과 일반고생(79.8%→75.6%→71.8%)의 경우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실업고생(96.9%→96.3%→96.8%)은 계속 96%이상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청소년 학업중단 문제의 주요 정책대상은 실업고생임을 알 수 있다.

학교중도탈락은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커다란 손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처럼 학력과 학벌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학교중퇴자는 사회중도탈락자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적으로 낙오자의 길을 걷게되며, 사회적 차원에서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과 노동력의 확보에 실패하여 실업과 빈곤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한편 중도탈락 후 직면하게 되는 개인적인 위기상황이나 일탈행동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사업 및 정책은 주로 학생 청소년의 직업체험과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제적 지원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학교를 중퇴한 상태에서 이들보다 실제적으로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한 욕구와 필요가 더 높은 중퇴 청소년을 위한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학교 혹은 친구에 대해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학업의 부담을 과중하게 느껴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의 경우, 학업을 계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학업을 계속하기보다는 직업을 가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며, 이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직업을 통해 자신이 처해 있는 불안정성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며 학교에서 성취하지 못한 것을 일을 통해 보상받고 경제적 독립을 통한 사회 입문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중퇴청소년의 비행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2) 중퇴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의 시사점

중퇴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들의 불합리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돕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퇴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나타난 주요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가출-중퇴로 이어지는 중퇴 청소년의 경우에 아르바이트는 '생활비 마련'을 위한 노동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가출과 중퇴라는 낙인으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더욱 어렵고, 심지어 노동착취를 당하기도 한다. 또한 숙식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르바이트는 대개는 '성매매'와 '노동력 착취'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둘째,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기회와 아르바이트 직종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음성화를 조장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이 대체로 많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는 '전단지 돌리기'나 '주유소', '음식점 배달' 등인데, 이런 일들은 대체로 보수가 적고 근로환경도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적

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시장의 경쟁력에서 남자에게 뒤지는 여자의 경우는 아르바이트 구직에 어려움을 갖게 되고, 따라서 더욱 '유흥업소 서빙·접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조건에 처하게 된다.

셋째, 현재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이 만연되고 있으며,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로 청소년 인권침해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위법적인 고용 실태는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유흥업소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또한 불법적인 청소년 고용 실태는 심각한 부당 대우로 이어진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한 부당한 대우는 임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일어나며,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부당한 대우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중퇴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들이 행하는 모든 아르바이트들과 관련된 '규정들'이 현재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현실'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먼저 성매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아르바이트 연령대가 더욱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규정의 정비와 단속, 적발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 등의 이유로 인해 청소년의 노동력이 과도하게 착취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재활 기회와 사회 복귀 시스템을 갖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원활한 가족 복귀를 위해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가족 복귀가 불가능한 청소년들에게는 거주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대부분의 중퇴 청소년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또 한번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알선하고, 직업교육과 생활기술 훈련 등을 통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침해 차단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선입견이나 부정적인 시각을 배제하고,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들의 생활에 제공하는 유용성을 더욱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불법적인 청소년 고용을 막고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상담 및 소개, 감독, 사후 문제처리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할 정부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노동의 의미를 깨닫고, 사회생활과 직업의 세계를 경험하고,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건전하고 다양한 아르바이트 직종을 개발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3) 외국의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의 시사점 및 적용가능성

캐나다,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 외국의 청소년 고용 전략과 중퇴청소년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과 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선진국들의 사례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될 수 있다.

취업지원을 위한 종합전략의 수립 및 추진 : 캐나다의 청소년고용전략(YES)이나 호주의 전환기 청소년 지원계획과 같은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중퇴생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도 학력이나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원활한 취업 및 직업 유지

가 어려운 형편인데, 중퇴생의 경우는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

맞춤 서비스의 제공 : 모든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전형적”인 취업지원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청소년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직업능력이나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지원책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개인의 경우에 맞는 맞춤 지원책을 활성화하려면, 유연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하며 전문인력의 개별적인 도움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고용기관에 대한 지원강화 : 한국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한다고 해서 그 기관이나 회사에 대해 특별히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청소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고용업체에 대한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청소년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임금 및 교육훈련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캐나다의 Skills Link와 Summer Work Experience 프로그램도 정부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노동관련인식의 제고 및 근로청소년 보호정책의 추진 : 청소년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하기 쉽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적절히 항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특히 중퇴생의 경우, 학교와 같이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없으므로 어려움이 가중된다.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유해환경에의 노출을 막고 과도한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치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중 상당 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 제공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취업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지역사회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취업

의사를 가진 청소년과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고용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수요를 가능한 한 늘려 나가야 한다.

청소년들의 참가율 제고 : 청소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프로그램의 구상 초기부터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들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고 성취의욕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안목 : 캐나다의 Skills Link의 경우에는 통상 6개월을 지원하나 필요시 3년까지 그 지원 기간을 늘리고 있다. 미국도 취업 후 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 능력을 배양하도록 유도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짧은 기간만을 지원이들 국가들은 청소년 취업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여 지원기간을 가능한 한 확대하고 있다. 하는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

3. 제언 :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지원방안

1) 정책의 기본 방향

청소년 취업 지원체제 확립을 위한 정책 방안 수립 : 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욕구가 건전하게 노동환경으로 흡수되어 이들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학교, 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가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중퇴청소년의 경우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취업지원 정책은 교육, 노동, 복지, 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시책이 긴밀하게 연계된 종합적인 정책이어야 한다는 전

제하에 각 분야의 지식과 경험의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질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사회복귀에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기회와 아르바이트 직종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이 만연되고 있으며,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로 청소년 인권침해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생계 수단으로 혹은 일의 필요성으로 인해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가 높은 중퇴청소년의 경우 그 피해정도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인식의 전환 :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이제 어느 특정 청소년 부류에 한정된 사안이 아닌 전체 청소년의 일상생활 문화양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제도와 사회적 인식은 아직 전통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직도 우리사회엔 일하는 청소년을 불우한 학생이거나 탈선과 비행성향이 높은 문제 청소년으로 낙인찍는 경향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아르바이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불우청소년이나 탈선학생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은 바뀌어야 하며, 학습과 일이 분리되지 않고 평생교육이 요구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청소년기는 공부만이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라는 논리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보호하고 제한하는 소극적인 청소년 근로개념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여 건전한 청소년 노동시장을 육성하려는 방향으로 시각을 전환하여야 한다.

2) 구체적 정책 대안

청소년 고용 관련 법령 제정 및 정비 : 청소년의 불리한 노동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 고용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청소년 파트타임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현행의 근로기준법을 현실화한다. 또한, 청소년 근로 관련법과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청소년 노동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며, 비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정상적 근로형태인 “시간제 취업”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청소년 불법 고용에 관한 법률적 규제 강화 : 청소년의 인권과 권익보호 차원에서 청소년 불법고용에 관한 법률적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며, 이와 아울러 청소년과 고용주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관한 법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가출 후 중퇴로 이어지는 중퇴 청소년의 경우에 아르바이트는 ‘생활비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노동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가출과 중퇴라는 낙인으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더욱 어렵고, 악덕 업주는 이를 이용해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한다. 또한 숙식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르바이트는 대개 ‘성매매’와 ‘노동력 착취’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아르바이트 직종 개발 :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르바이트를 제한하며, 특히 중퇴청소년을 위해 단기고용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학교교육을 대체할 만한 고용 프로그램 및

직종 개발에 주력한다.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원하는 청소년을 위한 단기고용 프로그램이나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기관이나 단체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도제제도를 운영하거나 단기체험 프로그램을 공식화하고 정례화하는 것도 일하면서 배우는 직업체험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단기고용 프로그램이나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학교교육을 대체할 만한 대안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므로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여자청소년을 위한 업종 개발 : 남자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자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업종을 개발하여 불건전한 노동환경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위기상황에의 노출을 사전에 예방한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여자청소년의 파타임을 확대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보육훈련을 통한 청소년 베이비시터 조합이나 노인 돌보기 아르바이트 등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해 보는 기회도 함께 갖게 될 것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보호센터 설립 : 건전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위한 사회안전망 형성의 일환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보호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불합리한 피해사례로부터 보호한다. 시립 혹은 구립 청소년시설에 아르바이트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지원, 보호사업을 할 수 있는 센터의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센터에서는 청소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에 대한 고발상담 접수 및 처리 기능을 함께 수행하여 청소년들의 피해 사례를 줄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

소년들이 당하는 부당행위가 구제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공공 아르바이트 알선 기관 개설 :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공공통로를 통해 일자리를 중개해 줄 수 있는 공공 아르바이트 알선 기관을 개설하여 비공식적 구직 통로를 통한 유해한 아르바이트 직종에의 노출을 사전에 차단한다. 현재 친구나 광고지 등 비공식적 구직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지역사회와 청소년 관련 시설 내에 진로상담실 혹은 취업정보실을 마련하여 구인구직의 공식화된 창구를 개설한다면, 청소년들에게 일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적성을 고려한 업종의 선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청소년 불법 고용으로부터의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0대 아르바이트 지침서 개발 및 보급 : 청소년의 취업과정과 절차, 노동 대가에 대한 권리 및 부당대우에 대한 대처 등 법률적인 지식과 이해를 돕기위해 10대 아르바이트에 관한 중요한 지침을 수록한 매뉴얼 북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청소년 관련 시설 및 학교 등에 보급하고 인터넷상에 유포함으로써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 등 각종 피해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중퇴청소년의 취업지원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 : 중퇴청소년의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지원 프로그램 및 거주지 제공 등 이들을 위한 재할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한편, 중퇴청소년의 경우 그들의 재할 기회와 사회복지 시스템을 갖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원활한 가족 복귀를 위해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가족 복귀가 불가능한 청소년

년들에게는 거주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대부분의 중퇴 청소년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또 한번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건전한 아르바이트 알선하고, 직업교육과 생활기술 훈련 등을 통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복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청소년 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청소년을 위한 아르바이트 제공 및 직업체험의 기회제공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수상제도 혹은 보조금 혜택 및 인센티브제도 마련을 통해 청소년의 취업지원 정책에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한편, 청소년 친화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한다고 해서 그 기관이나 회사에 대해 특별히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청소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고용업체에 대한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 청소년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임금 및 교육훈련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 백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8
II.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이론적 고찰	11
1.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의 개념적 정의	13
1)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의 혼용	13
2)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 취업의 차이	14
2.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특징과 유형	16
1)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특징	16
2)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유형	17
3.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 현황과 법적 지위	21
1)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현황	21
2) 청소년 근로자의 법적 지위	23
4. 선행연구 개관	26
III. 중퇴청소년을 위한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 현황	33
1. 중퇴청소년 현황	35
2. 중퇴청소년의 유형과 원인별 분석	36
1) 중퇴청소년의 유형	36
2) 청소년 학업중단의 원인	40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현황	45
1) 국내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현황	45
2) 중퇴청소년과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의 필요성	55
IV.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문제점	59
1. 설문조사 결과분석	61
1) 조사설계 및 조사범위	61
2)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배경	64
3)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	68
4) 아르바이트 실태 ..	77
5) 아르바이트 영향	89
6) 아르바이트 직종별 교차분석 결과	97
2. 면접조사 결과분석	101
1) 면접대상자에 관한 일반적 사항	101
2) 아르바이트 경험	115
3) 부당대우 경험과 대처방식	133
4) 노동권 보호 관련 규정인지도	137
5) 아르바이트의 문제점 및 향후 진로	138
3. 조사결과의 논의	141
V. 외국의 중퇴청소년 취업현황 및 지원정책	147
1. 캐나다의 중퇴생 현황과 취업지원정책	150
2. 미국의 중퇴생 현황과 취업지원정책	164
3. 호주의 청소년 취업현황과 지원정책	171
4. 일본의 청소년 취업현황과 지원정책 ..	182
5. 한국에의 시사점	195

VI. 제언 및 결론	199
1. 제언 :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지원 방안	201
1) 정책의 기본 방향	202
2) 구체적 정책 대안	205
2. 결론	216
참고문헌	221
<부록 1> 설문지 ..	233
<부록 2> 심층면접 사례	243

표 목 차

<표 I-1> 연구방법 및 절차	10
<표 II-1>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의 예시	16
<표 II-2> 연령별 · 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22
<표 II-3> 산업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22
<표 III-1> 중퇴원인별 현황과 추이	36
<표 III-2> 중퇴청소년의 유형과 특징	39
<표 III-3> 선행 연구결과로 본 학업중퇴의 원인	45
<표 III-4>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직업훈련기관 현황	47
<표 III-5> 전국청소년자활지원관 설치 현황	49
<표 IV-1> 시설별 조사대상 인원	62
<표 IV-2> 조사 범위 및 세부 설문영역	63
<표 IV-3> 성별	65
<표 IV-4> 중퇴학력	65
<표 IV-5> 중퇴사유	65
<표 IV-6> 부모상태	66
<표 IV-7> 가정형편	66
<표 IV-8> 비행경험	67
<표 IV-9> 용돈의 규모 (월평균)	68
<표 IV-10> 용돈만족도	69
<표 IV-11> 용돈마련 수단	70
<표 IV-12> 용돈의 용도	71
<표 IV-13> 용돈 부족시 대체수단	72
<표 IV-14> 아르바이트의 유익성에 대한 견해	72
<표 IV-15> 아르바이트 종류에 대한 견해	73

<표 IV-16> 아르바이트 기회에 대한 견해	74
<표 IV-17> 아르바이트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	75
<표 IV-18> 아르바이트 관련법에 대한 인지도	76
<표 IV-19> 최초 아르바이트 경험 시기	77
<표 IV-20> 경험한 아르바이트의 종류	79
<표 IV-21> 아르바이트 선택시 고려사항	80
<표 IV-22>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	81
<표 IV-23> 아르바이트 보수 규모(시간당)	82
<표 IV-24> 아르바이트 보수 규모(일당)	82
<표 IV-25> 일당 근무시간	83
<표 IV-26> 주당 근무시간	83
<표 IV-27> 아르바이트 지속성	84
<표 IV-28>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85
<표 IV-29> 부모동의서 제출여부	85
<표 IV-30> 아르바이트 동기	86
<표 IV-31> 번 돈의 사용 용도	87
<표 IV-32> 부당 대우 경험	88
<표 IV-33> 부당 대우시 대처방법	89
<표 IV-34> 아르바이트 후 만족도	90
<표 IV-35> 아르바이트 수행시 어려움 및 고충	90
<표 IV-36> 아르바이트의 경제적 도움 정도	91
<표 IV-37> 아르바이트 이후 소비생활의 변화 정도	91
<표 IV-38> 아르바이트의 긍정적 영향	92
<표 IV-39> 아르바이트의 부정적 영향	93
<표 IV-40> 향후 희망 아르바이트 종류	94
<표 IV-41> 향후 직업과의 연계성	95
<표 IV-42>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	96

<표 IV-43> 개인적 요구사항(현재 필요한 것)	96
<표 IV-44> 아르바이트 직종에 따른 유해성 인지도 ..	97
<표 IV-45> 아르바이트 직종과 보수규모 ..	98
<표 IV-46> 아르바이트 직종과 근로계약	99
<표 IV-47> 아르바이트 직종과 부당대우 경험 ..	100
<표 IV-48> 면접대상자에 관한 일반적 사항 (성별: 여)	111
<표 IV-49> 면접대상자에 관한 일반적 사항 (성별: 남)	112
<표 IV-50> 가출(중퇴)이전과 이후 집단생활 사이의 변화내용	113
<표 IV-51> 성별로 본 직종과 임금차이	117
<표 IV-52> 공통된 부당대우와 직종별 부당대우의 경험	136
<표 V-1> 고교졸업자의 취직 내정을	185
<표 V-2> 단대졸업자의 취직 내정을	186
<표 V-3> 대학졸업자의 취직 내정을	186
<표 V-4> 학력별 초임 및 비율	187
<표 V-5> 고등학교 중퇴생의 추이	188
<표 V-6> 사유별 중퇴생수의 구성비 추이	189

그림목차

[그림 IV-1]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정책 모형	215
------------------------------------	-----